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6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산업인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농촌인구의 도시이농 현상으로 이농민들이 도시외곽지역에 밀집하여 정착하게 되면서 ‘도시빈민지역’의 ‘도시빈민층’이 형성되었다. 도시빈민층을 이루는 이들은 주로 저 학력 무자본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써 공장노동자, 일용노무자, 파출부나 행상 등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거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산동네 판자촌’에 주거하고 있었다.

이들은 빈곤의 세습화와 교육기회로부터의 소외현상이 반복되면서 산업사회 안에서 신분상승의 기회를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되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방치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된 도시 빈민층의 청소년들은 경제적, 교육적 사회심리적, 문화적 지원의 열악함으로 인해 신체 발달의 불균형, 학습능력의 저하, 정서적 불안과 자신감 부족, 사회성 부족 등의 문제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일탈 및 비행으로 이어지면서 청소년 자신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교단체나 민간단체가 빈민지역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민지역의 문제를 공유함과 동시에 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4년 하월곡동 ‘산돌공부방’과 ‘밤골아이네공부방’이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부방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때부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부방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그 숫자가 100여개

에 이르렀다. 한편 증가하는 도시빈민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88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 준비를 위한 도시환경미화정책 차원에서 '도시재개발정책'이 시행되는 것으로 도시빈민지역의 강제철거정책이 단행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도시빈민층의 투쟁도 있었으나 결국 도시빈민지역 공동체는 점차로 와해되면서 또 다시 변두리로 쫓겨가는 현상이 일어났다(서울가톨릭공부방협의회, 2000 : p8~9).

90년대 중반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도시빈민의 와해현상과 국민소득 일반 불의 선진국화가 공존하는 시기였다. 이 같은 사회현상은 공부방의 존폐 위기를 가져왔고 실제로 공부방의 숫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민간 청소년공부방들이 지난 10여 년간 빈민지역에서 청소년들의 기초 학습지도, 음악·미술·공동체놀이 등의 문화활동, 다양한 심성훈련과 상담 및 권익보호활동, 학부모 교육과 지역활동을 통해 빈민지역 청소년들의 인성적·지적 성장에 기여해 왔던 성과¹⁾로 인해 청소년공부방은 빈민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존립해야 할 당위를 갖게 되고 그 구체적인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IMF 경제대란으로 인해 빈곤층이 급증하고²⁾ 급식대상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면서 공부방을 중심으로 한 물

1) 저소득층청소년들이 공부방에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변해 가는 점으로는 열등감의 해소, 공동체놀이를 통한 주변과의 관계 개선, 과거의 실수를 극복하는 모습, 선생님을 통해 위안을 받아 밝아지는 모습 등을 들고 있다. (박문수, 1998 : p140)

2) 1999년 3/4분기 최저생계비(중소도시 4인 가구, 85만 9천명)를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절대빈곤인구는 전체 인구의 9.9%인 464만명이며, 상대빈곤선(중위근로자 소득의 50% : 중소도시 4인 가구, 104만 5천원)에 의한 저소득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2%인 619만명으로 추정된다(1999. 박순일·박능후·강성호). 이들 가운데 118만명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으며 57만명이 한시적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절대빈곤인구 289만명과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나 상대빈곤선 이하인 저소득층 인구) 155만명을 합산한 444만명(전체 인구의 9.5%)은 피부양자의 존재, 주택소유 등의 이유로 사각지대에서 기초생활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피부양자의 40.9%가 실업 상태이며, 22.8%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

질적 정서적 지원은 청소년공부방 존립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민간 청소년공부방 활동의 영향으로 정부도 전국에 걸쳐 500여 개의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거나 자체 운영한 결과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 자신은 물론 부모와 지역주민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낙후된 시설과 비좁은 공간, 한정된 프로그램, 재정적인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으로는 구립공부방 안에서는 아동학습지도, 특별활동, 독서실, 열람실, 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열람실만 운영하는 게 관행이다. 관악구 안에만 14개의 구립공부방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민간이 운영하는 4개의 공부방만이 남았으며 이 곳에서는 민간공부방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찰은 있지만 관에서는 아이টে이 없고 공부실무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인정받아 가고 있다. 운영을 맡은 민간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책임질테니 구에서는 재정을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위탁조례를 만들어 지금까지 공부방을 운영해 온 단체에게 맡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박문수, 1998 : p191).

타났다(2000. 이현주).

이와 같이 취약한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이들 가정의 아동 가운데 결식아동 등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공식적 통계로서 교육부의 중식지원을 받은 초·중·고 학생은 1997년 11,898명에서 1999년 151,375명, 2000년 3월 164,000명(전체 학생의 2.2%)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다. 한편 정경배·김미숙(1999)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결식아동이 전체 실업가구 아동의 2.6%로서 연령별로는 5세 미만 아동의 1.5%, 5세~12세미만 아동의 2.1%, 12세~18세미만 아동의 3.2%이며, 이들의 17.7%는 학습부진문제, 6.6%는 비행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민간지원공부방 역시 정부지원공부방과는 다른 양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연유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들은 공부방간의 연대와 지역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하여 각각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재정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하기를 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청소년공부방과 정부지원 청소년공부방의 운영 및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 보완하여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좀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지적, 인성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 민간 및 정부지원의 청소년공부방 설립배경과 목적, 지역별 설치현황, 기능 및 활동내용, 외국 저소득층청소년 방과후 교육활동 등에 관해 알아본다.

둘째, 공부방 관련 보고서 및 자료, 청소년공부방 실무자와의 개별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청소년공부방 운영상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파악하여 청소년공부방 운영모델 개발 시 반영한다.

셋째, 청소년공부방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화(법적 정당성), 시설조건, 인력확보, 재원조달, 활동내용, 지역사회협력망 구성 등

을 연구하여 지역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청소년공부방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3.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공부방 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청소년공부방 운영방침, 외국의 방과후 아동·청소년 지도,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청소년 생활실태와 욕구, 지역사회 조직 등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문헌을 검토 분석한다.

2) 면접조사

정부지원 청소년공부방과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가톨릭공부방연합회, 성남지역공부방연합회, 광주지역공부방연합회, 경인지역공부방연합회, 대구지역공부방연합회, 부스러기선교회 등 민간지원 청소년공부방을 방문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존 청소년공부방의 시설현황과 운영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점, 공부방청소년들의 생활환경과 욕구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지 개발과 운영모델 개발에 반영한다.

3) 설문조사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회의,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지를 작성하여 시도별 정부지원 청소년공부방(500여개)과 민간지원

청소년공부방(150여개)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4) 자문회의

청소년복지 관련 교수, 공부방실무자 등 관련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방향,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모델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
2. 청소년공부방의 목적과 설립배경
3. 청소년공부방 지역별 설치현황
4. 청소년공부방의 기능과 활동내용

II. 이론적 배경

문헌연구와 공부방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알아보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및 정부지원 청소년공부방의 설립배경과 목적, 지역별 설치현황, 기능 및 활동내용 등에 관해 살펴본 후 외국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후 교육활동을 조사해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1.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는 가정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소득 가구는 일반가구와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낮은 소득으로 인해 지출도 낮으며 열악한 주거형태와 생활환경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기의 교육과 정서함양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저소득층청소년은 가정과 부모가 주는 어려움의 요소들 때문에 빈곤한 상태를 갖게 되며 정상적인 청소년기 성장, 발달과업과 성취에 필요한 제요소들의 결핍 또는 열악함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올바른 성장과정을 겪지 못한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겪는 결핍요인은 점차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을 경험하도록 하는 악순환의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욕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최저생활 욕구이다. 둘째, 주거에 관한 욕구이다. 셋째, 보건에 관한 욕구이다. 넷째, 교육에 대한 욕구이다. 이러한 저소득층이 갖는 욕구에 더하여 청소년들은 그 시기적 특성에 기초한 발달과업에 비추어 필요한 욕구를 갖는다. Maslow의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청소년에게 가장

절실한 욕구는 생존의 욕구라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기의 가능성과 특성에 따른 안전과 소속과 사랑의 욕구 그리고 자존심의 욕구도 중요하다.

따라서 저소득층청소년이 갖는 빈곤이라는 환경과 청소년이라는 시기로 인해 나오는 욕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주거, 의료, 생활에서의 최소한의 인간의 조건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경제적 욕구, 둘째,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길 원하는 교육욕구, 셋째, 새로운 인간관계의 확장, 동일시, 가치관 확립 등과 관련된 사회관계 및 지지에 관련된 욕구, 넷째, 여가문화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익히고 정서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누릴 욕구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저소득층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는 그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³⁾

3) 다음의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는 노혁과 조홍식의 심층 면접 조사와 황창순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노혁의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관한 조사결과는 1996년 12월과 1997년 1월에 사이에 3차에 걸쳐 저소득층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 13~18세 사이의 청소년이며 10명은 중학생, 4명은 인문계 고등학생, 4명은 실업계 고등학생, 2명은 근로청소년이다.(노 혁, 1998 : 71~84).

조홍식의 빈곤층 청소년의 복지적 소외 양상과 욕구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는 1999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 동안 서울시 관악구 반민지역 거주 청소년 7명과 가출 남자청소년 3명을 총 10명의 빈곤층 청소년을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이다(조홍식, 1999 : 65~72).

황창순의 저소득층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관한 설문 조사결과는 1999년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18일 동안 서울 및 성남·안산 지역의 저소득층청소년 297명과 서울 중산층 지역 일반청소년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황창순 외, 1999 : 67~128).

1) 경제적 실태와 욕구

저소득층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정의 빈곤은 부모 중 한쪽의 부재로 경제적 결손을 가져왔거나 부모 모두 빈곤한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노혁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20명 중 14명이 공적부조의 대상자인데 실제로 13명이 가정의 경제생활을 책임지고 있어 빈곤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심적인 부담과 고통을 받고 있다. 공적부조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보조로 인해 항상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돈 걱정을 하면서 생활한다. 이러한 현상은 황창순의 연구에도 나타나는데 “가정의 경제수준을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두 계층 청소년 모두 비슷하게 “보통이다”(저소득층 54.32%, 일반 63.6%)라고 과반수가 넘는 결과를 보인 반면 “잘 사는 편이다”(저소득층 3.5%, 일반 26.8%), “못 사는 편이다”(저소득층 33.2%, 일반 3.9%)의 응답결과는 저소득층청소년들이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 또한 “가정생활의 문제”를 묻는 문항에서도 50.3%의 저소득층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정생활의 문제”중 하나로 꼽았다.

용돈에 관한 설문 조사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용돈이 전혀 없다”는 경우가 27.1%나 되었고 92.5%의 저소득층청소년들이 한달 용돈을 삼만원 이하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혁의 면접조사에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달 동안 전혀 용돈을 쓰지 못하는 청소년도 있고, 5000~20,000원까지의 용돈을 쓰는 청소년도 있었다. 이들은 용돈을 주로 군것질을 하거나 책을 사는데 쓰며 용돈이 매우 부족하다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빈곤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빈곤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열악함도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 면접대상 20명중 12명이 신문배달, 야간 음식배달, 주유원 등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9명은 생계와 직접 연관

된 일을 하고 있었다. 건강상태는 외견상 양호해 보였지만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거나, 신장염, 늑막염을 앓고 있었다. 6명은 피로와 만성두통 등 가벼운 질환을 갖고 있었다. 무료로 치료받는 의료보호증이 있지만 의료기관의 푸대접과 제한된 서비스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제한받지 않는 의료보호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집안에 돌보아야 할 병자가 있을 경우,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

또한 빈곤한 가정형편은 주거에 대한 박탈감을 갖게 하고 있다. 잦은 이사와 공동화장실, 여름에는 습기차고 겨울에는 연탄가스로 고생하는 단칸방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모두 현재 사는 곳을 떠나 자기의 독립된 방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했다. 한 가구당 몇 개의 방을 갖고 있는가 알아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저소득층청소년들의 가정은 '방2개'(58.3%), '방3개'(28.1%), '방1개'(7.0%), '방4개'(5.5%) 순 이었고, 일반청소년 가정은 '방3개'(51.8%), '방4개'(26.8%), '방2개'(19.3%), '방1개'(0.9%)순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청소년들이 놓인 열악한 주거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2) 교육 실태와 욕구

빈곤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교교육을 지속 또는 끝마치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빈곤으로 인해 과외는 엄두도 못 내고, 공부방도 따로 없이 동생 또는 부모와 함께 방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생계에 신경을 써야 하고 집안살림도 돌보아야 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청소년들의 학교성적은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중간 이하 또는 하위성적에 속했다. 이들은 또한 학교 내에서 중산층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얻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청소년들은 가능하면 학교교육을 계속

받고 학업을 잘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지원 받기를 원했으며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강했다.

저소득층청소년들은 가정의 경제사정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좌절감을 갖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낮은 수입, 불량하고 배마른 작업조건, 이기적인 기업주와 경영자에 대한 높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저소득층청소년들은 진학보다는 일찍 직장을 구하여 가계를 돕든지 독립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

희망학력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하는가?” 질문한 결과 ‘대학교졸업’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71.4%)이 일반청소년(64.5%)보다 6.9% 높게 응답했으나 ‘대학원이상’에서는 일반청소년(29.4%)이 저소득층청소년(13.6%)보다 15.8% 높게 응답하였고 ‘고등학교졸업’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13.6%)이 일반청소년(4.8%)보다 높게 응답해 희망학력에 있어 계층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본인이 희망하는 단계까지 학교를 마칠 수 있다고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저소득층청소년(45.7%)과 일반청소년(39.9%) 모두 ‘약간 확신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매우 확신한다’에서 일반청소년(36%)이 저소득층청소년(20.6%)보다 15.4%나 많이 응답하고 ‘별로 확신하지 않는다’에서 일반청소년(20.2%)이 저소득층청소년(26.6%)보다 6.4% 적게 응답하여 희망하는 단계까지 학교를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저소득층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현저히 낮음이 발견되었다.

이어서 확신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보았는데 저소득층청소년은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30.8%), ‘노력부족’(29.5%), ‘능력부족’(16.7%), ‘경제적 곤란’(7.7%) 순으로 응답했고, 일반청소년의 경우 ‘노력부족’(43.5%),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31.9%), ‘능력부족’(11.6%), ‘부모님의 이해부족’(1.4%)로 나타났다. 일반청소년이 ‘노력부족’에 치중한 반면 저소득층청소년은 ‘능력부족’과 일반청소년이 한

명도 응답하지 않은 '경제적곤란'은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청소년들의 한정된 여건과 환경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고 2가지씩 선택하게 한 결과를 많이 선택한 순으로 10가지씩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청소년은 ‘연예인’(34.8%), ‘교사’(16.2%), ‘운동선수’(15.2%), ‘컴퓨터프로그래머’(13.6%), ‘의상디자이너’(13.1%), ‘만화가’(8.1%), ‘경찰·군인’(7.6%), ‘판사·변호사·검사’(6.6%), ‘의사’(6.1%), ‘과학자’(5.6%) 순으로 응답했고, 일반청소년은 ‘연예인’(19.5%), ‘교사’(15.4%), ‘의사’(12.7%), ‘아나운서·PD’(12.7%), ‘과학자’(12.2%), ‘사업가·전문경영인’(11.3%), ‘판사·변호사·검사’(10.9%), ‘컴퓨터프로그래머’(10.4%), ‘의상디자이너’(10.4%), ‘운동선수’(8.1%) 순으로 응답했다.

10위 안에 드는 희망직업이 대체로 유사했으나 그 중 2 직종이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청소년들이 ‘사업가·전문경영인’과 ‘아나운서·PD’를 많이 선택한 반면, 저소득층청소년들은 ‘만화가’와 ‘경찰·군인’을 많이 선택하였다. 두 계층의 청소년들 모두 ‘연예인’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는데 15.3%라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 저소득층청소년의 월등히 많은 수가 연예인을 희망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3) 사회심리 상태와 욕구

노혁의 연구에서 저소득층청소년들은 가난의 대물림과 불안정한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가정불화나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양육기술의 부족으로 자아존중감이 중·상류계층 청소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콜중독이나 노름중독의 부모인 경우와 이혼, 가출부모로 인한 결손가정 등의 경우 부적절한 부모행동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은 사회, 정서적 발달에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고 타인의 정서이해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면접결과가 나타났는데 황창순의 설문결과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대너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신다”, “대너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잘 모른다”, “대너 야단치거나 때리신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신다”, “나를 매우 사랑하신다” 등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99.9%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보이며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역할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 5개 문항 전체에 걸쳐 전반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해 더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 혁의 면접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고민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논할 상대가 있어 의논하지 않는 것과 그 실체마저 없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또한 부모와 의논을 하고 싶어도 병환중이거나 생계유지에 바빠 감히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는 것과 고민조차 사치스럽다는 것, 그리고 친구들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에 있어 고민을 서로 이야기 할 때는 술이나 약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 ‘친구’가 대화상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층청소년이 71.6%, 일반청소년이 69.2%로 나타나 계층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민의 대화상대를 ‘부모님’(41.1%)으로 꼽은 비율은 저소득층청소년 33.3%, 일반청소년 48.2%로 저소득층청소년이 일반청소년들보다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 ‘부모’와 대화를 적게 하는 것을 나타냈다. 이는 앞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분석에서 부·모 모두 저소득층청소년이 일반청소년들보다 부모와의 대화를 덜 하고 있다고 나온 결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가활동’에 대한 분석에서도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가족대화·모임’, ‘가족여행’등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온 결과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가치관과 인생관 면에서 면접대상자의 대부분은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를 느끼고 있었다. 사회도덕적으로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빈곤이라는 장애 때문에 부딪치는 가치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기와 타인의 인생 목표와 가치에 대해 무관심했다. 사회에서의 성공요인에 대해 20명중 14명의 청소년들이 개인의 능력이라고 응답했고,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는 빈부간 격차와 세대차를 들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빈곤이 사회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은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4) 문화적 실태와 욕구

저소득층청소년들은 면접조사에서 일반청소년들이 자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조정하며 비교적 충분한 여가시간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신들은 가사일 또는 가족을 돌보는 일 등으로 일반청소년들과 같은 여가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생활의 개선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행, 컴퓨터게임 등을 들었고 선진국처럼 무료 또는 파격적인 할인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지길 희망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방과후나 휴일 및 방학기간 등 자유시간에 '여가활동'으로 주로 무엇을 하며 또 어떤 장소에 자주 가는 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복수응답하게 하여 저소득층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가장 '자주' 하는 활동으로는 'TV시청·라디오 청취'가 61.1%, '친구만나기'가 55.0%, '종교활동'이 31.4%, '길거리 돌아다니기'가 24.1%, '책읽기'는 22.5%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시간에 '자주'가는 장소는 '분식집'이 27.4%, 'PC방'이 26.7%, '전자오락실'이 25.2%, '만화가게'는 24.6%로 청소년들은 비교적 일상생활 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와 활동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계층 청소년간에 크게 차이가 나는 여가활동과 장소로는 '영화관람', '수련활동·캠프활동 등', '가족여행', '쇼핑센터', '패스트푸드점', '경양식집·패밀리 레스토랑', '카페·스탠드바' 등을 들 수 있다. '영화관람'을 '가끔·자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저소득층청소년은 37.2%인 반면,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67.6%로 나타났다.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척도에서 저소득층청소년은 37.7%, 일반청소년은 26.3%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여기서 저소득층청소년의 '수련활동·캠프활동 등' 경험이 더 높게 나온 것은 조사대상 저소득층청소년들이 복지관이나 공부방 등 기관 이용대상자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름 캠프나 수련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일반청소년들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족여행'에 대해서는 '가끔·자주 간다'는 응답이 저소득층청소년은 25.6%, 일반청소년은 50.9%로 나타났으며, '멀리오레나 두타와 같은 쇼핑센터'에 대해서 '가끔·자주 간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저소득층청소년은 40.2%, 일반청소년은 57.0%로 나타났다. 최근 청소년들이 특히 선호하는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은 54.3%, 일반청소년은 76.2%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경양식집·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이 12.1%, 일반청소년은 42.9%의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그리고 유흥업소로 분류되고 있는 '카페·스탠드바' 출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청소년은 6.5%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 일반청소년은 18.8%로 더 많은 응답율을 보였다.

저소득층청소년들이 많이 희망하는 여가활동들은 콘서트·운동경기관람(46.8%), 쿨라택(45.6%), 놀이동산(43.3%), 영화관람(25.1%), 경양식·레스토랑(24.6%), 아르바이트(24.0%), PC방(19.9%), 가족여행(19.3%) 순인데 이러한 여가활동들은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인 관계로 활동기회가

자주 주어지지 않아 이들이 선호도가 높은 것 같다.

여가활동 자체가 아동이건, 어른이건 모든 대상에게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것은 청소년기 자체가 안고 있는 많은 변화와 고민, 불만들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더 나아가, 숨겨진 재능과 창조성을 발견해주시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치열하고 경쟁적인 입시위주의 학교 체제 속에서 '여가활동'의 필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여가활동'중 상당수는 경제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저소득층청소년들이 '여가활동'에 쉽게 접근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청소년공부방의 목적과 설립배경

저소득층 지역에 공부방이 설립된 시기는 대략 1980년대 중반으로 1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 그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여러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1) 민간지원 청소년공부방

민간지원 청소년공부방은 모두 1985년도부터 1995년도 사이에 설립되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발전단계에 있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전환하는 시기로서 '공부방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암시해 준다. 그 기간에 사회운동이 반독재의 운동에서 점진적으로 민주화를 실현하는 운동으로 변했고, 도시의 저소득층은 정신 없이 도시생활에 쫓기는 이농민

에서 도시민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광범위한 저소득층지역의 존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대가족 체제에서 핵가족체제로의 변화, 저소득층 부모의 저학력과 교과과정의 변화, 주택정책 부재로 말미암아 방 한 칸 세입자의 증대,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과 문화공간의 부족, 사회문화적 병폐 등으로 인해 공부방이 확산되었다(류미희, 1994 : p39).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자녀들이 유기·방치되는 사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부재함에 따라 민간단체, 종교단체, 사회운동단체들이 이들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으로서 공부방을 설립·운영하게 되었다(이향란, 1996 : p3).

이러한 공부방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박문수 외, 1998 : p61).

첫째,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공부방들은 1985년에서 1995년 사이에 설립되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발전단계가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전환하는 기간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의 인간계발과 사회의식을 길러 준다.

셋째, 재개발지역 세입자, 결손가족, 저임금 맞벌이 부부 등 가난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넷째,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의 발생원인이 사회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변화를 추구한다.

다섯째, 그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한다.

여섯째, 비영리사업이며 자원봉사 중심이다.

1980년대 말부터 활발해진 공부방운동은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저소득층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현재 서울의 40여 곳을 비롯하여 전국에 100여 곳의 공부방이 있다. 이 공부방들은 몇 개의 연대-서울지역공부방연대, 가톨릭공부방연대, 부스러기선교회-로 같이 협조하고 있고, 이 3개의 연대 사이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대부분의 공부방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부방의 사정이나 재개발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도 있다.

2) 정부지원 청소년공부방

전국의 도시 영세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소에 느끼고 있는 상대적 빈곤감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학습목표를 포함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고민 또는 방황하고 있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 영세민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 줌과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 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공부방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청소년공부방을 1989년도에 6개 직할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좋은 반응과 높은 호응을 얻어 1990년도에는 전국의 15개 시·도에서 108개소를 운영하여 273만 8,562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1991년도에는 전국의 15개 시·도에서 140개소를 설치·운영하여 475만 2,052명이 이용하는 등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 1996년도에는 361개소 운영 5,020천명이 이용하였으며, 1999년도에는 358개소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시·도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청소년공부방을 활성화시키려 노력중이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침을 보면 시설확보는 별도의 신규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 내 청소년단체, 종교 및 공공사회복지시설 등의 기존시설을 사용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내의 기존 공부방중 영세시설을 확대·보강하여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다(청소년백서, 1999 : p452).

3. 청소년공부방 지역별 설치현황

청소년공부방은 재정지원 측면에서 보면 크게 정부지원 청소년공부방과 순수 민간지원 공부방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지원 공부방도 재정원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운영되는 청소년공부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만을 지원받는 청소년공부방의 형태가 있는데 현재 파악된 정부지원 청소년공부방과 민간지원 청소년공부방의 시설 현황을 시·도별로 정리해 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시·도별 청소년공부방 설치현황(1999년)

(단위 : 개)

지역 \ 설치수	정부지원 공부방	민간지원 공부방	총계
서울	96	40	136
부산	37	9	46
대구	34		34
인천	42	18	60
광주	16	8	24
대전	14	6	20
울산	1		1
경기	164	51	215
강원	22		22
충북	21	1	22
충남	26		26
전북	21		21
전남	19	13	32
경북	26	2	28
경남	22	2	24
제주	20		20
총계	581	150	731

문화관광부와 시·도 청소년체육과를 통해 얻은 자료에 의하면 <표 II-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공부방이 581개, 순수하게 민간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150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청소년공부방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일부는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아 누락된 상태이다.

4. 청소년공부방의 기능과 활동내용

청소년복지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능은 청소년과 부모 사이에서의 역할 불이행 문제에 대처하는 정도에 따라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s),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s) 그리고 대리적 서비스(Substitute Services) 등 3가지의 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다.⁴⁾ 따라서 빈민지

4) Kadushin, A. "Child Welfare Service"(N.Y:Macmillan, 1980), pp 5~27.
안은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실태와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p. 11 재인용.

지지적 서비스란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1차 방어선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정에 머물면서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통하여 가족들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부모 자녀관계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방법이다.

보충적 서비스란 청소년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2차 방어선으로 가정 및 가족의 형태는 그대로 있으나 부모의 역할이 부적절하므로 '가정의 외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거나 도와주는 것이다. 경제적 지원과 가정조성서비스(Home-maker Service, 탁아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대리적 서비스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제3차 방어선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해체되었을 때 청소년을 다른 가정이나 시설에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위탁가정 보호와 입양 또는 시설보호 등이 속한다.

역에서의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보완해 주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활동은 지지적 서비스와 보충적 서비스의 영역에 해당된다 볼 수 있다.

공부방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 지역 청소년의 학습공간으로서, 둘째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상담, 셋째는 건전한 문화공간으로서, 넷째는 지역센터로서의 역할이다(이향란, 1996 : p3).

즉 공부방에서의 청소년지도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학력의 부모를 대신하여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 때에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생활습관과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이루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상담을 통해 진로문제, 교우문제, 이성문제, 장래문제 등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지적발달과 심리·사회적 발달을 도모한다. 일부 공부방에서는 급식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청소년공부방이 이렇게 청소년들의 지적, 심리·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청소년공부방은 현실적으로 그 기능과 활동 면에서 많은 제약과 문제를 지니고 있다. 다음의 몇 몇 사례를 통해 순수 민간지원 공부방과 정부지원 공부방이 현재 청소년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제약점과 문제점을 알아 본다.

1) 민간지원 청소년공부방

민간지원 청소년공부방은 가톨릭공부방연합회, 부스리기선교회,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등을 주축으로 도시빈민지역, 공단지역, 농어촌의 저소득층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숙제 및 학습지도, 생활지도, 상담활동, 문화여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부스리기선교회의 '신나는 집'과 같이 많은 민간지원 공부방들이 청소년공부방 활동과 더불어 결

식청소년들을 위한 급식지원 활동도 병행하고 있어 빈민 및 저소득층 지역 청소년들의 신체적·인지적·인성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되는 ‘새날 신나는 집의 운영현황’은 공부방활동과 더불어 급식지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고 그들이 가난을 이겨내고 가정환경의 상실과 결손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 새날 신나는 집 운영현황⁵⁾

① 지역적 상황

▶ 결식아동이 밀집해 있는 주거환경

부사, 문창, 석교동 지역은 어린 자녀를 ens 젊은 부부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며, 문창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저소득 자영업 종사자가 많다 있어 방과후 아동들의 생활은 부모에 의해 보호되거나 학교교육에 대한 복습 및 연습이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또한 자녀를 출가시킨 노년기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며 이들에 의해 아동들이 보육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부사, 문창동은 시내에서 도보로 20~3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으며, 대전천과 보문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선정되는 등 주거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특히 문창동의 경우 놀이터와 학교는 한 곳도 없어 아이들은 기온이 올라가는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대전천에서 수영을 하고 논다. 대전천은 이들에게 놀이터인데 하상도로가 생기면 갈 곳을 잃게 된다.

문창 1동은 유흥업소와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부사동은 대전 종합운동장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최근 들어 늘어난 인터넷 게임방은 부모의 보살핌이 없는 이 지역에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5) 부스리기선교회(2000). pp139-150.

▶ 사회경제적 상황

1997년 목원대 사회복지학과의 조사에 의하면 문창동 지역에서 방과 후 보호나 학습지도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수가 약 7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구수도 약 30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1월부터 새날교회와 새날 신나는 집 그리고 야곱의 집(위기가정 자활지원센터)이 공동으로 실시한 지역조사에 의하면 모자, 부자가정 등 결손가정 세대수는 45세대이며 가구원수는 12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사, 문창, 석교동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767세대로 조사되었다.

특히 새날 신나는 집이 위치한 문창동은 생활보호대상자가 174세대, 모자 부자가정 등 결손가정이 16세대 50명으로 조사되었다. 문창동은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다. 도심과 인접해 있어서 경제활동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창고업을 통한 도매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이 있어 현금이 많이 유통되는 곳이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절대적 빈곤에 처한 가정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양육을 위탁한 결손가정이 많아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노인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문화적 사회적 특징

도시빈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방임이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인 oo는 경찰서 소년계에서도 유명하다. 부모의 돌봄이 없었기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집을 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또한 빚 보증 등 채무관계로 인해 가족기능이 해체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1998년 가을 자녀들을 교아원에 버리고 가출하려던 부모를 발견하여 사례관리를 한 경험도 있다.

이 외에도 신나는 집 주위에서 발생한 일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하자 할머니에게 아들을 맡기고 사라진 엄마를 기다리는 소년

- 특수반 아이라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식비를 내지 않는 부모를 둔 아이
- 아내가 죽자 자식을 버리고 가출하여 따로 살림을 낸 아버지를 둔 두 자매
-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83세의 조모와 생활하는 소년의 암담함
- 입안 가득 먹을 것을 두고도 양손 가득 먹을 것을 쥐어야 하는 소년의 애처러움
- 계모의 학대로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아이
- 자기를 구타하는 엄마와 동거하는 남자를 아버지라 불러야 하는 소년
- 세 번째 남자에게 너무 맞아 아이들과 함께 가출했다가 1주일만에 귀가하는 엄마와 집에 죽어도 가기 싫은 아이들의 모습
- 피아노 학원에 가고 싶어 부모를 조르는 아이
- 도둑질한 것을 서로 자랑하는 아이들

이러한 사례들은 실제로 발생한 사례들 중 몇 가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을 위한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지역에서의 활동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② 신나는 집 설립 목적

경제적 위기 및 가족기능이 해체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료급식 및 중식비 지원, 방과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가족기능 해체방지와 통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요보호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시켜 주며, 방과후 보호 및 교육을 실시하여 실직/결혼/결식/빈곤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자아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전체 이용 아동 수(49명)

		미취학	초등	중·고등	합계
편모	부사망		1	2	3
	부가출				
	이혼		1	1	2
	별거				
	실직		2	3	5
	장애				
편부	모사망		1		1
	모가출				
	이혼			1	1
	별거				
	실직				
	장애				
부모	실직	3	12	1	16
	장애	2			2
	저소득		8	7	15
조부모(친()양)			3	4	7
기타			1	3	4

④ 사업활동

▶ 교육활동

- 학과 중심의 보충수업 : 교사와 학생이 사랑과 신뢰의 만남을 통해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회복시켜 주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 초등학생 : 숙제지도, 개별학습지도, 영어교실, 컴퓨터교실, 글쓰기교실
 - 중학생 : 숙제지도, 개별학습지도, 영어교실, 수학교실, 컴퓨터교실
- 특기적성교육 중심의 취미교실 :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험을 통해 억압된 감정을 풀어주고 창조성·자기표현력·자신감·올바른 의

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초등학생 : 미술교실, 만화교실, 노래와 율동교실, 수화교실, 생활글쓰기교실, 영화교실

- 중 학 생 : 미술교실, 수화교실, 풍물교실, 영화교실, 기타교실

• 운영시간

- 초등학생 : 12시30분-18시30분(토요일 13시00분-16시00분)

- 중 학 생 : 17시30분-22시00분(토요일 14시00분-17시00분)

▶ 급식활동

중식, 석식, 도시락 배달

▶ 복지활동

- 미술치료 : 전문가 2인이 초등학생 5명을 대상으로 주1회 방문 실시

- 친구사귀기 :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주1회 집단활동 실시

- 자기성장교실 : 중학생을 대상으로 주1회 실시

- 장학금지급 : 2000년 3월 현재 미취학 1명, 초등 6명, 중등 3명에게 부스리기선교회를 통하여 학비, 용돈,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 학용품 지원 : 사회단체 및 개인의 후원으로 연2회 학용품을 지원

- 물품지원 : 청소년 혹은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부정기적으로 지원

- 이미용 및 의료서비스 : 부모의 돌봄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 청소년 및 부모상담, 가족캠프 : 개인상담 및 부모상담을 수시로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가족통합을 위한 캠프를 연1회 개최하며 정기적인 부모교육과 1일 가족나들이 등의 행사를 실시한다.(봄 나물캐기, 단풍나들이 등)

▶ 문화복지활동

문화체험을 통해 자기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감과 용기·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한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초등학생 : 다도교실, 역사유적지탐방, 여름캠프, 심성계발훈련캠프,

미술관 및 박물관 견학, 방송국 및 정부청사 견학

- 중 학 생 : 다도교실, 역사유적지탐방, 여름캠프, 독거노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미술관 및 박물관 견학

이 외에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서적 500권과 문학 및 일반서적 등 약 1,000권의 도서로 꾸며진 아동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곳을 통해 독서습관을 길러주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통합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⑤ 기관운영의 문제점

▶ 학습공간의 문제 : 약 35평의 공간에 사무실과 예배당, 밥집과 공부방, 도서관과 컴퓨터실, 주방과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어 쾌적한 학습공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학습과 도서관 운영 등으로 개별 학습 공간이 부족해졌다. 또한 중고등학생과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저녁식사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신나는 집 이용 대상의 특성이 역동성이 강한 편인데 신나는 집이 길가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또한 냉방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여름철 운영에 대단한 어려움을 갖는다. 특히 종일반을 운영하는 방학에 더 어려움이 많다.

▶ 학습교재 부족으로 인한 문제 : 참고서 및 문제지 등 학습지도에 필요한 교재가 부족하여 학습효과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수반 아동의 경우 방과후 교육지도가 매우 어렵다.

▶ 교사 부족 : 학생에 비해 교사의 수는 현저히 부족하다. 다행히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보조교사가 파견되어 실무자를 도와주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신나는 집이 그러하듯이 상근 실무자보다는 자원봉사자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는 새날 신나는 집의 경우에서도 심각하게 다가서고 있다. 신나는 집이 급식만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아니기에 실무자 충원을 위한 대책은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습지도교사의 중요성만큼 상담지도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신나는 집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무자 1인, 학습지도교사 1인, 상담교사 1인, 취사원 1인 등이 최소한 요구된다.

▶ 제정 : 새날 신나는 집의 제정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부스러기선교회의 지원금이며, 둘째는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지원금, 셋째는 새날침례교회의 자부담금, 넷째는 민간후원금이다. 지출에 있어 급식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관리비, 교육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비는 인원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어 아동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 인건비의 부족은 신나는 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새날 신나는 집이 운영된지 얼마되지 않아 자부담금과 민간후원금이 적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지원 없이 순수 민간자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설임대료는 전체 운영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 지역협조 : 새날 신나는 집은 공공기관 유휴공간 사용에 대한 동사무소와 중구청의 비협조로 연 500만원의 재정을 낭비하였다. 이 돈은 약 20명의 결식아동에게 1년간 중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에는 동사무소 통합으로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 중구청과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신나는 집으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불허되었고, 지금은 관변단체가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들을 통해 알게 된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금이나마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정부지원 청소년공부방

정부지원 청소년공부방은 정부의 중앙부처(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에서 마련한 공통된 운영지침에 따라 각 공부방의 규모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의 운영지침과 규모별 청소년공부방의 운영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지원 청소년공부방은 대체로 열람석 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어 200석 이상은 A급, 101-200석 이하는 B급, 100석 이하는 C급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다음에 소개되는 2개의 운영사례는 정부지원공부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등급과 C등급의 우수 공부방 사례를 하나씩 제시한 것이다.

(1)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

① 목적

- ▶ 환경이 열악하고 학습시설이 부족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생활상담을 실시함으로써
- ▶ 청소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제고 및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으로 청소년 건전 성장을 지원

② 방침

- ▶ 시·군별로 관할 영세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 및 지원하되 기존공부방의 이용률 및 주변환경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재정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
- ▶ 국고(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금) 및 지방비 지원사업과 순수지방비 지원사업(시·도 및 시·군·구 자체운영)으로 구분 추진
- ▶ 관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법인, 뜻 있는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부대시설 확보가능 여부와 접근용이성 및 잠재적 수요예측 등에 의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하여 참여권장

- ▶ 지역내 자원봉사자 관리체계의 확립으로 공부방 사업효과 고양
 - 헌신적이고 열의를 갖춘 자원봉사 희망자 선정
 - (전직)교사, 대학생, 퇴직공무원, 주부 등을 활용
 - 자원봉사자 결원발생시 즉시 대체조치로 원활한 공부방 운영
- ▶ 운영경비는 양여금 및 지방비 등으로 지원
- ▶ 도비보조 공부방 신설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 공부방의 이용률 제고 도모

- 이용률 저조 공부방은 점검후 폐쇄 및 이전 적극 검토

③ 세부추진계획

- ▶ 시·군별 운영개소수 및 지방양여금 등 예산내역
 - 1개소 당 연간 운영비 지출기준(지방양여금 및 지방비 : 11,600천원 의 경우)
 - 운영비 소요액의 50%를 양여금으로 지원
 - 운영 규모가 통상 수준을 넘는 공부방은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50%이상 지방비 확보)
 - 공부방 시설 확보와 최초의 설비비는 민자 또는 지방비로 충당하되 일부 노후시설 교체와 신규 설비비는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 시·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비의 효율적인 조정 집행가능 : 에어컨 설치 등

구 분	지 출 내 역
인건비	
- 상근자원봉사자 수당	500,000원x 1명x12월 = 6,000,000원
- 보조자원봉사자 수당	10,000원x25일x12월 = 3,000,000원
일상경비	
- 공공요금, 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200,000원x12월 = 2,400,000원
홍보비	
- 인쇄비, 광고비	100,000원x 2회 = 200,000원

▶ 운영방법

- 시·군 등 해당 자치단체 직영 또는 사회봉사 경험이 있고 건설한 지역 내 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뜻 있는 개인 등에 위탁운영
- 공부방 신설이 곤란한 경우 위탁운영단체(개인) 제공시설, 공공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부대공간 확보(최초 확보면적 기준 : 25평형 이상, 독서대 및 좌석 등 열람석은 50석 이상, 상담실 겸용 자원봉사자실 1개)
- 공부방별로 대학생, 퇴직공무원, 교사, 주부 등의 자원봉사자를 확보·배치하여 운영요원으로 활용(1개소 당 1명의 상근자원봉사자 배치, 지역실정을 감안 1~2명의 일일자원봉사자를 배치, 자원봉사자에 의한 학습지도, 생활고충, 상담활동 실시)

▶ 운영시 유의사항

- 대외적인 명칭은 “○○(지역)청소년공부방”으로 함(현판, 홍보물 등)
- 운영시간 준수
 - 평일(월~토) : 17:00~23:00(6시간)
 - 공 휴 일 : 10:00~23:00(13시간)
- * 공부방별로 운영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연장 운영 가능
-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
 - 공부방운영에 열의를 갖고 봉사하고자 하는 자를 자원봉사자로 배치
 - 공부방 별로 별도의 자원봉사자실을 설치하여 상담실 등으로 활용
 - 열람좌석의 남·녀 구분은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칸막이, 별실 등 설치 가능
- 공부방 운영실태 파악관리 및 지도확인 철저
 - 운영일지 작성·비치
 - 시·도 청소년과 : 지도·관리 총괄
 - 시·군·구 체육청소년담당부서 : 최소 분기 1회 이상 지도확인

- 공부방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활동 실시
- 시·도 및 시·군·구 별로 시정소식지 및 반상회보 등에 정기적 게재(공부방 명, 위치, 열람좌석, 자원봉사자 명단 등)
- 안내전단 제작·배포 및 베틀시장 등 : 분기 1회 이상(안내전단은 지역 내 학교, 학원, 영세민지역 등 중점배포)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실시로 이용률 제고

④ 행정사항

- ▶ 시·군별 우수 공부방 추천
- 성공적인 운영내용 및 실적 소개(수시)
- 향후 우수공부방 격려 및 홍보자료에 활용계획
- ▶ 우수 청소년공부방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공부방에 대하여는 양여금 공부방 전환에 우선권 부여
- ▶ 공부방 운영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공부방 운영현황 포함 제출, 매해 2월 초)
- ▶ 공부방 운영실적 보고(상·하반기 종료 후 5일 이내)
- ▶ 정산서 제출(다음해 1월 초까지)

(2) A급 규모 청소년독서실 운영현황⁶⁾

① 시설 및 직원 현황

- ▶ 위 치 : 강남구 일원동
- ▶ 개관일 : 1989년 11월 10일
- ▶ 규모 : 대 지 266.27평
연건평 344.14평
좌석수 450석

6) 일원청소년독서실 사례

층 별	시설물 현황
지하 1층	매점
지상 1층	열람실(80석 - 비디오 영상교실 겸용), 사무실, 도서열람실, 인터넷정보자료실, 청소년진학·취업정보실
지상 2층	열람실(190석), 스터디룸, 청소년집단인성검사실
지상 3층	열람실(180석), 청소년상담·인성검사실

- ▶ 종사자수 : 관장 외 6인
- ▶ 이용시간
 - 일반열람실 : 7:00~24:00
 - 도서자료실 및 인터넷정보자료실 : 9:00~21:00
 - 정기휴관일 : 매월 첫째·셋째 수요일

② 운영예산 : 319,953천원

수 입		지 출	
합 계	319,953	합 계	319,953
1. 운영수익금	63,000	1. 인건비	134,673
2. 구비지원금	200,000	2. 수용비	11,000
인건비	134,673	3. 공공요금	25,000
시설 설치 및 개수비	50,000	4. 연료비	6,000
야간공부방 운영비	13,800	5. 홍보비	2,800
도서구입비	1,980	6. 도서구입비	25,980
3. 잠수입	7,500	7. 시설비	69,500
4. 재단지원금	30,000	8. 자산취득비	4,000
5. 이월금	19,000		

③ 사업추진방향

- ▶ 독서실 운영의 내실화 지향
- ▶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면학공간 조성
- ▶ 학생·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허용적 운영체계 확립
- ▶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시 반영, 지역사회 학교 개념의 열린 면학시설로 육성

④ 주요 사업내용

- ▶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서실 운영
- ▶ 청소년 상담실 및 인성검사실 운영
- ▶ 청소년 진학·취업정보실 운영
- ▶ 중·고·대학생 자원봉사자 활동교육 및 활용
- ▶ 도서자료실 운영
 - 약 5,000여권의 도서를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대출
 - 신간잡지 및 신문 배치
- ▶ 비디오 영상자료실 운영
- ▶ 인터넷 정보자료실 운영
-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교실
 - 어학교실
 - 예절교실
 - 병아리 영어교실

⑤ 2000년도 주요 사업추진계획

프로그램명	운영계획	비고
독서실	계획인원 : 126,000명, 이용률 : 84%, 예상수입 : 63,000,000원	'99년실적 131,000명
도서자료실	도서자료 3,000여권 확충, 도서회원 300명 확보	
비디오영상교실	방학중 상영	
자원봉사교육	중고생 30명, 대학생 20명	
인터넷 정보자료실	컴퓨터 2대 추가 확보	
청소년 상담실	진학·취업 등 진로상담	
청소년 인성검사실	지능, 성격, 흥미, 적성 등 인성검사	
독서지도	독서지도	
학부모교실	연 6회	
어학교실	분기별 1회(약 30일간)	
병아리 영어교실	월 1회 실시	
일일독서실장제	2000년 3회 실시	
학부모 간담회	2000년 3회 실시	
예절교육	연 3회 실시	
청소년 진학·취업자료실 및 정보망 상시가동		전일개방

(3) C급 규모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⁷⁾

① 공부방 공요

시설명	대표	운영주체	주 소	연락처	설립연도
우리자리공부방	김기돈	낙골복음교회	관악구 신림3동 630-29	837-3903	1992년 (위탁 '96년)

② 공부방 주변지역 실태

- ▶ 인구수(가구수): 20,539명
- ▶ 공부방 대상 아동수 : 초등 1,750명/중등 793명/고등 1,086명
- ▶ 주변환경(약술)

‘우리자리공부방’은 구립청소년공부방으로 ‘2000년 현재 민간단체에 시범위탁중인 기관이다. 주변지역은 일반 주택이며,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이 지역에서 보호대상 가구 및 실직가정 그리고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근지역 반경 안에 저렴한 청소년 이용시설이 없어 신림 7동, 신림 13동, 신림 3동, 신림 12동에 거주하는 초·중등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③ 공부방 현황

▶ 인원현황

대 상 학 생				상근 교사	자원 교사	기 타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계			
회원 55명	회원 15명	(일반열람)	• 회원: 70명 • 열람이용자	3명	10명	공공근로 2인

7) 우리자리공부방 운영사례

▶ 시설현황

부지(건평)	건물보유형태	부속시설	기타
78평(2층)	(구립시설 위탁)	• 사무실 1곳 • 특별교실 2곳 • 상담실 1곳	지하실 옥상

▶ 교육기자재 및 학습보조자료

품명(내용)	수량	규격	설치 또는 구입년도	활용 방법
컴퓨터	5	*	(개인 기증)	사무용
화이트보드	2	중	'99	특별활동 수업용
CD세트	1	*	'99	"
도서 및 잡지	500여권	*	재고도서 (기증)	자유독서
키타(악기)	10대	*	(기증)	수업용/문화교실

▶ 자모회 현황 : 매월 마지막 화요일 참가인원 평균 15~20명

▶ 후원현황 : 구청 1인 인건비(672,000원)

▶ 아동 1인당 월회비 :

초등부 20,000원 / 중등부 20,000원 / 청소년문화교실 15,000원

보호대상가구 및 실직가정 무료-총 회원중 15%

④ 공부방 연간사업계획서

▶ 공부방활동의 목적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와 학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 내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과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담당하고자 한다.

• 현행 청소년 공부방 프로그램들을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지역 내 청소년 교육 문화 공간으로서 또한 대주민 활용 공간으로서 충분한 이용 가치가 있도록 활용하고자 한다.

• 책임교사의 지도 하에 지역 인근 대학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초·중등 학생들에게 학습 지도 및 특별 활동 등을 성실하게 실시하고, 나아가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 기능을 보완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운영 프로그램 내용

• 저소득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위한 초등부 방과후특별활동교실 운영
(기초학습지도/과제물지도/독서지도/요일별 특별활동교실)

- 중학생 야간학습지도교실 운영(영어/수학/역사/글쓰기 등)
- 어린이 방학특강(종이접기/글쓰기/기타교실 등)
- 계절캠프(여름생태환경캠프/겨울전래놀이연수캠프)
- 청소년문화교실 실시(중등부 취미교실 -댄스/키타/컴퓨터 동아리)
- 청소년 성교육교실(분기별 : 아우성상담소 연계프로그램)
- 청소년 집단상담(상·하반기 심성훈련 ‘마음을 열어요’)
- 자원교사교육(자체교육 및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교사연수)

▶ 프로그램 진행 현황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진행시기												실시횟수
	200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초 등 부 방과후특별교실	★	★	★	★	★	★	★	★	★	★	★	★	연중일상 PRO.
중 등 부 야간학습교실	★	★	★	★	★	★	★	★	★	★	★	★	
어린이방학특강	★	★					★	★				★	여름/겨울 방학 PRO.
계절연합캠프	★						★						
청소년문화교실			★	★	★	★	★		★	★	★	★	학기중 특활
청소년성교육			★		★		★			★			분기별
청소년집단상담 (‘마음을열어요!’)				★	★	★			★	★	★		학기중 상하반기2회
자체교사교육			★						★				
연합회교사연수		★			★			★			★		방학중 연수 학기중소양교육

▶ 연간일정내용

- 1월 : 겨울방학연합캠프
- 2월 : 공부방 새학기준비 / 실무자수련회(서공연) / 교사연수
- 3월 : 신입생모집 / 신입교사모집 / 자체 교사교육 / 청소년성교육
- 4월 : 청소년문화교실/상반기 청소년집단상담-초·중등부 심성훈련
(‘마음을 열어요!’ 4~6월 : 10회)
- 5월 : 어린이날 연합행사 / 서공연 교사교육 참가 / 청소년성교육
- 6월 : 소식지발간 / 지역단오한마당 참가
- 7월 : 실무교사 수련회/교사문화캠프(서공연주최) / 방학특강문화교실(종이접기/키타교실 등) / 청소년 성교육
- 8월 : 여름방학캠프 / 소식지발간
- 9월 : 신입교사모집 / 하반기 청소년집단상담-초·중등부 심성훈련
(‘마음을 열어요!’ 9~11월 : 8회)
- 10월 : 청소년 성교육 / 추석한마당 / 청소년문화제 ‘민들레합창’
- 11월 : 서공연 교사교육 참가
- 12월 : 방학특강 / 학예발표회행사 / 겨울캠프준비(1월)

⑤ 현재 공부방 운영에 가장 필요한 교육기자재

교육기자재	용 도	수 량(개)	기 종
프린터	교육용	1	레이저
복사기		1	소형
교육용-컴퓨터		5	586펜티엄급

⑥ 기관운영의 문제점

청소년공부방이 과거 문체부에서 신설한 이후 점차적으로 그 관리 및 전반적인 권한이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각 지자체 별로 그 운영 유형이 다양해졌다.

예컨대 관악구의 경우-청소년공부방 신설 초기 각 동마다 16 개소에 서 '96 4개소로 축소되고, 구청장의 완전 폐쇄(또는 용도변경 등)의 입장

을 구의원(당시 구의회 보사위원장)의 개인적인 청원으로 민간단체에게 맡겨서라도 활성화시켜 존립시키고자하여 이를 받아들여, 재정은 동사무소에서 관리 관장하면서 종교단체 3개소와 개인에게 프로그램 위탁형태로 3년간 운영하다 '98년 시범위탁 기간 1년을 통해 '2000년 1월 정식 위탁심의를 거쳐 현재 재개발지역 1개소가 폐쇄되어 3개소만이 남아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재개발의 경우 청소년공부방관련 향후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없어진다면 자치구내 청소년독서실(2개소)과 청소년회관(1개소)을 이용하면 된다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지역사회 복지 차원으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소규모로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모든 지역 복지시설들을 배치해 나가는 지향에도 역행하며, 특히 단체장의 마인인에 따라 지역 청소년공부방이 100% 폐쇄하여도 이를 사전에 막을 특별한 조치한 없다는 점이다. 또 다른 경우 인천 남동구의 경우 지역 복지 차원에서 민관 파트너쉽을 설정하고, 민간공부방들에게 구 재정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월 3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조건 없이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간공부방에 구비를 지원하고, 그 공간을 구립청소년공부방의 간판을 걸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비영리민간공부방들의 형태는 IMF 이후 실업기금지원을 통한 무료급식소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겸하는 시설들이 많이 발생하여 그 숫자가 IMF 이전에 비해 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들은 급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민간공부방은 급식을 시행하지만 일상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무료급식소에서 발전된 경우 연륜이 짧고, 향후 민간공부방과 같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전문시설로 지속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또 이전에 민간공부방으로 출발한 곳에서도 지금은 '000방과후교실'이나 '000학교'식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현행 공부방 프로그램과 비슷한 초등학교 대상의 방과후 아동지도가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이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부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정부지원금-시

설지원비 삼천만원과 연간 지원금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는 등등 현재의 유형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현황들을 살펴보는 것은 과연 현재의 청소년공부방을 어떤 용도와 위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가를 고민해 볼 때,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24세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공부방의 프로그램에 초등학생에서부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의 목적을 열람용 독서실을 제공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이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타성과 행정 편의적 의식은 초·중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민간공부방 프로그램이나 기타 문화활동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이해에 결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관련 행사는 주로 이벤트식의 일회성 행사(청소년 음악회/댄스경연대회) 등과 외형적인 놀이공간과 그 시설-농구대/간이무대 등의 시설에 대한 투자에 편중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정서적·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투자와의 불균형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운영비에 비하여 재료비와 기타 기자재비, 시설투자 비용 등의 운영비 증액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지역별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단체들은 상당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문광부와 지자체에 대한 설득은 쉽지 않은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

Ⅲ.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

1. 조사개관
2. 청소년공부방의 일반현황
3.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 현황
4. 청소년공부방 시설
5. 청소년공부방 인적자원
6. 청소년공부방 운영재원
7. 청소년공부방 프로그램 운영현황
8. 청소년공부방 지역사회 협력체계
9. 청소년공부방의 제도화

III.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

본 장에서는 기존 청소년공부방 관련 논문과 보고서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자와의 개별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공부방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1. 조사 개관

1) 조사 목적과 배경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 자신은 물론 부모와 지역주민의 좋은 반응과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낙후된 시설과 비좁은 공간, 한정된 프로그램, 재정적인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 각기 다른 양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민간지원공부방과 정부지원공부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공부방 운영모델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사 내용과 대상

설문내용은 공부방활동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운영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일반현황, 공부방 이용청소년 인적사항, 공부방 시설, 공부방 운영인력, 공부방 운영재원, 공부방 프로그램 운영현황, 지역사회 협력체

계, 공부방의 제도화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각 항목의 구성내용은 아래 <표 III-1>과 같다.

<표III-1> 설문 구성 내용

전체분류	질문내용	번호	문항수
I. 일반현황	공부방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Email 주소	1	6
	공부방 시작연도	2	1
	공부방 유형	3	1
	공부방 운영주체	4	1
	운영주체의 종교적 배경	5	1
	공부방 소재지	6	1
	지역적 특성	7	1
II. 공부방 이용 청소년 인적사항	공부방의 적정 인원	1	1
	공부방 이용자 수	2	1
	국민기초생활보상법의 수급자	3	1
	공부방 청소년의 문제	4	1
III. 공부방 시설	공부방 시설의 현 규모와 희망 규모	1	10
	공부방 시설의 주된 용도	2	1
	시설의 소유형태	3	1
	공부방 시설 설비 현황 및 희망설비	4	2
	공부방의 학습공간으로서의 적합도	5	4
IV. 공부방 운영인력	공부방 교사·직원의 근로여건/희망 근로여건	1	6
	공부방 운영책임자의 인적사항	2	9
	공부방 상근교사/실무자의 인적사항	3	9
	공부방 인적자원 확보 정도	4	1
	교사 1인당 지도 적절한 청소년 수	5	1
	공부방의 자원봉사자 활동현황	6	4
	공부방의 공공근로교사 지원현황	7	3

전체분류	질 문 내 용	번호	문항수
V. 공부방 운영지원	정부 지원 여부	1	1
	공부방 일년 운영경비 및 희망 기본경비	2	16
	공부방 운영경비의 충족도	3	1
	지역주민의 지원내역	4	1
	행정기관의 지원 종류	5	1
	정부지원 희망종목	6	1
	공부방회비	7	2
	공부방의 주요 후원자	8	1
	후원금 조성방법	9	1
VI. 공부방 프로그램 운영현황	공부방 프로그램 운영시간	1	1
	공부방 휴관일	2	1
	공부방 프로그램의 효율성/효과성	3	1
	공부방의 현행 및 희망 교육·서비스 종류	4	2
	지역내 연계 프로그램 현황	5	3
	공부방 프로그램의 지향점	6	1
VII. 지역사회 협력체계	공부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호응도)	1	1
	타 공부방과의 협력체계	2	3
	지역내에서의 희망 연계기관	3	1
	공부방에 대한 행정기관의 태도	4	1
	행정기관과의 접촉 실태	5	2
	학부모회 유무	6	1
	학부모와의 긴밀도	7	1
	지역내 학교교사와의 협력관계	8	2
	공부방의 홍보활동	9	1
VIII. 공부방의 제도화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의 기여도	1	1
	공부방의 시급한 문제	2	1
	공부방 제도화 관련 찬반여부/제도화의 조건	3	2
	공부방의 제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4	1
	공부방 제도화를 위한 법개정	5	1
	공부방 제도화에 대한 전망	6	1
총 계		53	121

설문조사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6대 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580여개 정부지원 청소년공부방 관장 및 실무교사와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가톨릭공부방연합회, 성남지역공부방연합회, 광주지역공부방연합회, 경인지역공부방연합회, 대구지역공부방연합회, 부스리기선교회 등 현재 파악된 민간지원 청소년공부방 150여 개의 공부방 운영자 및 실무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전국의 정부지원 및 민간지원 공부방 73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청소년공부방 분포는 다음의 <표-2>와 같다.

<표Ⅲ-2> 설문 조사 대상 공부방

(단위 : 개)

설치수 지역	정부지원 공부방	민간지원 공부방	총계
서울	96	40	136
부산	37	9	46
대구	34		34
인천	42	18	60
광주	16	8	24
대전	14	6	20
울산	1		1
경기	164	51	215
강원	22		22
충북	21	1	22
충남	26		26
전북	21		21
전남	19	13	32
경북	26	2	28
경남	22	2	24
제주	20		20
총계	581	150	731

3) 조사 결과 분석

설문조사 기간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우편조사를 통해 주소가 파악된 청소년공부방 7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였는데 주소변경 등으로 반송된 31통을 제외한 700부 중 219부가 회수되어 31%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219부는 SPSS/WIN(ver. 7.5)을 사용하여 공부방 유형별 변인에 따른 교차분석으로 공부방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부방 유형은 그 특성과 규모에 따라 첫째 100석 이상의 열람실을 갖춘 정부지원 공부방을 '공부방A형', 둘째 100석 이하의 열람실을 갖춘 민간위탁 정부지원 공부방중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기관, 개인 등에 의해 운영되는 공부방을 '공부방B형', 세 번째 유형은 '공부방B형'과 마찬가지로 100석이하의 열람석과 규모를 갖고 있지만 운영주체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운동지회, 청소년공부방위원회, 청년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새마을문고, 마을회, 동정자문위원회, 아파트자치기구, 대한노인회, 부녀회, 동대표운영위원회, 동사무소, 봉사단체, 자율방범대, 마을개발위원 등으로 관련단체 성격을 지닌 기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을 '공부방C형' 네 번째 정부지원 없이 순수민간단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을 '민간공부방'으로 구분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2. 청소년공부방 일반현황

설문에 응답한 공부방의 지역별 분포를 가장 많이 응답한 지역 순으로 살펴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이 응답하여 '21.7%'를 나타냈고 '서울특별시(19.8%)', '인천광역시(8.8%)', '부산광역시(7.8%)', '경상북도(6.0%)', '전라남도(5.5%)',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가 '4.6%', '충청북도(4.1%)', '대전

광역시'와 '전라북도'가 각각 '3.7%', '대구광역시(3.2%)', '강원도(2.8%)', '제주도'가 '1.8%', '경상남도(1.4%)', '울산광역시(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설문대상 공부방의 지역별 분포 비율과 비슷해 전국적으로 고르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3> 지역별 설문응답 현황

단위 : %(개)

	공부방 A형	공부방 B형	공부방 C형	민간공부방	전체
서울특별시	53.1	14.9	1.6	27.3	19.8(43)
부산광역시	6.3	4.5	9.5	10.9	7.8(17)
대구광역시	3.1	9.0			3.2(7)
인천광역시	3.1	4.5	11.1	14.5	8.8(19)
광주광역시		9.0	1.6	5.5	4.6(10)
대전광역시	6.3	6.0		3.6	3.7(8)
울산광역시		1.5			0.5(1)
강원도		3.0	6.3		2.8(6)
경기도	21.9	13.4	28.6	23.6	21.7(47)
경상남도		3.0	1.6		1.4(3)
경상북도	3.1	3.0	12.7	3.6	6.0(13)
전라남도		7.5	3.2	9.1	5.5(12)
전라북도		9.0	3.2		3.7(8)
제주도			6.3		1.8(4)
충청남도		9.0	4.8	1.8	4.6(10)
충청북도	3.1	3.0	9.5		4.1(9)
전체	100.0(32)	100.0(67)	100.0(63)	100.0(55)	100.0(217)

공부방의 설립연도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공부방중 과반수가 넘는 '51.5%이상'이 '90~95년' 사이에 설립되었고 '29.7%'가 '96~99년' 사이에 '14.8%'가 '70~89년'에 설립되었으며 '2000년'도에도 '4.3%'인 9개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70% 가까운 공부방들이 5년 이상 공부방을 운영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95년 이후 정부지원 공부방들

이 '30%', '31.9%', '31.1%'로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민간공부방은 '41.8%'로 다른 유형의 공부방보다 뚜렷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97년 IMF사태로 인해 해체된 저소득층 지역 가정의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보호하기 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4> 공부방 설립연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70-89년	20.0	10.6	8.6	23.6	14.8(31)
90-95년	50.0	57.6	60.3	34.5	51.2(107)
96-99년	26.7	25.8	25.9	40.0	29.7(62)
2000년 이후	3.3	6.1	5.2	1.8	4.3(9)
전체	100.0(30)	100.0(66)	100.0(58)	100.0(55)	100.0(209)

운영주체의 종교적 배경으로는 공부방 전체에 대하여는 '종교없음'이 '46.7%'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가 '29.9%', '가톨릭'이 '13.2%', '불교(4.6%)', '원불교(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운영주체의 종교적 배경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불교	11.1	9.2			4.6(9)
원불교		4.6			1.5(3)
가톨릭	7.4	9.2	4.0	29.1	13.2(26)
개신교	14.8	27.7	6.0	61.8	29.9(59)
종교없음	66.7	41.5	88.0	5.5	46.7(92)
기타종교		7.7	2.0	3.6	4.1(8)
전체	100.0(27)	100.0(65)	100.0(50)	100.0(55)	100.0(197)

공부방 유형별로 보면 '종교없음'이 '공부방 A, B, C형'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공부방'만이 '개신교' '61.8%', '가톨릭' '29.1%'로

종교적 배경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민간공부방이 많은 부분에서 종교적인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표Ⅲ-6> 공부방 소재지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71.9	47.8	22.2	63.6	47.9(105)
중소도시 (도청소재지·일반시)	9.4	31.9	28.6	21.8	25.1(55)
읍·면 소재지	18.8	20.3	49.2	14.5	26.9(59)
전체	100.0(32)	100.0(69)	100.0(63)	100.0(55)	100.0(219)

공부방은 전체적으로 '대도시'에 '47.9%', '읍·면 소재지'에 '26.9%', '중소도시'에 '25.1%'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는데 유형별로는 '공부방A형(71.9%)'과 '민간공부방(63.6%)', '공부방B형(47.8%)'은 대도시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공부방C형'은 50% 가까이가 읍·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를 <표Ⅲ-7>과 같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일반거주지역(37.9%)', '도시빈민지역(33.8%)', '농촌지역(18.3%)', '기타(7.3%)', '공단지역(2.7%)' 순으로 나타났는데 유형별로는 '공부방A형'이 '일반거주지역(65.6%)'과 '도시빈민지역(15.6%)', '공부방B형'이 '도시빈민지역'과 '일반거주지역'에 각각 '37.7%', '공부방C형'이 '일반거주지역(46%)'과 '농촌지역(38.1)', '민간공부방'이 '도시빈민지역(67.3%)', '일반거주지역(12.7%)'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 '공부방A형'은 일반거주지역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었고, '공부방C형'은 '일반거주지역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공부방B형'은 '도시빈민지역과 일반거주지역', '민간공부방'은 '도시빈민지역과 공단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II-7> 지역적 특성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도시빈민지역	15.6	37.7	9.5	67.3	33.8(74)
일반주거지역	65.6	37.7	46.0	12.7	37.9(83)
공단주변지역		1.4	1.6	7.3	2.7(6)
농촌지역	9.4	11.6	38.1	9.1	18.3(40)
기타	9.4	11.6	4.8	3.6	7.3(16)
전체	100.0(32)	100.0(69)	100.0(63)	100.0(55)	100.0(219)

3.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 현황

공부방 이용청소년 현황에서는 공부방의 적정인원, 각 공부방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과 일반인 같은 기타이용자 그리고 전체이용자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방 이용청소년의 몇 가지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부방의 적정인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 알아 본 결과 공부방 전체적으로 볼 때 '41-50명'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18.3%'로 가장 많았고 '1-10명(17.8%)', '21-30명(13.5%)', '11-20명(11.5%)', '31-40명(11.1%)' 순으로 응답해 '50명 이하의 응답'이 72.2%임을 알 수 있었다.

시설의 규모와 성격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 보면 '공부방A형'의 경우 '90명 이상'에 응답한 공부방이 '43.8%' 이었고, '공부방B형'의 경우 '21-50명' 사이에 '47.7%'의 응답자가 몰려 있었으며, '공부방C형'의 경우는 '21-50명' 사이에 '50.9%'가 몰려 있고 50명 이상도 공부방C형보다 더 많은 공부방이 응답하여 '공부방B형'보다 많은 인원을 적정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11-20명’이 ‘36%’로 가장 많았고 ‘11-40명’ 사이에 ‘60%’가 몰려 있고 ‘40명 이상’은 4.0%에 불과해 다른 유형의 공부방보다 적은 인원을 적정인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Ⅲ-8> 공부방의 적정인원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10명	21.9	19.4	16.9	14.0	17.8(37)
11-20명	3.1	6.0	1.7	36.0	11.5(24)
21-30명		16.4	8.5	24.0	13.5(28)
31-40명	3.1	11.9	11.9	14.0	11.1(23)
41-50명	9.4	19.4	30.5	8.0	18.3(38)
51-60명	3.1	9.0	8.5		5.8(12)
61-70명	3.1	4.5	3.4	2.0	3.4(7)
71-80명	6.3	9.0	11.9	2.0	7.7(16)
81-90명	6.3	1.5	3.4		2.4(5)
90명이상	43.8	3.0	3.4		8.7(18)
전체	100.0(32)	100.0(67)	100.0(59)	100.0(50)	100.0(208)

전체 공부방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실제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21-30명’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31-40명’이 ‘18.8%’, ‘11-20명’이 ‘15.6%’, ‘41-50명’이 ‘15.1%’로 하루 평균 ‘50명 이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부방이 ‘7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00석 이상의 열람실을 갖춘 ‘공부방A형’의 경우는 하루 평균 이용청소년이 ‘41-100명’사이에 속한 공부방이 ‘63.4%’, ‘공부방B형’의 경우는 ‘21-50명’ 사이에 속한 공부방이 ‘62.2%’, ‘공부방C형’의 경우 ‘11-40명’사이에 속한 공부방이 ‘71.9%’ 몰려 있었고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11-40명’사이에 속한 공부방이 ‘70.7%’로 나타나 하루 평균 청소년이용자의 이용비율은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순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III-9> 공부방의 전체 이용자수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10명		1.6		2.4	1.0(2)
11-20명		12.5	17.5	29.3	15.6(30)
21-30명	10.0	23.4	26.3	26.8	22.9(44)
31-40명	3.3	20.3	28.1	14.6	18.8(36)
41-50명	16.7	20.3	12.3	9.8	15.1(29)
51-100명	46.7	21.9	12.3	17.1	21.9(42)
101-150명	16.7		3.5		3.6(7)
150명이상	6.7				1.0(2)
전체	100.0(30)	100.0(64)	100.0(57)	100.0(41)	100.0(192)

공부방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수를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10명이하'가 '46.6%'로 가장 많았으며 '11-20명'이 '19.6%', '21-30명'이 '9.1%'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없는 공부방이 '16.9%'나 되었는데 유형별로 보면 공부방 A형, C형, B형 순으로 20%가 넘는 공부방들이 초등학교 이용자가 없었다. 그러나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그율이 '1.8%'밖에 되지 않아 초등학교 학생들은 민간공부방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III-10> 초등학생 이용자수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없다	25.0	20.3	22.2	1.8	16.9(37)
10명이하	50.0	55.1	61.9	16.4	46.6(102)
11-20명	9.4	17.4	11.1	38.2	19.6(43)
21-30명	12.5	4.3		23.6	9.1(20)
31-40명		1.4	1.6	9.1	3.2(7)
41-50명	3.1			7.3	2.3(5)
51명이상		1.4	3.2	3.6	2.3(5)
전체	100.0(32)	100.0(69)	100.0(63)	100.0(55)	100.0(219)

유형별로는 '공부방 A, B, C형'과 '민간공부방'의 초등학생 이용실태

가 확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초등학생 이용자 수가 '10명 이하'인 공부방이 A·B·C형에서는 50%가 넘어 61.9%인 공부방유형도 있는 반면 '민간공부방'은 '10명이하'는 '16.4%'에 불과하고 '11명-20명'이 '38.2%', '21-30명'이 '23.6%', '31-40명'이 '9.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공부방들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Ⅲ-11> 중학생 이용자수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없다	6.3	8.7	4.8	38.2	14.6(32)
10명 이하	15.6	47.8	55.6	45.5	44.7(98)
11-20명	28.1	29.0	22.2	12.7	22.8(50)
21-30명	18.8	13.0	12.7	3.6	11.4(25)
31-40명	12.5	1.4	1.6		2.7(6)
41-50명	12.5				1.8(4)
51명 이상	6.3		3.2		1.8(4)
전체	100.0(32)	100.0(69)	100.0(63)	100.0(55)	100.0(219)

초등학생의 경우와는 반대로 공부방 유형별 중학생 이용자수를 살펴 보면 중학생이 없는 민간공부방이 '38.2%'나 되는 것에 비해 공부방B.A.C형의 경우는 각각 '8.7%', '6.3%', '4.8%'만이 중학생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10명이하'가 가장 많아 '44.7%'를 차지하고 민간공부방, 공부방B형, 공부방C형이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공부방A형의 경우는 '15.6%'로 나타나고 '21-30명'이 '18.8%', '31-40명'이 '12.5%', '41-50명'이 '12.5%'로 다른 유형의 공부방에 비해 많은 중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0석 이상의 공부방 규모에 맞는 비율로 중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 고등학생 이용자수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없다	6.3	15.9	7.9	65.5	24.7(54)
10명 이하	12.5	44.9	55.6	32.7	40.2(88)
11-20명	34.4	24.6	27.0	1.8	21.0(46)
21-30명	6.3	10.1	7.9		6.4(14)
31-40명	15.6	1.4			2.7(6)
41-50명	9.4	1.4			1.8(4)
51명 이상	15.6	1.4	1.6		3.2(7)
전체	100.0(32)	100.0(69)	100.0(63)	100.0(55)	100.0(219)

고등학생의 경우도 중학생의 경우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데 '민간공부방'보다 '공부방A·B·C형'에 고등학생 이용자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공부방B형'과 '공부방C형'의 경우는 '1명-20명'의 고등학생 이용자를 갖고 있는 공부방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부방A형'의 경우는 월등히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없다	53.1	47.8	55.6	30.9	46.6(102)
10명 이하	31.3	29.0	38.1	50.9	37.4(82)
11-20명	12.5	10.1	6.3	16.4	11.0(24)
21-30명	3.1	8.7			3.2(7)
31-40명		1.4		1.8	0.9(2)
41-50명		1.4			0.5(1)
51명 이상		1.4			0.5(1)
전체	100.0(32)	100.0(69)	100.0(63)	100.0(55)	100.0(219)

각 공부방에 다니는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얼마나 되는 가를 알아 본 결과 공부방 전체를 볼 때 파악이 되지 않아 '모르

거나 없어서 응답하지 않은 공부방'이 '46.6%'였으며 파악된 공부방의 경우는 '10명이하'의 수급자가 있는 공부방이 '37.4%'로 가장 많았고, '11-20명'이 '11%', '21-30명'이 '3.2%' 순이다. 따라서 공부방 A·B·C형의 50%정도에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중 '공부방B형'이 비교적 많은 수급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더 많아 '10명이하'가 '50.9%'였고 '11-20명'이 '16.4%'로 나타나 민간공부방에 다니는 청소년의 가정형편이 더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표Ⅲ-14> 공부방청소년문제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학습부진	73.1	58.1	66.7	44.2	58.9(116)
정서불안	26.9	25.8	33.3	40.4	32.0(63)
경제적 빈곤	30.8	53.2	43.9	59.6	49.2(97)
가정해체	11.5	21.0	3.5	38.5	19.3(38)
학교부적응	7.7	16.1	7.0	7.7	10.2(20)
교우관계	38.5	14.5	15.8	5.8	15.7(31)
가출	3.8	0.0	0.0	0.0	0.5(1)
비행	0.0	3.2	12.3	0.0	4.6(9)
기타	7.7	4.8	10.5	0.0	5.6(11)
전체	13.2(26)	31.5(62)	28.9(57)	26.4(52)	100.0(197)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 2개를 응답하게 한 결과, 전체적으로, '학습부진'이 '59.9%'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 빈곤'이 '49.2%', '정서불안'이 '32.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가정해

체(19.3%)', '교우관계(15.7%)', '학교부적응(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출', '비행'등의 문제는 '5%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 양상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공부방 A형'인 경우는 학습부진이 '73.1%'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우관계(38.5%)', '경제적 빈곤(30.8%)', '정서불안(26.9%)'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B형'의 경우 '학습부진(58.1%)', '경제적 빈곤(53.2%)'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정서불안(15.8%)', '가정해체(21.0%)'가 다음 순이었다. '공부방 C형'의 경우 '학습부진(66.7%)'이 역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빈곤(43.9%)', '정서불안(33.3%)'으로 나타났다. '민간공부방'은 다른 공부방 유형과 달리 '경제적 빈곤(59.6%)'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학습부진(44.2%)', '정서불안(40.4%)', '가정해체(38.5%)'로 나타났다. 가정 해체의 경우 역시 다른 공부방의 유형에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의 프로그램은 학습지원과 정서지도 중심의 활동이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부방청소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급식이나 장학금지원 또는 결연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공부방 시설

청소년공부방 시설은 운영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있어 우선적이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공부방 운영에 있어 큰 부담을 주는 동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재 공부방의 시설규모와 현황, 공부방 운영을 위해 시설에 갖추고 있는 설비, 그리고 공부방이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차 갖추기를 원하는 설비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시설규모와 소유현황

<표 III-15> 열람석 수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19석				31.6	3.4(6)
20-39석		6.3	9.7	52.6	11.3(20)
40-59석		50.0	43.5	10.5	34.5(61)
60-79석		35.9	33.9		24.9(44)
80-99석		7.8	12.9	5.3	7.9(14)
100-149석	62.5				11.3(20)
150-199석	21.9				4.0(7)
200석이상	15.6				2.8(5)
전체	100.0(32)	100.0(64)	100.0(62)	100.0(19)	100.0(177)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공부방의 경우, 열람석 수나 수용인원 수가 기준이 되어 공부방의 유형이 정해지고 이것은 공부방의 지원액을 결정하는데 반영되고 있었다. 본 조사에 응답한 정부지원 공부방의 규모를 정리해보면 <표 III-15>와 같으며 이러한 공부방의 규모는 본 조사에서도 공부방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즉 공부방 A형과 B, C형을 나눌 때 A형은 '100석이상'의 열람석이나 수용인원을 가진 공부방으로 분류하고 B, C형은 '100석이하'의 공부방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지원 공부방의 경우는 '공부방A형'의 경우 '100-149석'의 공부방이 62.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B·C형 공부방의 경우는 '41-60석'이 각각 '50.0%', '43.5%'를 차지하고 '61-79석'의 공부방이 '35.9%', '33.9%'를 차지해 80%에 가까운 공부방이 '41-79석' 규모의 공부방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대부분 열람석을 갖추고 있지 않고 시설의 크기를 전용면적으로 표기하므로 응답에 응한 기관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에도 못 미쳤으며 95% 이상이 60석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민간공부방이 작은 규모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전용면적으로 알아보았고 이에 44기관이 응답하였는데 '21-30평'이 '31.8%'로 가장 많았고, '11-20평(29.5%)', '31-40평(20.5%)', '41-50평(6.8%)', '10평 이하'와 '51-60평'이 각각 '4.5%', '2.3%'로 70%에 가까운 민간공부방들이 20평 이하의 규모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III-16> 시설의 소유형태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운영자 개인		1.4		7.3	2.3(5)
법인·단체	41.9	46.4	55.6	25.5	43.1(94)
전세	6.5	10.1	3.2	34.5	13.8(30)
월세		2.9		12.7	4.1(9)
무허가			1.6	5.5	1.8(4)
무상대여	16.1	18.8	22.2	5.5	16.1(35)
기타	35.5	20.3	17.5	9.1	18.8(41)
전체	100.0(31)	100.0(69)	100.0(63)	100.0(55)	100.0(218)

공부방 시설의 소유형태는 공부방 전체로 볼 때에는 '법인·단체'가 '43.1%'로 가장 많았고, '무상대여'가 '16.1%', '전세'가 '13.8%'로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월세(4.1%)', '운영자개인(2.3%)', '무허가(1.8%)'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공부방들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공부방C', '공부방B', '공부방A'순으로 '법인·단체(55.6%, 46.4%, 41.9%)'와 '무상대여(22.2%, 18.8%, 16.1%)'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민간공부방'은 '전세(34.5%)', '법인·단체(25.5%)', '월세(12.7%)', '운영자 개인(7.3%)' 순으로 시설 면에서 다른 공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Ⅲ-17> 공부방 시설의 주된 용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공부방 단독건물	35.5	15.9	12.7	25.5	20.2(44)
종교시설			1.6	20.0	5.5(12)
상가	6.5	11.6		12.7	7.8(17)
일반주택		5.8	3.2	23.6	8.7(19)
공공건물	29.0	21.7	46.0	1.8	24.8(54)
복지시설	16.1	34.8	25.4	5.5	22.0(48)
기타	12.9	10.1	11.1	10.9	11.0(24)
전체	100.0(31)	100.0(69)	100.0(63)	100.0(55)	100.0(218)

공부방이 위치한 건물의 주된 용도를 알아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공공건물(24.8%)', '복지시설(22.0%)', '공부방 단독건물(20.2%)'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반주택(8.7%)', '상가(7.8%)', '종교시설(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교적 규모가 큰 '공부방A형'은 주로 공부방 '단독건물(35.5%)', '공공건물(29.0%)', '복지시설(16.1%)'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공부방B형'은 '복지시설(34.8%)', '공공건물(21.7%)', '단독건물(15.9%)'에서, '공부방C형'은 '공공건물(46%)', '복지시설(25.4%)', '단독건물(15.7%)'에서, '민간공부방'은 '공부방단독건물(25.5%)', '일반주택(23.6%)', '종교시설(20.0%)'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운영주체의 특성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

2) 시설 설비현황

<표III-18> 공부방 통신장비 현황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팩스	있다	62.5	53.6	19.0	58.2	46.1(101)
	없다	37.5	46.4	81.0	41.8	53.9(118)
E-mail 주소	있다	25.0	37.7	4.8	63.6	32.9(72)
	없다	75.0	62.3	95.2	36.4	67.1(147)
Home-Page 주소	있다	12.5	13.0	3.2	10.9	9.6(21)
	없다	87.5	87.0	96.8	89.1	90.4(198)
전체		100.0(32)	100.0(69)	100.0(63)	100.0(55)	100.0(219)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통신장비 설치현황을 알아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팩스’는 ‘46.1%’, ‘E-Mail주소’는 ‘32.9%’, ‘Home-Page주소’는 ‘9.6%’의 공부방만이 갖추고 있어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 구비상태를 보면 ‘팩스’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공부방 A형’이 ‘62.5%’로 가장 많았고, ‘E-Mail주소’는 ‘민간공부방’이 ‘63.6%’로 눈에 띄게 많았으며 ‘Home-Page주소’는 ‘공부방B형’이 ‘13.0%’로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 것 나타났다. 그러나 ‘C형 공부방’의 경우 ‘팩스’는 ‘19.0%’, ‘E-Mail주소’는 ‘4.8%’, ‘Home-Page’는 ‘3.2%’만을 갖추고 있어 다른 유형의 공부방에 비해 시설 설비의 열악함을 보여 주었다.

공부방들이 현재 컴퓨터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지 알아 본 결과 설문에 응한 219개 공부방 중 ‘47.4%’가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52.6%’인 115 기관만이 ‘컴퓨터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컴퓨터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공부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대’만을 갖추고 있는 공부방이 ‘21.9%’로 가장 많았으며 ‘2-3대’가 ‘15.5%’, ‘4-5대’가 ‘9.1%’순으로 나타났다.

<표Ⅲ-19> 현재 컴퓨터 보유대수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없다·무응답	46.8	49.2	65.0	25.4	47.4(104)
1대	21.8	23.1	22.2	20.0	21.9(48)
2-3대	12.5	15.9	9.5	23.6	15.5(34)
4-5대	9.3	4.3		25.4	9.1(20)
6-10대		4.3	3.1	5.4	3.6(8)
11-20대	3.1	1.4			0.9(2)
20대이상	6.2	1.4			1.3(3)
전체	100.0(32)	100.0(69)	100.0(63)	100.0(55)	100.0(219)

유형별로 보면 '1대'를 갖춘 공부방은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이 '20-23%'로 나타난 데 비해 '2-3대'와 '4-5대'를 갖춘 공부방은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간공부방 (23.6%, 25.4%)', '공부방A형 (12.5%, 9.3%)', '공부방B형(15.9%, 4.3%)', '공부방C형(9.5%, 0%)'로 나타나 민간공부방이 컴퓨터 장비를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컴퓨터 보유현황은 '공부방이 장차 갖추기를 원하는 설비'로 '인터넷 학습실'과 '컴퓨터 학습실'로 50%가 넘는 공부방들이 응답한 것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표Ⅲ-20> 현재 인터넷 설치현황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없다·무응답	65.6	60.8	96.8	36.3	65.7(53)
1대	15.6	28.9	3.1	47.2	24.2(53)
2-3대	9.3	7.2		7.2	5.4(12)
4-5대	3.1			7.2	2.2(5)
6-7대				1.8	0.4(1)
8-9대	6.2	2.8			1.8(4)
전체	100.0(32)	100.0(69)	100.0(63)	100.0(55)	100.0(219)

인터넷 설치현황은 공부방 전체를 놓고 볼 때, '1대'를 갖춘 공부방이 '24.2%', '2-3대'를 갖춘 공부방이 '5.4%' '4-5대'가 '2.2%', '6-7대'가 '0.4%', '8-9대'가 '1.8%' 순이고 '없거나 무응답'인 경우가 '65.7%'로 나타나 공부방의 인터넷 장비가 대체적으로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설치현황을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 보면 컴퓨터 보유현황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형 공부방'의 경우 인터넷을 1대 갖춘 기관이 1기관밖에 없었고 A형과 B형의 경우도 '1대(15.6%, 28.9%)', '2-3대(9.3%, 7.2%)'임에 비해 민간공부방의 설치현황은 '1대(47.2%)', '2-3대(7.2%)'로 비교적 잘 갖추고 있어 민간공부방이 정부지원 공부방보다 첨단통신장비에서는 월등히 앞서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III-21> 현재 갖추고 있는 공부방 설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열람실·독서실	93.8	89.9	90.5	23.6	74.0(162)
학습지도실	50.0	44.9	30.2	74.5	48.9(107)
개별상담실	56.3	49.3	47.6	25.5	43.8(96)
집단활동실	25.0	20.3	3.2	34.5	19.6(43)
도서·도서관	62.5	66.7	63.5	25.5	54.8(120)
사무실	84.4	50.7	52.4	41.8	53.9(118)
컴퓨터학습실	15.6	17.4	11.1	21.8	16.4(36)
인터넷학습실	9.4	14.5	1.6	7.3	8.2(18)
조리·주방실	15.6	20.3	4.8	70.9	27.9(61)
강당	12.5	18.8	1.6	9.1	10.5(23)
운동장·마당	21.9	17.4	15.9	14.5	16.9(37)
냉난방시설	75.0	62.3	76.2	50.9	65.3(143)
비상재해시설	50.0	37.7	31.7	9.1	30.6(67)
기타	12.5	7.2	7.9	5.5	7.8(17)
전체	100.0(32)	100.0(69)	100.0(63)	100.0(55)	100.0(219)

공부방들이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알아 본 결과 공부방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은 '74.0%'로 '열람실·독서실'이었고, '냉난방시설(65.3%)', '도서·도서관(54.8%)', '사무실(53.9%)', '학습지도실(48.9%)', '개별상담실(43.8%)', '비상재해시설(30.6%)', '조리·주방실(27.9%)', '집단활동실(19.6%)', '운동장·마당(16.9%)', '컴퓨터학습실(16.4%)', '강당(10.5%)', '인터넷학습실(8.2%)'순으로 갖추고 있었다.

공부방 유형별로 볼 때 '열람실·독서실'의 경우 정부지원공부방인 '공부방A·C·B형'은 '90% 정도'가 갖추고 있는 반면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23.6%'밖에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공부방들이 열람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학습지도실'은 '민간공부방(74.5%)'이 '공부방A형(50.0%)', '공부방B형(44.9%)', '공부방C형(30.2%)'에 비해 월등히 많이 갖추고 있음을 보여 정부지원공부방이 학습공간 제공 위주의 서비스를 하는 것에 반해 민간공부방은 학습지도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냉난방시설'의 경우도 '공부방C형(76.2%)', '공부방A형(75.0%)', '공부방B형(62.3%)', '민간공부방(50.9%)' 순으로 많이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정부지원공부방의 경우 정부로부터 공공건물을 무상대여 받거나 법인이나 단체 소유시설이 많고 정부로부터 시설지원비를 받는 곳이 많기 때문에 민간공부방에 비해 시설설비를 비교적 잘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도서관', '사무실', '비상재해시설' 등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도서·도서관'은 '공부방B형(66.7%)', '공부방C형(63.5%)', '공부방A형(62.5%)' 모두 60% 이상이 갖추고 있는 반면 '민간공부방'은 '25.5%'만이 갖추고 있었으며 '사무실'의 경우 '공부방A형(84.4%)', '공부방C형(52.4%)', '공부방B형(50.7%)'임에 비해 '민간공부방'은 '41.8%'로 정부지원공부방에 비해 적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재해시설' 역시 '공부방A형(50.0%)', '공부방B형(37.7%)', '공부방C형(31.7%)', '민간공부방(9.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상담실'과 '집단상담실'의 경우 '민간공부방'은 집단상담실

을 더 많이 갖추고 있었으며 '공부방 A, B, C형'은 개별상담실을 민간공부방보다 더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공부방이 집단지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비해 정부지원공부방들은 개별활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컴퓨터학습실'과 '인터넷학습실'의 경우, 컴퓨터학습실은 '민간공부방(21.8%)', '공부방B형(17.4%)', '공부방A형(15.6%)', '공부방C형(11.1%)'순이었고, 인터넷학습실은 '공부방B형(14.5%)', '공부방A형(9.4%)', '민간공부방(7.3%)', '공부방C형(1.6%)' 순으로 나타나 컴퓨터학습실은 '민간공부방'이 가장 잘 갖추고 있었고 '공부방C형'이 가장 미흡했으며, 인터넷학습실은 '공부방B형'이 가장 많이 갖추고 있었고 '공부방C형'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부방C형'의 경우 컴퓨터와 인터넷 설비의 구축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부방을 대상으로 '장차 갖추기를 희망하는 공부방 설비'에 대해 알아 본 결과 '인터넷학습실(55.3%)'과 '컴퓨터학습실(53.9%)'이 '50%'를 넘어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도서·도서관(30.6%)', '개별상담실(28.8%)', '집단활동실(26.5%)', '냉난방시설(25.6%)', '운동장·마당(24.4%)', '사무실(23.3%)', '비상재해시설(21.5%)', '학습지도실(20.5%)', '조리·주방실(19.2%)', '독서실(18.3%)', '강당(15.1%)'순으로 희망하고 있었다.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공부방'이 다른 유형의 공부방에 비해 전 설비에 걸쳐 가장 높은 욕구를 지니고 있었고 '공부방 B형'이 2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표III-22>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인터넷학습실', '컴퓨터학습실', '도서·도서관'의 경우는 모든 유형의 공부방이 고르게 희망하고 있었으나 '열람실·독서실', '개별상담실', '집단활동실', '사무실', '강당', '운동장·마당', '냉난방시설', '비상재해시설' 등에 있어서는 '민간공부방'과 '공부방B형'이 더 많은 욕구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2> 장차 갖추기를 희망하는 공부방 설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열람실·독서실	9.4	14.5	9.5	38.2	18.3(40)
학습지도실	15.6	23.2	15.9	25.5	20.5(45)
개별상담실	18.8	29.0	17.5	47.3	28.8(63)
집단활동실	15.6	33.3	12.7	40.0	26.5(58)
도서·도서관	28.1	30.4	28.6	34.5	30.6(67)
사무실	9.4	23.2	17.5	38.2	23.3(51)
컴퓨터학습실	56.3	56.5	46.0	58.2	53.9(118)
인터넷학습실	50.0	63.8	52.4	50.9	55.3(121)
조리·주방실	21.9	24.6	9.5	21.8	19.2(42)
강당	15.6	17.4	3.2	25.5	15.1(33)
운동장·마당	18.8	20.3	3.2	56.4	24.2(53)
냉난방시설	12.5	34.8	14.2	34.5	25.6(56)
비상재해시설	12.5	26.1	12.7	32.7	21.5(48)
기타	12.5	4.3	3.2	10.9	6.8(14)
전체	100.0(32)	100.0(69)	100.0(63)	100.0(55)	100.0(219)

3) 시설에 대한 만족도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 보기 위해 공부방의 공간크기와 안전성, 쾌적함, 시설설비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부방의 크기에 대해서는 공부방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조금·매우 협소하다(42.2%)’, ‘약간·매우 충분하다(30.3%)’, ‘보통이다(27.5%)’로 나타나 공간이 협소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방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공부방A형’의 경우는 그 규모가 100석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듯 ‘50.6%’의 공부방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32.3%’만이 ‘협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24> 공부방의 공간크기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단위 : %(개) 전체
매우 충분하다	38.7	5.8	14.3	3.6	12.4(27)
약간 충분하다	12.9	20.3	27.0	7.3	17.9(39)
보통이다	16.1	39.1	33.3	12.7	27.5(60)
조금 협소하다	19.4	27.5	22.2	32.7	26.1(57)
매우 협소하다	12.9	7.2	3.2	43.6	16.1(35)
전체	100.0(31)	100.0(69)	100.0(63)	100.0(55)	100.0(218)

‘공부방B형’의 경우 ‘보통이다(39.1%)’, ‘협소하다(34.7%)’, ‘충분하다(26.2%)’ 순으로 나타났고, ‘공부방C형’의 경우는 ‘충분하다(41.3%)’, ‘보통이다(33.3%)’, ‘협소하다(25.4%)’ 순으로 비교적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으며,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협소하다(76.3%)’, ‘보통이다(12.7%)’, ‘충분하다(10.9%)’로 나타나 대다수의 공부방이 공간이 협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25> 공부방의 안전성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단위 : %(개) 전체
매우 안전하다	48.4	29.0	35.5	7.3	28.1(61)
조금 안전하다	16.1	21.7	25.8	27.3	23.5(51)
보통이다	29.0	34.8	33.9	25.5	31.3(68)
조금 불안전하다	6.5	13.0	3.2	27.3	12.9(28)
매우 불안전하다		1.4	1.6	12.7	4.1(9)
전체	100.0(31)	100.0(69)	100.0(62)	100.0(55)	100.0(217)

공부방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우·조금 안전하다(51.6%)’, ‘보통이다(31.3%)’, ‘조금·매우 불안전하다(17%)’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유형별로는 민간공부방에 비해 정부지원공부방이 월등히 안전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공부방A형'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방이 가장 많았고 '공부방B형'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40%나 되는 공부방이 '조금 또는 매우 불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6> 공부방의 쾌적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매우 쾌적하다	22.6	20.3	15.9	7.3	16.1(35)
조금 쾌적하다	19.4	24.6	30.2	14.5	22.9(50)
보통이다	48.4	36.2	41.3	38.2	39.9(87)
조금 불쾌하다	6.5	15.9	12.7	32.7	17.9(39)
매우 불쾌하다	3.2	2.9		7.3	3.2(7)
전체	100.0(31)	100.0(69)	100.0(63)	100.0(55)	100.0(218)

공부방의 쾌적도에 대해서 공부방 전체적으로 볼 때 '보통이다(39.9%)', '쾌적하다(39.0%)', '불쾌하다(21.1%)'로 비교적 쾌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 그 차이를 볼 때, 공부방의 쾌적도는 안전성과 같은 경향을 보여 '공부방A형', '공부방C형', '공부방B형' 순으로 쾌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불쾌하다고 느끼는 공부방들이 '40%'로 쾌적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방 '21.8'보다 18.2%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이 갖추고 있는 냉난방시설, 책걸상, 도서 등과 같은 시설 설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 전체적으로 '불충분(40.4%)', '충분하다(30.3%)', '보통이다(29.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형별로 보면 '공부방A형'과 '공부방C형'의 경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방보다 많았으며 '공부방B형'과 '민간공부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방이 충분하다고 생

각하는 공부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방이 ‘70%’에 가까워 다른 공부방에 비해 월등히 공부방의 설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III-27> 공부방의 시설설비 정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매우 충분	29.0	5.8	9.5		8.7(19)
약간 충분	16.1	21.7	30.2	14.5	21.6(47)
보통	25.8	33.3	38.1	16.4	29.4(64)
조금 불충분	22.6	26.1	20.6	38.2	27.1(59)
매우 불충분	6.5	13.0	1.6	30.9	13.3(29)
전체	100.0(31)	100.0(69)	100.0(63)	100.0(55)	100.0(218)

5. 청소년공부방 인적자원

청소년공부방의 활성화나 제도화를 위해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개선책을 모색할 때 대두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공부방을 운영하는 교사의 자질 및 자격에 관한 것과 이들에게 합당한 처우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공부방이 보유한 인적자원의 수와 급여, 근무시간, 종사기간, 학력, 보유자격증 등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책임자와 상근교사, 보조교사 및 자원봉사자들의 근무조건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인적자원 현황

상근교사나 자원교사,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 응답결과를 전체 공부방을 대상으로 살펴

본 결과 '보통이다'가 '27.6%'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가 '27.6%', '매우 그렇지 않다'가 '17.3%', '약간 그렇다'가 '15%', '매우 그렇다'가 '10.7%'로 나타나 인적자원 확보가 매우 미흡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표Ⅲ-28> 공부방 인적자원 확보 정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매우 그렇다	9.7	7.4	20.0	5.5	10.7(23)
약간 그렇다	16.1	16.2	18.3	9.1	15.0(32)
보통이다	25.8	36.8	33.3	18.2	29.4(63)
그렇지 않다	22.6	25.0	25.0	36.4	27.6(59)
매우 그렇지 않다	25.8	14.7	3.3	30.9	17.3(37)
전체	100.0(31)	100.0(68)	100.0(60)	100.0(55)	100.0(214)

공부방 유형별로는 '공부방C형'이 '그렇다'란 응답이 38.3%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공부방A형'과 '공부방B형'은 긍정정보는 부정적인 응답이 조금 더 많았고,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가 '67.3%'로 70%에 가까운 공부방들이 공부방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9> 교사 1인당 지도 적절한 청소년 수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5명 이하	13.6	24.2	17.4	50.0	28.7(54)
6-10명	36.4	27.3	19.6	40.7	30.3(57)
11-15명	4.5	15.2	15.2	5.6	11.2(21)
16-20명	18.2	16.7	28.3		14.9(28)
21-25명		3.0			1.1(2)
26-30명	13.6	9.1	10.9	1.9	8.0(15)
31-50명	9.1	3.0	8.7		4.3(8)
51명 이상	4.5	1.5		1.9	1.6(3)
전체	100.0(22)	100.0(66)	100.0(46)	100.0(54)	100.0(188)

한 명의 교사가 지도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본 결과 공부방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6-10명'이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30.3%', '5명 이하'가 '28.7%', '16-20명'이 '14.9%', '11-15명'이 '11.2%' 순으로 응답결과가 나와 '6-10명'정도가 공부방에서 한 명의 교사가 지도하기에 적당한 인원수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는 '민간공부방'이 '5명 이하'가 '50%', '6-10명'이 '40.7%'로 90.7%가 많아도 10명이 넘지 않아야 공부방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공부방A형'이나 '공부방B형'의 경우도 50%가 넘게 10명 이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공부방C형'의 경우는 '37%'만이 10명 이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16-20명' 또는 '25-3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40%'정도나 되어 공부방 교사 중 공부방의 적정 인원을 가장 높게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II-30> 공부방의 유급 상근교사 수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명	78.6	93.8	92.3	75.7	87.0(120)
2명	7.1	6.3	7.7	10.8	8.0(11)
3명	14.3			10.8	4.3(6)
5명이상				2.7	0.7(1)
전체	100.0(14)	100.0(48)	100.0(39)	100.0(37)	100.0(138)

공부방이 몇 명의 상근교사를 채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공부방 전체적으로 볼 때, 87%의 공부방이 1명의 유급 상근교사만을 갖고 있었으며 '2명'이 있는 곳은 '8%', '3명'인 곳은 '4.3%', '5명이상'인 곳이 '0.7%'로 한 기관에 불과했다.

공부방 유형별로 볼 때, '공부방A형'과 '민간공부방'만이 20%정도 2명 이상의 상근교사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공부방A형'의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근교사를 2명 이상 둘 수 있었고,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과 대상청소년들의 특성상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공부방에 비해 상근교사가 더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III-31> 공부방이 희망하는 유급 상근교사·실무자 수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명	80.0	65.6	83.3	41.2	61.7(58)
2명	10.0	31.3	16.7	26.5	24.5(23)
3명		3.1		20.6	8.5(8)
4명	10.0			8.8	4.3(4)
5명이상				2.9	1.1(1)
전체	100.0(10)	100.0(32)	100.0(18)	100.0(34)	100.0(94)

각각의 공부방이 몇 명의 유급 상근교사를 희망하는지 알아본 결과 '1명'을 희망하는 공부방이 '61.7%'로 가장 많았고, '2명'이 '24.5%', '3명'이 '8.5%', '4명'이 '4.3%', '5명이상'이 '1.1%'였다.

결과를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 보면, '민간공부방'이 가장 많은 수의 '상근교사'를 원하고 있었다. '1명'을 원하는 공부방은 '41.2%'에 불과하고 '2명'을 원하는 공부방이 '26.5%', '3명'을 원하는 공부방이 '20.6%', '4명'을 원하는 공부방은 '8.8%', '5명이상'을 원하는 공부방은 '2.9%'였다. '공부방B형'도 '공부방A형'이나 '공부방C형'에 비해 많은 수의 상근교사를 원하고 있었다.

<표III-32>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 단체 및 개인 유무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있다	57.7	66.7	25.5	80.0	57.9(110)
없다	42.3	33.3	74.5	20.0	42.1(80)
전체	100.0(26)	100.0(63)	100.0(51)	100.0(50)	100.0(190)

공부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해 주는 단체 및 개인봉사자가 있는 지 알아 본 결과 전체 공부방의 57.9%(110기관)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를 공부방 유형별로 보면 ‘민간공부방’이 ‘80%’로 자원봉사자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었으며, ‘공부방B형(66.7%)’, ‘공부방A형(57.7%)’, ‘공부방C형(25.5%)’순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총 자원봉사자 수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5명 이하	68.4	57.5	90.0	27.6	57.4(62)
6-10명	10.5	15.0		20.7	13.0(14)
11-20명	15.8	10.0		20.7	12.0(13)
21-40명		15.0	5.0	24.1	13.0(14)
41명 이상	5.3	2.5	5.0	6.9	4.6(5)
전체	100.0(19)	100.0(40)	100.0(20)	100.0(29)	100.0(108)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월 평균 몇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 본 결과 전체 공부방을 대상으로 볼 때는 ‘5명 이하’가 ‘57.4%’로 가장 많았고, ‘6-10명’이 ‘13.0%’로 70% 이상의 공부방이 한달 평균 10명 이하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40명’의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기관도 ‘13%’ 되었고, ‘41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도 4.6% 있었다.

유형별로 볼 때 자원봉사자 유무에 대한 응답결과와 마찬가지로 ‘민간공부방’이 가장 잘 활용하고 있었으며, 공부방 B, A, C 순으로 활용도가 낮아짐을 볼 수 있었다.

공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볼 때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공부방은 91개 기관, 직장인이 활동하고 있는 공부방은 47개 기관, 주부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기관은 68기관, 퇴직공무원은 23개 기관으로 나타나 공부방의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대학생과 주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운영책임자

(1) 운영책임자의 배경(인적사항)

<표III-34> 운영 책임자의 연령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20대	3.6	16.4	2.1	10.2	9.2(17)
30대	10.7	23.0	17.0	53.1	27.6(51)
40대	28.6	27.9	27.7	30.6	28.6(53)
50대	32.1	21.3	23.4	6.1	19.5(36)
60대	25.0	8.2	14.9		10.3(19)
70대		3.3	14.9		4.9(9)
전체	100.0(28)	100.0(61)	100.0(47)	100.0(49)	100.0(185)

공부방 운영책임자의 연령은 전체적으로 볼 때 '40대'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7.6%', '50대'가 '19.5%', '60대'가 '10.3%', '20대'가 '9.2%', '70대'가 '4.9%'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는 '공부방A형'의 경우는 '50대(32.1%)', '40대(28.6%)', '60대(25%)', '30대(3.6%)', '20대(3.6%)'순으로 나타났고, '공부방B형'의 경우는 '40대(27.7%)', '50대(23.4%)', '30대(17.0%)', '60대(14.9%)', '70대(14.8%)', '20대(2.1%)' 순이었으며, '공부방C형'의 경우는 '40대(27.9%)', '30대(23.0%)', '50대(21.3%)', '20대(16.4%)', '60대(8.2%)', '70대(3.3%)'순으로 나타났고, '민간공부방'의 경우 '30대(53.1%)', '40대(30.6%)', '20대(10.2%)', '50대(6.1%)'로 나타나 공부방C형, 공부방A형, 공부방B형, 민간공부방 순으로 운영책임자의 연령이 조금씩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III-35> 운영책임자의 성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남자	55.2	65.6	86.0	48.9	65.3(124)
여자	44.8	34.4	14.0	51.1	34.7(66)
전체	100.0(29)	100.0(64)	100.0(50)	100.0(47)	100.0(190)

운영책임자의 성별은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65.3%)가 여자(34.7%)보다 30.6%나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볼 때는 공부방C형, 공부방B형, 공부방A형, 민간공부방 순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III-36> 운영책임자 종사기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년	15.4	22.0	30.0	26.7	24.1(41)
2년	26.9	16.9	15.0	11.1	16.5(28)
3년	3.8	15.3	7.5	20.0	12.9(22)
4년	7.7	3.4	17.5	2.2	7.1(12)
5년	11.5	11.9	12.5	13.3	12.4(21)
6-10년	23.1	22.0	10.0	22.2	19.4(33)
11년 이상	11.5	8.5	7.5	4.4	7.6(13)
전체	100.0(26)	100.0(59)	100.0(40)	100.0(45)	100.0(170)

운영책임자의 종사기간을 살펴보면 공부방 전체적으로는 '1년 이하'가 '24.1%'로 가장 많았고, '2년(16.5%)', '3년(12.9%)', '5년(12.4%)', '4년(7.1%)' 순으로 나타나 '3년 이하'의 경력을 갖춘 운영책임자가 '53.5%'로 과반수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5년'이 '12.4%', '6-10년'이 '19.4%' '11년 이상'이 '7.6%'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운영책임자도 '39.4%'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부방 유형별로는 대체적으로 <표 III-36>에서 볼 수 있듯이 '공부방A형', '공부방B형', '민간공부방', '공부방C형' 순으로 오랜 기간 종사한

운영책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7> 운영책임자의 학력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중졸	3.4	3.1	9.3		4.0(8)
고졸	34.5	24.6	64.8	5.9	32.2(64)
대재	6.9	1.5	3.7	3.9	3.5(7)
대졸	37.9	50.8	22.2	51.0	41.2(82)
대학원졸	17.2	20.0		39.2	19.1(38)
전체	100.0(29)	100.0(65)	100.0(54)	100.0(51)	100.0(199)

운영책임자의 학력은 공부방 전체를 놓고 볼 때, '대졸'이 '41.2%'로 가장 많았고, '고졸(32.2%)', '대학원졸(19.1%)', '중졸(4.0%)', '대재(3.5%)' 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 보면 '공부방A형'과 '공부방B형'은 대졸, 대학원졸, 고졸 순으로 나타났고, '공부방C형'의 경우는 '고졸', '대졸', '중졸' 순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대학원졸', '대졸', '고졸' 순으로 나타나 민간공부방의 운영책임자의 학력이 가장 높고, 공부방C형의 경우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8> 운영책임자의 종교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가톨릭	8.7	15.0	11.4	25.5	16.3(29)
개신교	52.2	33.3	13.6	62.7	39.3(70)
불교	17.4	13.3	20.5		11.8(21)
원불교		6.7			2.2(4)
종교없음	21.7	23.3	52.3	7.8	25.8(46)
기타종교		8.3	2.3	3.9	4.5(8)
전체	100.0(23)	100.0(60)	100.0(44)	100.0(51)	100.0(178)

공부방 운영책임자의 종교를 공부방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 보면 '개신교'가 '39.3%'로 가장 많았고, '종교없음'이 '25.8%', '가톨릭'이 '16.3%', '불교'가 '11.8%', '원불교' 2.2% 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 보면 '공부방A형'과 '공부방B형'의 경우는 '개신교', '종교없음', '불교(또는 가톨릭)' 순이었으나 '공부방C형'의 경우는 '종교없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52.3%를 나타냈고 '불교'가 '20.2%'를 '개신교(13.6%)', '가톨릭(25.5%)'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개신교'가 62.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가톨릭(25.5%)', '종교없음(7.8%)'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부방C형'의 경우가 운영책임자의 종교적 배경이 가장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9> 운영책임자가 보유한 자격증

단위 : %(개)

	공부방 A형	공부방 B형	공부방 C형	민간 공부방	전체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	35.0	7.4	24.2	24.2(29)
교사 자격증	25.0	25.0	11.1	21.2	20.8(25)
보육교사 자격증	5.0	2.5	3.7	15.2	6.7(8)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30.0	10.0	7.4	12.1	13.3(16)
기타	25.0	32.5	74.1	39.4	42.5(51)
전체	16.7(20)	33.3(40)	22.5(27)	27.5(33)	100.0(120)

공부방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갖고 있는 자격증을 알아보면, '기타(42.5%)'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2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사자격증'이 '20.8%',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13.3%'로 나타났고, '보육교사 자격증'은 '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2.5%나 되는 기타의 응답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근절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 이장, 성공회 사제,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도사, 통위원(37번),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 공인중계사 자격증, 약사, 상담, 퇴직 공무원, 선교사, 사회복지종사자, 구의원, 국가공무원, 사서자격증, 학원강사, 서예지도사, 시창작, 초등학교 명예교사,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 전문

가, 사회교육, 시설장, 중앙 새마을 문고 회장, 청소년지도위원, 지역사회 봉사생활 30년, 청소년교육전도사, 자원봉사자, 통장 등.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부방A형'의 운영책임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30.0%)'을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25.0%)', '교사자격증(25.0%)', '기타(25.0%)'를 같은 비율로 갖고 있었다. '공부방 B형'의 운영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35.0%'로 가장 많이 소지하고 있었으며, '교사자격증'이 '25.0%'.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10.0%'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 자격증'은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부방 C형'인 경우는 '기타'에 응답한 비율이 '74.1%'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 자격증(11.1%)', '사회복지사 자격증(7.4%)', '청소년지도사 자격증(7.4%)', '보육교사 자격증(3.7%)'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운영책임자가 '기타(39.4%)'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 자격증(24.2%)', '교사 자격증(21.2%)'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보육교사 자격증(15.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볼 때, 공부방 유형의 특성에 따라 운영책임자가 갖고 있는 자격증에는 많은 차이가 있고, 다양한 신분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III-40> 운영책임자가 보유한 수료증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방과후 아동지도	7.1	32.0	22.7	64.3	30.7(23)
독서지도	35.7	12.0	36.4		21.3(16)
논술지도				7.1	1.3(1)
레크레이션		12.0			4.0(3)
부모역할훈련	7.1	16.0	9.1	28.6	14.7(11)
기타	50.0	28.0	31.8		28.0(21)
전체	100.0(14)	100.0(25)	100.0(22)	100.0(14)	100.0(75)

운영책임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료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 75개 기관의 운영책임자만이 응답하였는데 결과를 공부방 전체적 볼 때 ‘방과 후 아동지도’가 ‘30.7%’로 가장 많았고, ‘기타(28%)’, ‘독서지도(21.3%)’, ‘부모역할훈련(14.7%)’, ‘레크레이션(4.0%)’, ‘논술지도(1.3%)’ 순으로 나타났고 유형별로는 민간공부방 운영책임자들의 64.3%가 ‘방과후 아동지도’ 수료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유형별로 특이한 현상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28%를 차지하는 ‘기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내용을 볼 수 있었다. Network DB 등, 약물예방, 성교육, 기초수화, 집단상담 초,중 지도자, 또래상담, 소년보호사, MBTI, MMTIC, 심성수련, 에니어그램, 새마을 지도자, 공부방 운영의 지도감독, 상담원수료, 성교육 상담, 성폭력 상담, 종이접기, 문고지도자, 사회복지(청소년, 복지)수료증, 상담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중,고 준비반, MBTI, 심성수련, 학원강사, 희망청소년학교장, 지역공동체운동 교육과정, MBTI검사, 진로탐색검사, 학습지도, 생활지도 문제점대화, 청소년지도연수, 운영지도 등.

(2) 운영책임자의 근무여건

운영책임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전체 공부방을 대상으로 살펴 보면 ‘41-50시간’이 ‘28.3%’로 가장 많았고, ‘10시간이하(15.9%)’, ‘51-60시간(15.0%)’, ‘31-40시간(12.4%)’, ‘21-30시간(11.5%)’, ‘11-20시간(9.7%)’, ‘61-70시간(2.7%)’순으로 50% 정도의 운영책임자가 40시간 보다 적게 근무하고 있었으며, 28.3%가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슷한 ‘41-50시간’ 근무하고 ‘50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운영책임자는 22.2%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부방 유형별로는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순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않고 있었다.

<표Ⅲ-41> 운영책임자 주당 근무시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0시간이하	9.5	20.0	16.7	14.3	15.9(18)
11-20시간	4.8	10.0	12.5	10.7	9.7(11)
21-30시간	4.8	15.0	4.2	17.9	11.5(13)
31-40시간	9.5	2.5	20.8	21.4	12.4(14)
41-50시간	28.6	35.0	29.2	17.9	28.3(32)
51-60시간	28.6	15.0	12.5	7.1	15.0(17)
61-70시간	9.5			3.6	2.7(3)
71-80시간			4.2	3.6	1.8(2)
81-90시간	4.8			3.6	1.8(2)
90시간이상		2.5			0.9(1)
전체	100.0(21)	100.0(40)	100.0(24)	100.0(28)	100.0(113)

<표Ⅲ-42> 운영책임자 주당 희망 근무시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0시간이하	7.7	24.0	10.0	4.8	13.0(9)
11-20시간		4.0	10.0	19.0	8.7(6)
21-30시간	7.7	12.0	10.0	33.3	17.4(12)
31-40시간	15.4	32.0	20.0	14.3	21.7(15)
41-50시간	38.5	20.0	40.0	23.8	27.5(19)
51-60시간		8.0	10.0		4.3(3)
61-70시간	7.7			4.8	2.9(2)
81-90시간	15.4				2.9(2)
90시간이상	7.7				1.4(1)
전체	100.0(13)	100.0(25)	100.0(10)	100.0(21)	100.0(69)

운영책임자가 원하는 주당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69개의 공부방만이 응답했는데 운영책임자가 원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41-50시간'이 가장 많아 '27.5%'를 나타냈고, '31-40시간(21.7%)', '21-30시간(17.4%)', '10시간이하(13.0%)', '11-20시간(8.7%)'순으로 89.5%의 운영책임자들이 50시간 미만

의 근로시간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것은 운영책임자들의 현재 근무시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표Ⅲ-43> 운영책임자 월평균 급여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0만원이하		8.3		10.0	5.0(4)
11-20만원				10.0	2.5(2)
21-30만원	5.0	20.8	6.3	10.0	11.3(9)
31-40만원			6.3	5.0	2.5(2)
41-50만원	15.0	29.2	75.0	10.0	30.0(24)
51-60만원		4.2	6.3	20.0	7.5(6)
61-70만원			6.3	20.0	6.3(5)
71-80만원	5.0			5.0	2.5(2)
81-90만원	5.0	8.3			3.8(3)
91-100만원	15.0	8.3			6.3(5)
100만원이상	55.0	20.8		10.0	22.5(18)
전체	100.0(20)	100.0(24)	100.0(16)	100.0(20)	100.0(80)

공부방 운영책임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급여는 '41-50만원'이 '30.0%'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이상(22.5%)', '21-30만원(11.3%)', '51-60만원(7.5%)'로 다른 액수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을 뿐 10만원이하부터 100만원이상까지 두루 분포되어 있었다. <표Ⅲ-43>에 의하면 '50만원이상'을 받는 운영책임자와 '50만원 이하'를 받는 운영책임자는 각각 50%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공부방A형'의 경우는 '80%이상'이 '70만원이상'인데 비해 '공부방C형'의 경우는 '41-50만원'이 '7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는 것에도 기인하지만 '공부방A형'의 경우는 어느 정도 자격과 경력을 감안한 호봉이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공부방의 경우는 일정한 지원금만 제공되기 때문에 '공부방C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75%이상의 공부방 운영책임자의 급

여가 '41-50만원'선에 몰려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Ⅲ-44> 운영책임자의 월평균 희망급여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0만원이하				4.8	1.6(1)
11-20만원	8.3		10.0		3.2(2)
21-30만원	16.7	5.0	10.0	4.8	7.9(5)
31-40만원		10.0			3.2(2)
41-50만원		15.0	40.0	19.0	17.5(11)
51-60만원			10.0	14.3	6.3(4)
61-70만원			20.0	14.3	7.9(5)
71-80만원		25.0		19.0	14.3(9)
81-90만원				4.8	1.6(1)
91-100만원	8.3	20.0	10.0	14.3	14.3(9)
100만원이상	66.7	25.0		4.8	22.2(14)
전체	100.0(12)	100.0(20)	100.0(10)	100.0(21)	100.0(63)

희망급여에 대해서는 63명만이 응답했는데 운영책임자들이 희망하는 급여는 '100만원이상'이 '22.2%'로 가장 많았고 '41-50만원(17.5%)', '91-100만원(14.3%)', '71-80만원(14.3%)', '61-70만원(7.9%)', '21-30만원(7.9%)', '51-60만원(6.3%)' 순으로 현재 받는 급여보다 높게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66.6%'의 운영책임자가 '51만원'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91만원 이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36.5%'정도였고 50%가 넘는 사람들이 '71만원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급여수준은 물론 이러한 희망급여 수준조차 운영책임자들의 근무시간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보수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II-45> 운영책임자의 가장 시급한 사항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안정적인 지위	22.2	15.1	28.2	7.5	17.3(26)
보수체계의 개선	55.6	37.7	35.9	55.0	44.0(66)
전문 지식의 습득	5.6	32.1	25.6	22.5	24.7(37)
기타	16.7	15.1	10.3	15.0	14.0(21)
전체	100.0(18)	100.0(53)	100.0(39)	100.0(40)	100.0(150)

운영책임자들이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보수체계의 개선’이 ‘44.0%’로 가장 많았고, ‘전문 지식의 습득(24.7%)’, ‘안정적인 지위(17.3%)’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의 공부방이 ‘보수체계의 개선’을 우선으로 꼽고 있었지만 ‘공부방A형’과 ‘공부방C형’은 ‘전문지식의 습득’보다는 ‘안정적인 지위’를 ‘공부방B형’과 ‘민간공부방’은 ‘안정적인 지위’보다는 ‘전문지식의 습득’을 두 번째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유급 상근교사

(1) 유급 상근교사의 배경(인적사항)

<표III-46> 유급 상근교사 연령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20대	22.7	50.0	18.0	30.4	32.4(57)
30대	31.8	19.0	16.0	60.9	30.7(54)
40대	9.1	13.8	28.0	4.3	14.8(26)
50대	22.7	12.1	16.0	2.2	11.9(21)
60대	9.1	5.2	10.0	2.2	6.3(11)
70대	4.5		12.0		4.0(7)
전체	100.0(22)	100.0(58)	100.0(50)	100.0(46)	100.0(176)

공부방 상근교사의 연령은 전체적으로 볼 때 '20대'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30.7%', '40대'가 '14.8%', '50대'가 '6.3%', '70대'가 '4.0%'로 운영책임자의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는 '20-30대'가 '민간공부방(92.3%)', '공부방B형(69%)', '공부방A형(54.5%)', '공부방C형(34%)' 순으로 나타났고, '40-50대'가 '공부방C형(44%)', '공부방A형(31.8%)', '공부방B형(25.9%)', '민간공부방(6.5%)' 순으로 나타났고, '60-70대'가 '공부방C형(22%)', '공부방A형(13.6%)', '공부방B형(5.2%)', '민간공부방(2.2%)' 순으로 나타나 운영책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부방C형, 공부방A형, 공부방B형, 민간공부방 순으로 상근교사의 연령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Ⅲ-47> 유급 상근교사 종사기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년	22.7	47.4	31.8	34.8	36.7(62)
2년	27.3	15.8	18.2	19.6	18.9(32)
3년	13.6	12.3	18.2	17.4	15.4(26)
4년	9.1	7.0	9.1	6.5	7.7(13)
5년	9.1	8.8	6.8	8.7	8.3(14)
6-10년	18.2	8.8	13.6	10.9	11.8(20)
11년 이상			2.3	2.2	1.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공부방 상근교사의 종사기간을 살펴보면 공부방 전체적으로는 '1년미만'이 '36.7%'로 가장 많았고, '2년(18.9%)', '3년(15.4%)', '5년(8.3%)', '4년(7.7%)' 순으로 나타나 70%이상의 상근교사들이 3년 이하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5년이상' 종사한 상근교사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운영책임자의 종사기간과 비교할 때 상근교사의 종사기간이 확실히 짧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III-48> 유급 상근교사의 성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남자	50.0	53.6	44.4	11.1	39.5(70)
여자	50.0	46.4	55.6	88.9	60.5(107)
전체	100.0(22)	100.0(56)	100.0(54)	100.0(45)	100.0(177)

운영책임자의 성별은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65.3%)가 여자(34.7%)보다 30.6%나 많은 것과는 반대로 상근교사의 경우는 여자(60.5%)가 남자(39.5%)보다 2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볼 때는 정부지원 공부방의 경우는 남녀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여자가 88.9%로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III-49> 유급 상근교사의 최종학력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중졸	4.0	1.7	13.0		4.9(9)
고졸	24.0	27.1	55.6	19.1	33.0(61)
대재	16.0	16.9	5.6	4.3	10.3(19)
대졸	56.0	47.5	25.9	68.1	47.6(88)
대학원졸		6.8		8.5	4.3(8)
전체	100.0(25)	100.0(59)	100.0(54)	100.0(47)	100.0(185)

상근교사의 학력은 공부방 전체를 놓고 볼 때, '대졸'이 '47.6%'로 가장 많았고, '고졸(33.0%)', '대재(10.3%)', '중졸(4.9%)', '대학원졸(4.3%)' 순으로 나타나 운영책임자의 학력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 보면 '공부방A형', '공부방B형', '민간공부방'은 대졸, 고졸, 대학원졸 순으로 나타났고, '공부방C형'의 경우는 '고졸', '대졸', '중졸' 순으로 나타나 운영책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공부방의 상근교사의 학력이 가장 높고, '공부방C형'의 경우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Ⅲ-50> 유급 상근교사의 종교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가톨릭	27.3	9.3	15.2	17.0	15.4(26)
개신교	31.8	29.6	23.9	68.1	39.1(66)
불교	22.7	14.8	19.6		13.0(22)
원불교		3.7	2.2		1.8(3)
종교없음	18.2	37.0	34.8	12.8	27.2(46)
기타		5.6	4.3	2.1	3.6(6)
전체	100.0(22)	100.0(54)	100.0(46)	100.0(47)	100.0(169)

공부방 상근교사의 종교도 운영책임자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공부방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 보면 ‘개신교’가 ‘39.1%’로 가장 많았고, ‘종교없음’이 ‘27.2%’, ‘가톨릭’이 ‘15.4%’, ‘불교’가 ‘13.0%’, ‘원불교’ 1.8% 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 보면 ‘공부방A형’의 경우는 ‘개신교’, ‘가톨릭’, ‘불교’, ‘종교없음’ 순이었으나 ‘공부방B형’과 ‘공부방C형’의 경우는 ‘종교없음’, ‘개신교’, ‘불교’, ‘가톨릭’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개신교’가 68.1%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가톨릭(17%)’, ‘종교없음(12.8%)’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부방C형’의 경우가 운영책임자의 종교적 배경이 가장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Ⅲ-51> 상근교사 자격증

단위 : %(개)

	공부방 A형	공부방 B형	공부방 C형	민간 공부방	전체
사회복지사 자격증	28.6	17.2	5.0	20.6	17.5(17)
교사 자격증	28.6	24.4	25.0	23.5	24.7(24)
보육교사 자격증	21.4	10.3	0.0	47.1	22.7(2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7.1	20.7	10.0	11.8	13.4(13)
기타	35.7	31.0	65.0	23.5	36.1(35)
전체	14.4(14)	29.9(29)	20.6(20)	35.1(34)	100.0(97)

공부방에서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상근교사/실무자의 자격증을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는 교사자격증이 2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22.7%,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17.5%,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13.4%로 나타났다.

이를 공부방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공부방 A형인 경우는 기타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이 각각 28.6%로 다음으로 많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나타냈으며, 보육교사 자격증 역시 21.4%로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비율은 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부방 B형인 경우는 기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기타를 제외하고는 교사자격증 24.4%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도 20.7%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17.2%, 보육교사자격증이 10.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부방 C형인 경우는 기타 자격증에 응답한 경우가 65.0%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교사자격증이 25.0%로 가장 많이 소유한 자격증이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은 다른 공부방에 비해 적게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공부방의 교사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47.1%로 교사들의 절반 정도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교사 자격증 23.5%, 사회복지사 자격증 2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1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급 상근교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료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 74개 기관만이 응답하였는데 결과를 공부방 전체적 볼 때 ‘방과후 아동지도’가 ‘35.1%’로 운영책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고, ‘독서지도(21.6%)’, ‘레크레이션(9.5%)’, ‘부모역할훈련(5.4%)’, ‘동화구연(2.7%)’ 순으로 나타났고 유형별로는 ‘민간공부방’과 ‘공부방B형’의 교사들은 ‘방과후 아동지도’수료자가 많은 반면 ‘공부방A형’과 ‘공부방C형’의 경우는 ‘독서지도’수료증을 소지한 상근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52> 유급 상근교사의 보유 수료증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방과후 아동지도	11.1	41.7	25.0	47.6	35.1(26)
독서지도	44.4	8.3	35.0	14.3	21.6(16)
논술지도				4.8	1.4(1)
동화구연		4.2		4.8	2.7(2)
레크레이션		20.8	5.0	4.8	9.5(7)
부모역할훈련		4.2	10.0	4.8	5.4(4)
기타	44.4	20.8	25.0	19.0	24.3(18)
전체	100.0(9)	100.0(24)	100.0(20)	100.0(21)	100.0(74)

(2) 유급 상근교사의 근무여건

<표Ⅲ-53> 유급 상근교사의 주당근무시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0시간이하	30.8	8.7	9.4	20.7	14.2(17)
11-20시간		6.5			2.5(3)
21-30시간		6.5	18.8	20.7	12.5(15)
31-40시간	7.7	17.4	25.0	24.1	20.0(24)
41-50시간	23.1	37.0	40.6	20.7	32.5(39)
51-60시간	23.1	10.9	6.3	10.3	10.8(13)
61-70시간	7.7	4.3			2.5(3)
71-80시간		2.2			0.8(1)
81-90시간				3.4	0.8(1)
90시간이상	7.7	6.5			3.3(4)
전체	100.0(13)	100.0(46)	100.0(32)	100.0(29)	100.0(120)

상근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전체 공부방을 대상으로 살펴 볼 때, 운영책임자의 근무시간과 마찬가지로 '41-50시간'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31-40시간(20%)', '10시간이하(14.2%)', '21-30시간(12.5%)', '51-60시

간(10.8%)’ ‘90시간이상(3.3%)’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는 ‘공부방A형’은 ‘41-60시간’에 ‘46.2%’, ‘10시간이하’에 ‘30.8%’가 몰려 있었으며, ‘공부방B형’의 경우는 ‘31-60시간’에 ‘65.3%’가 몰려 있었고, ‘공부방C형’의 경우는 ‘21-50시간’에 ‘84.4%’가 몰려 있었고,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21-50시간’에 ‘65.5%’, ‘10시간이하’에 ‘20.7%’가 밀집되어 있었다.

<표III-54> 유급 상근교사의 희망 주당 근무시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0시간이하		14.3	17.6	17.2	14.6(12)
11-20시간		7.1			2.4(2)
21-30시간		10.7	17.6	24.1	15.9(13)
31-40시간	12.5	21.4	11.8	24.1	19.5(16)
41-50시간	62.5	25.0	47.1	31.0	35.4(29)
51-60시간		10.7	5.9		4.9(4)
61-70시간	12.5			3.4	2.4(2)
71-80시간	12.5				1.2(1)
81-90시간		3.6			1.2(1)
90시간이상		7.1			2.4(2)
전체	100.0(8)	100.0(28)	100.0(17)	100.0(29)	100.0(82)

상근교사가 원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운영책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1-50시간’이 가장 많아 ‘35.4%’를 나타냈고, ‘31-40시간(19.5%)’, ‘21-30시간(15.9%)’, ‘10시간이하(14.6%)’ 순으로 85.4%의 상근교사들이 5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것은 상근교사들의 현재 근무시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공부방 유형별로 볼 때도 모든 유형의 공부방에서 ‘41-50’시간을 원하는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Ⅲ-55> 유급 상근교사의 월평균 급여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0만원이하			2.6		0.8(1)
11-20만원			2.6	9.4	3.1(4)
21-30만원	7.1	11.4	7.9	6.3	8.6(11)
31-40만원		2.3	5.3	9.4	4.7(6)
41-50만원	35.7	63.6	78.9	40.6	59.4(76)
51-60만원		2.3		18.8	5.5(7)
61-70만원	7.1	4.5	2.6	3.1	3.9(5)
71-80만원	7.1	4.5		9.4	4.7(6)
81-90만원	14.3	4.5			3.1(4)
91-100만원	14.3	6.8		3.1	4.7(6)
100만원이상	14.3				1.6(2)
전체	100.0(14)	100.0(44)	100.0(38)	100.0(32)	100.0(128)

현재 공부방 상근교사들이 받고 있는 급여의 수준은 '41-50만원'이 '59.4%'로 가장 많았고 그 이외의 수준에서는 모두 8%~0.6%사이의 낮은 비율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공부방 상근교사의 급여는 50만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다.

공부방 유형별로 볼 때도 '공부방A형'의 경우는 '61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근교사가 57.1%나 되어 다른 유형의 공부방에 비해 비교적 급여를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부방A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공부방들은 별 다른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상근교사들이 희망하는 급여는 공부방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61-70만원'이 '23.6%'로 가장 많았고 '51-60만원(19.1%)', '71-80만원(15.7%)', '41-50만원(13.5%)', '100만원이상(12.4%)' 순으로 현재 받는 급여보다 높게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표III-56> 유급 상근교사·실무자 희망 월평균 급여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0만원이하	11.1				1.1(1)
11-20만원					
21-30만원		6.5	5.3	3.3	4.5(4)
31-40만원			5.3	3.3	2.2(2)
41-50만원		19.4	21.1	6.7	13.5(12)
51-60만원		12.9	36.8	20.0	19.1(17)
61-70만원	11.1	16.1	26.3	33.3	23.6(21)
71-80만원	11.1	19.4	5.3	20.0	15.7(14)
81-90만원		3.2		3.3	2.2(2)
91-100만원	22.2	3.2		6.7	5.6(5)
100만원이상	44.4	19.4		3.3	12.4(11)
전체	100.0(9)	100.0(31)	100.0(19)	100.0(30)	100.0(89)

이를 공부방 유형별로 보면 ‘공부방A형’이 ‘91-100만원이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66.6%’, ‘61-80만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22.2%’로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최소한 61만원 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공부방A형’ 다음으로 ‘공부방B형’이 높은 수준의 급여를 원하고 있었고, ‘민간공부방’, ‘공부방C형’ 순으로 나타나 희망하는 급여 수준은 ‘공부방C형’에 근무하는 상근교사의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급여수준은 물론 이러한 희망급여 수준 역시 상근교사들의 근무시간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보수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근교사들이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공부방 전체적으로는 ‘보수체계의 개선’이 ‘50.3%’로 가장 많았고, ‘전문지식의 습득(29.5%)’, ‘안정적인 지위(14.1%)’ 순으로 나타나 운영책임자의 응답과 같은 현상을 보였다.

<표Ⅲ-57> 유급 상근교사의 시급한 문제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안정적인 지위	22.2	12.5	10.0	16.3	14.1(21)
보수체계의 개선	55.6	52.1	55.0	41.9	50.3(75)
전문 지식의 습득	11.1	27.1	32.5	37.2	29.5(44)
기타	11.1	8.3	2.5	4.7	6.0(9)
전체	100.0(18)	100.0(48)	100.0(40)	100.0(43)	100.0(149)

유형별로 볼 때도 운영책임자의 응답과 큰 차이 없이 모든 유형의 공부방이 '보수체계의 개선'을 우선으로 꼽고 있었다. 그러나 '공부방A형'이 '전문지식의 습득'보다는 '안정적인 지위'를 두 번째 순위로 꼽은 것과는 달리 '공부방B형'과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은 '안정적인 지위'보다는 '전문지식의 습득'을 두 번째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다른 유형의 공부방과는 비해 '보수체계의 개선'보다는 '전문지식의 습득'에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었다.

4) 자원봉사자 · 공공근로 교사

<표Ⅲ-58> 공공근로교사 지원 여부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지원 받음	22.6	16.1	5.4	44.2	21.4(43)
지원받지 않음	77.4	83.9	94.6	55.8	78.6(158)
전체	100.0(31)	100.0(62)	100.0(56)	100.0(52)	100.0(201)

공공근로교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 21.4%의 공부방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중 '민간공부방'은 '44.2%'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공부방C형이 도움을 거의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9> 공공근로교사 지원의 도움 정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크게 도움 됨	33.3	50.0	25.0	74.1	52.3(34)
약간 도움됨	50.0	21.4	25.0	18.5	26.2(17)
보통		21.4	16.7	7.4	10.8(7)
별로 도움 안됨	8.3		33.3		7.7(5)
전혀 도움 안됨	8.3	7.1			3.1(2)
전체	100.0(12)	100.0(14)	100.0(12)	100.0(27)	100.0(65)

공공 근로교사의 지원이 공부방 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공부방이 ‘52.3%’로 가장 많았고 ‘약간 도움이 된다’가 ‘26.2%’로 80%에 가까운 공부방들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92.5%’의 공부방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공공근로교사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60> 공공근로교사의 지원 희망여부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희망한다	75.0	76.2	54.5	94.3	74.9(149)
희망하지 않는다	17.9	15.9	34.5	5.7	18.6(37)
잘 모르겠다	7.1	7.9	10.9		6.5(13)
전체	100.0(28)	100.0(63)	100.0(55)	100.0(53)	100.0(199)

공공근로교사의 지원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서는 ‘74.9%’의 공부방이 희망한다고 응답했는데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94.3%’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부방C형’의 경우는 ‘54.5%’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공부방에 비해 적은 공부방이 공공근로교사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공공근로교사를 활용해 본 경험이 많은 공부방일수록 공공근로교사를 더 희망하고 있음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6. 청소년공부방 운영재원

공부방의 운영재원은 공부방을 가동시키는 에너지와 같아 공부방의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본 절에서는 공부방의 운영재원이 어떻게 운영재원을 조달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재원의 실태와 욕구는 어떠한 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알아보려고 한다.

1) 공부방의 운영경비

<표Ⅲ-61> 공부방의 운영경비에 대한 충족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매우 풍족하다		1.5	4.8		1.9(4)
조금 풍족하다	6.3	3.0	6.3	1.8	4.2(9)
적절하다	15.6	18.2	31.7	7.3	19.0(41)
조금 부족하다	59.4	50.0	39.7	36.4	44.9(97)
매우 부족하다	18.8	27.3	17.5	54.5	30.1(65)
전체	100.0(32)	100.0(66)	100.0(63)	100.0(55)	100.0(216)

공부방들이 운영경비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지 알아 본 결과 공부방 전체를 대상을 볼 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방이 ‘44.9%’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부족하다’가 ‘30.1%’로 나타나 전체의 75%나 되는 공부방들이 운영경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경비에 대한 충족도를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금·매우 부족하다’, ‘공부방A형(78.2%)’, ‘공부방B형(77.3%)’, ‘공부방C형(57.2%)’, ‘민간공부방(90.9%)’로 나타나 민간공부방이 운영경비가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부방C형’의 경우가 다른 공부방 유형에 비해 비교적 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표 III-62> 공부방의 일년간 사업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500만원 이하	66.7	51.9	46.7	54.5	53.9(41)
500-1000만원		14.8	40.0	27.3	21.1(16)
1000-1500만원	16.7	25.9	13.3		14.5(11)
1500-2000만원				13.6	3.9(3)
2000-2500만원	16.7	7.4		4.5	6.6(5)
전체	100.0(12)	100.0(27)	100.0(15)	100.0(22)	100.0(76)

공부방의 일년간 사업비에 대하여는 76개의 공부방이 응답하였는 데 공부방 전체적으로는 과반수가 넘는 '54.8%'의 공부방이 연간 사업비로 '500만원'이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1000만원'이 21.2%, '1000-1500만원'이 '14.5%'로 나타났다.

이를 공부방 유형별로 보면 모든 유형의 공부방들의 50%정도가 공부방의 사업비로 500만원 이하를 사용하고 있었고 '민간공부방'과 '공부방B형'의 경우 다른 공부방에 비해 비교적 많은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표 III-63> 공부방이 희망하는 일년 사업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500만원 이하	54.5	56.7	44.4	60.9	54.9(45)
500-1000만원	18.2	20.0	22.2	8.7	17.1(14)
1000-1500만원	9.1	13.3	22.2	8.7	13.4(11)
1500-2000만원			5.6	8.7	3.7(3)
2000-2500만원		3.3		4.3	2.4(2)
2500-3000만원				8.7	2.4(2)
3000만원 이상	18.2	6.7	5.6		6.1(5)
전체	100.0(11)	100.0(30)	100.0(18)	100.0(23)	100.0(82)

공부방의 일년간 희망사업비에 대하여는 82개의 공부방이 응답하였는

데 공부방 전체적으로는 현재 사용하는 사업비의 결과와 비슷하게 '54.9%'의 공부방이 연간 희망사업비로 '500만원'이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 이상의 응답 항에서는 현재의 사업비보다 조금씩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나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인지 현재의 사업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64> 공부방의 일년간 인건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500만원 이하	13.6	17.3	16.2	46.2	21.9(30)
500-1000만원	50.0	71.2	78.4	42.3	64.2(88)
1000-1500만원	4.5	3.8	5.4		3.6(5)
1500-2000만원				7.7	1.5(2)
2000-2500만원	4.5	1.9			1.5(2)
2500-3000만원		3.8		3.8	2.2(3)
3000만원 이상	27.3	1.9			5.1(7)
전체	100.0(22)	100.0(52)	100.0(37)	100.0(26)	100.0(137)

공부방의 일년간 인건비에 대하여는 137개의 공부방이 응답하였는데 공부방 전체적으로는 일년에 '500-1000만원'의 인건비를 사용하는 공부방이 '64.2%'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이하'가 '21.9%'를 차지해 86.1%에 달하는 공부방이 일년에 '1000만원 이하'의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는 공부방 유형별로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는데 '공부방A형'의 경우 '50%'의 공부방이 '500-1000만원'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하(13.6%)', '1000-1500만원'이 '4.5%', '2000-2500만원'이 '4.5%', '3000만원 이상'도 '27.3%'로 나타나 공부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부방B형'과 '공부방C형'의 경우는 '500-1000만원'이 70%가 넘었으며 '공부방A형'과는 반대로 '500만원 이하'가 '17.3%', '16.2%'로 나타나 비교적 적은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가장 인건비의 지급수준이 낮아 ‘42.3%’의 공부방이 ‘500-1000만원’, ‘46.5%’의 공부방이 ‘500만원 이하’의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65> 공부방이 희망하는 일년 인건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500만원 이하	6.3	10.0	3.2	24.0	10.7(12)
500-1000만원	6.3	50.0	54.8	40.0	42.9(48)
1000-1500만원	25.0	20.0	32.3	4.0	20.5(23)
1500-2000만원	25.0	10.0	9.7	8.0	11.6(13)
2000-2500만원				16.0	3.6(4)
2500-3000만원	6.3	5.0			2.7(3)
3000만원 이상	31.3	5.0		8.0	8.0(9)
전체	100.0(16)	100.0(40)	100.0(31)	100.0(25)	100.0(112)

공부방의 일년간 희망인건비에 대하여는 112개의 공부방이 응답 하였는 데 공부방 전체적으로는 일년에 ‘500-1000만원’의 인건비를 희망하는 공부방이 42.9%로 가장 많았고, ‘1000-1500만원’이 ‘20.5%’, ‘1500-2000만원’이 ‘11.6%’였고, ‘500만원이하’는 ‘10.7%’를 나타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건비보다 보다 나은 보수를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는 공부방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공부방A형’의 경우 현재 ‘500-1000만원’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공부방이 ‘50%’인데 반해 희망인건비의 경우는 ‘500-1000만원’을 받기를 원하는 공부방은 ‘6.3%’에 불과했고, ‘1000-1500만원’이 ‘24%’, ‘1500-2000만원’이 ‘25%’, ‘3000만원 이상’이 ‘31.3%’로 나타나 많은 공부방들이 인건비의 상승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B형’과 ‘공부방C형’의 경우는 현재의 인건비로 ‘500-1000만원’을 사용하는 공부방이 각각 ‘71.2%’와 ‘78.4%’를 차지했으나 희망인건비의 경우는 ‘500-1000만원’이 각각 ‘50%’정도이고 ‘1000-1500만원’이 ‘20%’, ‘32.3%’, ‘1500-2000만원’이 ‘10%’, ‘9.7%’로 40%정도가 ‘1000만원 이

상'을 원하는 것을 볼 때 이들 공부방 역시 많은 공부방들이 인건비의 상승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간공부방'의 경우 역시 현재 '500만원 이하'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46.2%'인데 반해 희망하는 기관이 '24%'에 불과하고 '10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는 공부방이 '11.5%'에 불과한데 비해 희망하는 공부방이 '36%'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공부방에 비해 적은 급여수준이지만 현재의 인건비보다 높은 수준의 봉급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66> 공부방의 일년간 총경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000만원 이하	9.1	13.3	18.8	44.4	20.6(26)
1000-2000만원	54.5	73.3	75.0	29.6	61.1(77)
2000-3000만원	4.5	4.4	3.1	14.8	6.3(8)
3000-4000만원		2.2		7.4	2.4(3)
4000-5000만원	4.5	2.2		3.7	2.4(3)
5000만원 이상	27.3	4.4	3.1		7.1(9)
전체	100.0(22)	100.0(45)	100.0(32)	100.0(27)	100.0(126)

공부방이 일년간 사용하는 총경비를 조사한 결과 126개의 공부방이 응답하였는데 공부방 전체적으로는 일년에 '1000-1500만원'의 경비를 사용하는 공부방이 61.1%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하'가 '20.6%', '2000-3000만원'이 '6.3%', '5000만원 이상'이 '7.1%' 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 보면 '공부방A형'의 경우 '1000-2000만원'인 공부방이 '54.5%', '5000만원 이상'이 '27.3%' 등으로 나타나 다른 경비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B형'과 '공부방C형'의 경우는 70%를 넘는 대부분의 공부방들이 '1000-2000만원'의 총경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가 '44.4%'에 이르러 비교적 열악한 편이지만 '2000-3000만원'이 '14.8%', '3000-4000만원'이 '7.4%', '4000-5000만원'이 '3.7%'로 나타나 다양한 액수

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67> 공부방이 희망하는 일년 총경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000만원 이하	12.5	3.1		26.9	9.8(10)
1000-2000만원	31.3	53.1	57.1	15.4	41.2(42)
2000-3000만원	12.5	18.8	32.1	15.4	20.6(21)
3000-4000만원	6.3	6.3		15.4	6.9(7)
4000-5000만원	6.3	12.5		3.8	5.9(6)
5000만원 이상	31.3	6.3	10.7	23.1	15.7(16)
전체	100.0(16)	100.0(32)	100.0(28)	100.0(26)	100.0(102)

공부방이 희망하는 일년 총경비에 대하여는 102개의 공부방이 응답하였는데 공부방 전체적으로는 일년에 '1000-1500만원'의 경비를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공부방이 '41.2%', '2000-3000만원'이 '20.6%', '1000만원 이하' '9.8%'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66>의 현재의 총경비와 비교할 때 많이 상향 조정된 비용임을 알 수 있다.

공부방 유형별로 보면 '공부방A형'의 경우 '1000-2000만원'인 공부방이 '31.3%', '2000-3000만원(12.5%)', '3000-4000만원(6.3%)', '3000-4000만원(6.3%)', '5000만원 이상'이 '31.3%' 등으로 나타나 다른 경비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B형'과 '공부방C형'의 경우는 70%를 넘는 공부방들이 '1000-2000만원'의 총경비를 사용하고 나머지의 대부분의 공부방이 '1000만원 이하'의 총경비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희망 총경비의 경우는 50%정도의 공부방이 '1000-2000만원'의 경비를 희망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부방이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현재의 총경비(대 희망경비)가 '1000만원 이하'가 '26.9%(44.4%)', '1000-2000만원'이 '15.4%(29.6%)', '2000-3000만원'이 '15.4%(14.8%)', '3000-4000만원'이 '15.4%(7.4%)', '4000-5000만원'이 '3.8%(3.7%)', '5000만원 이상' '23.1%'로

나타나 공부방 유형에 관계없이 총경비가 많이 증액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부방의 운영재원 조성현황

<표Ⅲ-68> 정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 여부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받고 있음	100.0	100.0	100.0	17.0	79.1(167)
받고 있지 않음				83.0	20.9(44)
전체	100.0(31)	100.0(68)	100.0(59)	100.0(53)	100.0(211)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아 본 결과 응답한 공부방의 '79.1%'가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A, B, C형은 모두 정부지원공부방이므로 당연히 100%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민간공부방도 17%가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로부터 일년간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이에 127개의 공부방이 응답하였다. 공부방 전체적으로 볼 때 '1000-15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공부방이 '63%'로 가장 많았으며 '500-1000만원'을 지원 받는 공부방이 '15.8%'로 80%에 가까운 공부방들이 500-1500만원 정도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공부방 유형별로 보면 '1000-15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공부방C형(71.4%)', '공부방B형(63.2%)', '공부방A형(54.5%)', '민간공부방(33.3%)' 순으로 나타나고 '공부방A형'의 경우는 1500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 공부방이 36.3%, '공부방B형, C형'의 경우는 '1000만원'이하를 받는 공부방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가 50%를 넘는 결과를 나타내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공부방A형'의 경우가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민간공부방’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III-69> 공부방이 일년간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500만원 이하	9.1	8.8	7.1	16.7	8.7(11)
500-1000만원		19.3	16.7	33.3	15.8(20)
1000-1500만원	54.5	63.2	71.4	33.3	63.0(80)
1500-2000만원	4.5				0.86(1)
2000-2500만원			2.4		0.8(1)
2500-3000만원	4.5	1.7			1.6(2)
3500-4000만원		1.7		16.7	1.6(2)
4000만원 이상		1.7			0.8(1)
1억 이상	27.3	3.5	2.4		6.3(8)
전체	100.0(22)	100.0(57)	100.0(42)	100.0(6)	100.0(127)

공부방들이 청소년이나 부모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있는 지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74.5%’의 공부방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25.5%’의 공부방이 회비를 받고 있었는데 이중 일정액을 받고 있는 공부방은 ‘15.6%’, ‘차등제’로 받고 있는 공부방은 ‘9.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III-70> 공부방 회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무료	51.7	87.0	98.4	42.3	74.5(158)
일정액	48.3	11.6	1.6	19.2	15.6(33)
차등제		1.4		38.5	9.9(21)
전체	100.0(29)	100.0(69)	100.0(62)	100.0(52)	100.0(212)

공부방 유형별로 보면 ‘공부방C형’은 ‘98.4%’로 다른 유형의 공부방에 비해 가장 많은 공부방이 ‘무료’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부방B

형'(87%), '공부방A형'(51.7%), '민간공부방(42.3%)'순으로 회비를 받는 공부방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일정액의 회비를 받고 있는 경우 열람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의 경우는 '하루 300-500원'을 받고 있었으며, 학습지도나 특별활동, 특기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부방의 경우, 특히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10,000-30,000정도'의 월 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 회비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정의 청소년 일 경우는 면제해 주고 있었다.

차등제의 경우는 가정경제에 따라 '무료', '1-2만원', '3-4만원', '5만원' 등으로 차등을 두어 회비를 받고 있었다. 또는 '개인(3만원)', '형제자매(2만5천원)', '결손가정(2만원)' 등으로 차등을 두는 기관도 있었다.

<표III-71> 공부방 회비에 대한 태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일정액을 받아야 한다	51.7	22.2	17.0	26.5	26.3(51)
차등제로 받아야 한다	10.3	11.1	3.8	40.8	16.5(32)
받지 말아야 한다	37.9	66.7	79.2	32.7	57.2(1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194)

공부방의 회비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공부방 전체적으로는 '57.2%'가 '받지 말아야 된다'고 응답했으며, '36.3%'가 '일정액을 받아야 한다', '16.5%'가 '차등제로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부방 유형별로 보면 '공부방C형'의 경우는 '79.2%'의 공부방이 회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하여 회비를 받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이 반대하고 있었으며 '민간공부방'의 경우에는 '32.7%'만이 회비를 받는 것에 반대하고 있었고 '40.8%'가 차등제로 받을 것을, '26.5%'가 일정액을 받을 것을 원하고 있어 회비를 받을 것을 대해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일정액의 회비를 받을 경우 그 액수에 대해서는 '월 3,000원', '5,000

원, '9,000원', '12,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 '30,000원' 등이 있었으며, 차등제의 경우 '빈곤·결손 가정의 경우는 무료', '프로그램시만 유료', '컴퓨터가 있을 경우에는 최저실비를 받아야 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표III-72> 지역주민의 지원현황

단위 : %(개)

	공부방 A형	공부방 B형	공부방 C형	민간공부방	전체
주·부식 지원	14.3	7.5	3.2	42.6	16.0(34)
피복지원	7.1	3.0	0.0	11.1	4.7(10)
학용품·도서지원	17.9	20.9	19.0	16.7	18.9(40)
건물관리 협조	7.1	16.4	22.2	9.3	15.1(32)
장학금 지원	7.1	10.4	0.0	3.7	5.2(11)
기타	3.6	1.5	3.2	11.1	4.7(10)
도움받지 않음	71.4	61.2	65.1	46.3	59.9(127)
전체	13.2(28)	31.6(67)	29.7(63)	25.5(54)	100.0(212)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들이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있는 대로 응답하게 한 결과,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가 '59.9%'로 반 이상이 지역사회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는 '학용품·도서지원(16.9%)', '주부식 지원(16.0%)', '건물관리 협조(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부방 유형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면, '공부방 A형'인 경우는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가 '71.4%'로 다른 공부방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도움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학용품·도서지원'이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주·부식 지원'이 '14.3%'로 높게 나타났다. '공부방 B형'인 경우 역시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가 '6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도움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학용품·도서지원'이 '20.9%'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공부방 C형’인 경우도 ‘지원 받지 않는’ 경우가 ‘65.1%’로 매우 높은 비율이었으며, 도움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공부방과는 다소 다르게 ‘건물관리 협조(22.2%)’를 도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간 공부방’인 경우는 다른 공부방에 비해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가 ‘46.3%’로 적게 나타나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가장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움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부식 지원’이 ‘42.6%’로 역시 다른 공부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학용품·도서지원’은 ‘16.7%’, ‘피복지원’은 ‘11.1%’로 나타났다.

<표III-73> 행정기관의 지원현황

단위 : %(개)

	공부방 A형	공부방 B형	공부방 C형	민간공부방	전체
금전 및 물품지원	83.3	75.8	78.3	28.9	68.6(133)
시설지원	70.0	37.9	38.3	7.9	37.1(72)
운영인력지원	30.0	6.1	6.7	47.4	18.0(35)
프로그램지원	10.0	13.6	10.0	0.0	9.3(18)
이용자알선 및 관리	6.7	6.1	6.7	0.0	5.2(10)
행정적 지원	33.3	30.0	56.7	0.0	33.0(64)
기타	3.3	7.6	8.3	36.8	12.9(25)
전체	15.5(30)	34.0(66)	30.9(60)	19.6(38)	100.0(194)

공부방이 일선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전체적으로 ‘금전 및 물품 지원(66.6%)’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시설지원(37.1%)’, ‘행정적 지원(33.0%)’의 순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지원(9.3%)’, ‘이용자 알선 및 관리(5.2%)’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공부방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공부방 A형’인 경우는 ‘금전 지원(83.3%)’, ‘시설지원(70.0%)’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행정적 지원(33.3%)’, ‘운영인력지원(30.0%)’ 순이었다. 그 외에 ‘프로그램지원’, ‘이

용자 알선 및 관리 지원'은 낮게 나타났다. '공부방 B형'인 경우 역시 '금전 및 물품지원(75.8%)'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었으며, '시설지원(37.9%)'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공부방 A형'에 비해서는 적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정적 지원 역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이용자 알선 및 관리,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은 낮게 나타났다. '공부방 C형' 역시 B형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금전 및 물품지원'이 '78.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행정적 지원'이 '56.7%'로 다른 공부방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설지원'은 '38.3%'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앞의 공부방의 유형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금전 및 물품지원'이 '28.9%'에 미치고 있어 다른 공부방에 비해 금전적인 지원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운영인력지원'은 '4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행정적 지원', '프로그램지원', '이용자 알선 및 관리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II-74> 정부로부터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원 부분

단위 : %(개)

	공부방 A형	공부방 B형	공부방 C형	민간공부방	전체
공부방 시설 제공	13.3	27.3	39.7	44.4	33.2(69)
공부방 시설 중·개축	36.7	42.4	25.9	22.2	31.7(66)
공부방 관리·유지·보수	63.3	66.7	65.5	38.9	58.7(122)
교사 인건비	66.7	65.	56.9	79.6	66.8(139)
프로그램 운영비	63.3	56.1	56.9	83.3	64.4(134)
교사 교육훈련비	26.7	24.2	29.3	24.1	26.0(54)
기타	6.7	6.1	10.3	5.6	7.2(15)
전체	14.4(30)	31.7(66)	27.9(58)	26.0(54)	100.0(208)

공부방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알아본 결과, '교사

인건비'가 '66.6%', '프로그램 운영비'가 '64.4%'로 높은 지원희망 분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공부방 관리·유지·보수'에 대한 지원희망이 '58.7%', '공부방 시설제공'이 '33.2%', '공부방 시설 중·개축'이 '3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교육 훈련비'에 대한 지원이 '2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부방 A형'인 경우는 '교사 인건비(66.7%)', '공부방 관리·유지·보수(63.3%)', '프로그램 운영비(63.3%)'가 정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원분야로 밝혀졌다. 한편, '공부방 시설제공(13.3%)'은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공부방 B형'인 경우는 '공부방 관리·유지·보수(66.7%)', '교사 인건비(65.2%)'를 가장 지원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운영비(56.1%)', '공부방 시설 중·개축(4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교육훈련비', '공부방 시설제공'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공부방 C형'인 경우는 역시 비슷하게 '공부방 관리·유지·보수(65.5%)'에 대한 지원을 가장 많이 바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교사 인건비(56.92%)', '프로그램 운영비(56.9%)'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비(83.%)', '교사 인건비(79.6%)'가 가장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로 나타났으며, '공부방 시설제공(44.4%)', '공부방 관리·유지·보수(38.9%)'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민간 공부방의 경우 다른 공부방 유형에 비해 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교사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III-75> 공부방의 주요 후원자

단위 : %(개)

	공부방 A형	공부방 B형	공부방 C형	민간공부방	전체
운영자가 속한 종교의 신자들	50.0	34.6	14.3	73.1	50.5(56)
지역주민	25.0	50.0	28.6	25.0	31.5(35)
운영자의 개별 후원자	66.7	57.7	38.1	69.2	60.4(67)
기타	50.0	30.8	57.1	25.0	35.1(39)
전체	10.8(12)	23.4(26)	18.9(21)	46.8(52)	100.0(111)

공부방이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 모두 응답하게 하여 알아본 결과, 민간공부방 52개 기관을 포함해 111개의 공부방이 응답했는데 ‘운영책임자의 개별후원자’인 경우가 ‘60.4%’, ‘운영 책임자가 속한 종교의 신자’인 경우가 ‘50.5%’로 절반 이상임을 알 수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받는 경우는 ‘31.5%’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부방 A형’인 경우 ‘운영자의 개별 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66.7%)’가 가장 많았으며, 또한 ‘운영자가 속한 종교의 신자(50.0%)’, ‘기타(50.0%)’ 순이고, ‘지역주민에게 받는 경우(25.0%)’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부방 B형’인 경우는 ‘운영자의 개별 후원자(57.7%)’, ‘지역주민(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공부방에 비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부방 C형’인 경우는 ‘기타(57.1%)’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운영자의 개별 후원자(38.1%)’가 다음 순이고, ‘지역주민’에게 받는 경우가 ‘28.6%’로 나타나 다른 공부방에 비해 후원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민간공부방’의 경우 ‘운영자가 속한 종교의 신자들(73.1%)’로부터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운영자의 개별후원자(69.2%)’에게 받는 비율도 높았으며, ‘지역주민(25%)’에게 후원금을 받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Ⅲ-76> 후원금 조성방법

단위 : %(개)

	공부방 A형	공부방 B형	공부방 C형	민간공부방	전체
후원회 결성	25.0	41.7	33.3	28.6	32.9(25)
안내문 작성·배포	62.5	41.7	44.4	68.6	56.6(43)
바자회 등의 행사	37.5	33.3	11.1	45.7	36.8(28)
방문활동	37.5	4.2	11.1	11.4	11.8(9)
전체	10.5(8)	31.6(24)	11.8(9)	46.1(35)	100.0(76)

후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공부방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지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민간공부방 35개 기관을 포함해 76개의 공부방이 응답했는데 전체적으로 '후원금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작성·배포'하는 경우가 '56.6%'로 절반 이상 해당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바자회 등 행사'를 통한 후원금 조성이 '36.8%', '후원회'를 통한 경우가 '32.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문활동'을 통한 후원금 조성의 비율은 '11.8%'로 나타나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를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공부방 A형'인 경우 '안내문을 작성·배포하는 것'으로 후원금을 모으는 경우가 '6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바자회와 같은 행사'를 통한 후원금 결성과 '방문활동'이 각각 '37.5%'로 나타났으며, '후원회'를 통한 경우가 '2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부방 B형'인 경우 '후원회'와 '안내문·작성 배포'를 통한 후원금 결성이 각각 '4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바자회와 같은 행사'를 하는 경우가 '33.3%'로 나타났고, '방문활동'은 '4.2%'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부방 C형'의 경우는 '안내문 작성·배포'를 통한 후원금 모금이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후원회'를 통한 경우가 '33.3%'로 나타났고, '바자회와 같은 행사'나 '방문활동'은 각각 '11.1%'로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후원금 조성을 위해 안내문을 작성·배포'하는 경우가 '68.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바자회와 같은 행

사'를 통한 경우가 '45.7%'로 다음 순이었으며, '후원회 결성'을 통한 방식은 '28.6%', '방문활동'은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7. 청소년공부방 프로그램 운영현황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공부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장차 공부방에서 실시하기를 희망하거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함께 연계해 실시하기를 원하는 기관들에 관해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표 III-77> 현재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학습지도	50.0	82.1	74.6	94.5	78.4(167)
학습공간제공	90.6	88.1	78.0	12.7	66.2(141)
진로지도	18.8	19.4	32.2	9.1	20.2(43)
상담서비스	59.4	68.7	62.7	40.0	58.2(124)
생활예절교육	12.5	17.9	33.9	40.0	27.2(58)
도설열람 및 대출	81.3	64.2	74.6	12.7	56.3(120)
야간공부방운영	78.1	52.2	78.0	9.1	52.1(111)
컴퓨터교육	6.3	10.4	5.1	23.6	11.7(25)
특기교육	6.3	3.0	0.0	29.1	9.4(20)
인터넷정보서비스	15.6	10.4	1.7	7.3	8.0(17)
문화활동	6.3	28.4	0.0	54.5	23.9(51)
체육활동	6.3	7.5	1.7	12.7	7.0(15)
성교육	3.1	1.5	1.7	7.3	3.3(7)
약물남용예방교육	0.0	1.5	1.7	0.0	0.9(2)
급식지원	12.5	7.5	5.1	45.5	17.4(37)
종교교육	0.0	0.0	0.0	30.9	8.0(17)
가족서비스	3.1	4.5	0.0	9.1	4.2(9)
사회성교육	0.0	3.0	6.8	34.5	11.7(25)
기타	6.3	6.0	3.4	10.9	6.6(14)
전체	15.0(32)	31.5(67)	27.7(59)	25.8(55)	100.0(213)

공부방들이 청소년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학습지도’가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습공간제공(열람실)’이 66.2%, ‘상담서비스’가 58.2%, ‘도서 열람 및 대출’이 56.3%, ‘야간공부방 운영’이 52.1%로 나타나 대부분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시하는 프로그램은 ‘진로지도(20.2%)’, ‘생활예절(27.2%)’, ‘문화활동(23.9%)’, ‘급식지원(17.4%)’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특기교육(9.4%)’, ‘인터넷정보서비스(8.0%)’, ‘체육활동(7.0%)’, ‘성교육(3.3%)’, ‘약물남용(0.9%)’, ‘종교교육(8.0%)’, ‘가족서비스(4.2%)’ 등의 프로그램들은 10%미만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부방A형’의 경우, ‘학습공간 제공’이 90.6%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도서열람 및 대출(81.3%)’, ‘야간공부방 운영(78.1%)’, ‘상담서비스(59.4%)’, ‘학습지도(50.0%)’의 순으로 나타나 역시 학습위주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부방B형’의 경우 역시 ‘학습공간 제공’이 88.1%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습지도(82.1%)’, ‘상담서비스(68.7%)’, ‘도서 열람 및 대출(64.2%)’, ‘야간 공부방 운영(5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방C형’의 경우, ‘학습공간 제공(78.0%)’, ‘야간공부방 운영(78.0%)’, ‘학습지도(74.6%)’, ‘도서열람 및 대출(74.6%)’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담서비스’가 62.7%로 나타났다.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학습지도’가 9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담서비스’가 40.0%를 차지했고, 다른 공부방과 달리, ‘문화활동(54.5%)’, ‘급식지원(45.5%)’, ‘생활예절 교육(40.0%)’의 프로그램이 더 많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8>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학습지도	40.7	66.7	50.0	66.7	59.0(115)
학습공간제공	44.4	47.0	43.8	31.5	41.5(81)
진로지도	33.3	21.2	22.9	9.3	20.0(39)
상담서비스	40.7	43.9	43.8	44.4	43.6(85)
생활예절교육	18.5	16.7	29.2	27.8	23.1(45)
도설열람 및 대출	33.3	33.3	50.0	13.0	31.8(62)
야간공부방운영	22.2	33.3	31.3	11.1	25.1(49)
컴퓨터교육	48.1	42.4	47.9	31.5	41.5(81)
특기교육	18.5	18.2	10.4	31.5	20.0(39)
인터넷정보서비스	70.4	53.0	37.5	25.9	44.1(86)
문화활동	25.9	40.9	22.9	59.3	39.5(77)
체육활동	7.4	3.0	8.3	7.4	6.2(12)
성교육	7.4	9.1	12.5	14.8	11.3(22)
약물남용예방교육	14.8	4.5	10.4	0.0	6.2(12)
급식지원	18.5	18.2	20.8	42.6	25.6(50)
종교교육	0.0	0.0	21.	13.0	4.1(8)
가족서비스	7.4	9.1	2.1	29.6	12.8(25)
사회성교육	22.2	21.2	20.8	27.8	23.1(45)
기타	11.1	3.0	4.2	5.6	5.1(10)
전체	13.8(27)	33.8(66)	24.6(48)	27.7(54)	100.0(195)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해 공부방에서 실시하기를 희망하거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학습지도(59.0%)'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인터넷정보서비스(44.1)', '상담서비스(43.6%)', '야간공부방운영(4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교육, 약물남용 예방, 체육활동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를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부방 A형'의 경우 '인터넷정보서비스(70.4%)'가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컴퓨터교육(48.1%)', '학습공간제공(44.4%)', '상담서비스(40.7%)', '학습지도(40.7%)'의

순으로 나타나 인터넷 등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B형'의 경우 '학습지도(66.7%)'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인터넷정보서비스(53.0%)'가 차지했다. 또한 '학습공간제공(47.0%)', '상담서비스(43.9%)', '컴퓨터교육(42.4%)', '문화활동(40.9%)'으로 나타나 '공부방A형'이 인터넷정보서비스, 컴퓨터교육, 학습공간제공, 상담서비스를 공부방에서 실시해야 할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공부방B형'은 학습지도가 우선하고 문화활동을 중시한 점에서 차이를 볼 수 있으나 다른 활동에서는 '공부방A형'과 유사한 현상을 보였다. '공부방C형'의 경우 '학습지도(50.0%)', '도서 열람 및 대출(50.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컴퓨터 교육(47.9%)', '학습공간 제공(43.8%)', '상담서비스(43.8%)'의 순이었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37.5%)'가 그 다음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민간공부방'의 경우 '학습지도(6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문화활동(59.3%)'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부방B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른 유형의 공부방과 달리 '급식지원'의 분야에서 '42.6%'나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공간 제공(31.5%)', '컴퓨터 교육(31.5%)'은 비슷한 수준이다.

<표Ⅲ-79> 희망하는 자원봉사 분야

단위 : %(개)

	공부방 A형	공부방 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학습지도	73.8	70.8	70.4	59.0	68.6(94)
상담서비스	47.8	33.3	51.9	17.9	35.0(48)
특기지도	17.4	52.1	25.9	59.0	43.1(59)
문화,여가활동	21.7	22.9	22.2	43.6	28.5(39)
체육활동	0.0	6.3	3.7	5.1	4.4(6)
급식 등 노력봉사	17.4	12.5	18.5	15.4	15.3(21)
기타	13.0	0.0	3.7	0.0	2.9(4)
전체	16.8(23)	35.0(48)	19.7(27)	28.5(39)	100.0(137)

공부방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바라는 봉사 분야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학습지도'가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특기지도'가 '43.1%', '상담서비스'가 '35.0%', '문화여가활동'이 '28.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급식등 노력봉사'는 '15.3%', '예술활동'은 '4.4%'로 가장 낮은 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공부방A형'인 경우 역시 '학습지도'가 '7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상담서비스'가 '47.8%'로 높게 나타났고, '체육활동'은 '0.0%'로 자원봉사 분야로 희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공부방B형'의 경우 역시 '학습지도'가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특기지도'가 '52.1%'를 차지했으며, '상담서비스'는 '33.3%'를 차지하였고, '체육활동'이 '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부방C형'의 경우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학습지도'가 '70.4%'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상담서비스'가 '51.9%'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기지도', '문화여가활동'은 각각 '25.9%', '22.2%'의 순으로 나타났고, 역시 '체육활동'이 '3.7%'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다른 공부방과 약간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학습지도', '특기지도'가 각각 '5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습지도가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다른 공부방의 유형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여가활동'이 '43.6%'로 나타나 역시 다른 공부방의 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III-80> 지역 내 연계 프로그램 유무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있다	24.0	31.7	7.8	56.9	31.0(58)
없다	76.0	68.3	92.2	43.1	69.0(129)
전체	100.0(25)	100.0(60)	100.0(51)	100.0(51)	100.0(187)

지역사회에서 다른 공부방이나 복지관, 청소년기관·단체 등 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지 알아 본 결과 전체 공부방을 대상으로 볼 때 '31%'의 공부방만이 '있다'는 응답을 했다.

공부방 유형별로는 '민간공부방'이 '56.9%'로 가장 많이 타 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공부방B형(31.7%)', '공부방A형(24%)', '공부방C형(7.8%)' 순으로 지역사회 내의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공부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들이 응답한 타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문화활동(구청사회복지과), 의료서비스(관악주민연대), 동아리활동(복지관), 상담교육, 집단상담(청소년 상담실), 문화제(구청사회복지과), 연합캠프, 특활교육, 체육대회, 문화활동, 심성개발훈련, 역사기행, 성탄제, 어린이날 행사(공부방협의회, 타 공부방), 연극교실(극단, 공부방연합회), 교사연수·교육(부스리기 선교회, 공부방협의회), 사회성교육(사회복지관), 도서교환, 이동도서운영(새마을문고, 새마을지회), 자원봉사활동 지도(청소년센터, 자원봉사센터, 복지관, YMCA, 장애인복지관),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복지관), 독서감상문 대회(복지관), 가족캠프(한국걸스카우트), 인성지도(한국인성개발연구원), MBTI, 진로지도(한국심리검사연구소), 검정고시 준비반(YMCA, 쉼터), 수영(룸비니 수영장, 지역공부방연합회), 과학교실(과학교실 : 창의와 탐구), 풍물교실(부천시민연합 문화공간), 약물남용예방교육(마약퇴치운동본부), 한문, 예절교육(노인회, 향교, 구청), 적성검사(구로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교육(삼성SDS, 경찰서 전투경찰), 생태기행(가톨릭환경연대), 청소년 성교육(여성상담센터), 우리소리 배우기, 종이접기(신나는 공부방), 음악감상, 체력단련(산곡 1동 청소년문화의집), 컴퓨터게임 외(산곡1동 청소년PC방, 타 공부방), 진학진로 및 후원(평택시민아카데미), 음식나눔(평택시 푸드뱅크), 학교 CA프로그램(성동구 관내 5개 중학교), 성교육(아.우.성, 내일신문, 결연(복지관).

장차 지역 내에서 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활동으로

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볼 수 있었다.

C.A.활동(남녀 중고교), 문화시설 활용(구민회관), 논술지도(시립도서관), 학습지도(교육청), 생활예절교육(문화원), 문화활동과 각종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청소년수련원), 성교육, 영화상영(사회복지관), 문화활동(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연대), 체육활동(복지관), 교육프로그램(관내 타 공부방), 어린이 기자교육(굴렁쇠), 환경교육프로그램(환경운동 연합), 학습동아리(초중고교), 컴퓨터교육(삼보컴퓨터), 성교육(보건소), 진로지도(교육청), 상담, 성격검사, 진로지도 등(청소년상담실), 예절교육(복지회관), 캠프(성북구립 7개 독서실), 방학을 이용 학습강의(대학생), 유적지 답사(YMCA), 특기교육, 인터넷 정보, 급식지원, 상담서비스, 학습지도(종합사회복지관), 연극, 영화감상(영화관), 글쓰기(사회복지관), 직업훈련교육(교육기관), 봉사 및 문화활동(대학동아리), 청소년 심리극(청소년상담실), 문화탐방 프로그램(학교), 도서관이용(경북도립 도서관), 건강관리(적십자 병원), 음식나누기(Food Bank), 특기교육(지역대학생동아리), 사회성 교육(홍사단), 급식사업(난곡지역단체협의회), 연합캠프, 심성훈련, 문화제(서울지역공부방협의회), 청소년캠프(구로종합사회복지관), 상담서비스(YMCA), 약물남용예방교육(약사회), 체육활동 및 레크레이션(타 공부방), 참고서, 학습지(학교), 컴퓨터지도, 인터넷교육(컴퓨터 교육센터, 컴퓨터학원, 지역대학), 도서관기부(새마을 문고), 클럽활동, 봉사활동(청소년단체), 성교육(여성의 전화), 집단상담프로그램(청소년상담실), 수영교실(사회복지시설), 스케이트교실(드림랜드), 학교사회사업, 집단활동/친구사귀기(망원, 동교, 성산초등학교), 자아실현, 부모역할훈련 등(종합사회복지관), 학습지도봉사(군기관), 문예활동(호서대학), 수영이나 특기활동(청소년수련관), 체육프로그램(체육센터), 대상자 발굴(초중고교, 구청, 동사무소), 영상교육(청소년수련관).

<표Ⅲ-81> 저소득층 지역 청소년공부방 프로그램의 지향점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학습 및 숙제지도를 통한 학습능력 향상	28.6	20.3	33.9	10.9	22.7(46)
문화·여가활동·안전 보호·급식·생활지도를 통한 인성발달	25.0	34.4	14.3	30.9	26.6(54)
학습능력 향상과 인성 발달을 병행	46.4	43.8	44.6	58.2	48.3(98)
기타		1.6	7.1		2.5(5)
전체	100.0(28)	100.0(64)	100.0(56)	100.0(55)	100.0(203)

저소득층 지역의 청소년공부방이 어느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공부방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48.3%'의 공부방이 '학습능력 향상과 인성발달을 병행하여'라고 응답했으며, '26.6%'가 '문화, 여가활동, 안전지도, 급식,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발달'로, '22.7%'가 '학습 및 숙제지도를 통한 학습능력 향상'이라고 응답했다.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공부방 유형에서 '학습능력 향상과 인성발달을 병행하여'지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공부방B형'과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문화, 여가활동, 안전지도, 급식,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발달'을 더 많이 '공부방A형'과 '공부방C형'의 경우는 '학습 및 숙제지도를 통한 학습능력 향상'을 더 중시하여 공부방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여 공부방C형, 공부방A형, 공부방B형, 민간공부방 순으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중심의 공부방운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청소년공부방 지역사회 협력체계

공부방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행정기관, 교육기관, 타 공부방,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1) 지역주민과의 관계

<표III-82> 공부방에 대한 지역 주민의 태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많은 도움을 준다	16.1	10.3	9.5	16.4	12.4(27)
약간의 도움을 준다	6.5	16.2	12.7	18.2	14.3(31)
도움을 주지 않으나 호감을 가지고 있다	64.5	61.8	55.6	58.2	59.4(129)
협오시설로 취급해 접촉을 기피한다			1.6		0.5(1)
관심이 없다	12.9	11.8	19.0	3.6	12.0(26)
잘 모르고 있다			1.6	3.6	1.4(3)
전체	100.0(31)	100.0(68)	100.0(63)	100.0(55)	100.0(217)

공부방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의 태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전체 공부방을 대상으로 살펴 볼 때 '도움을 주지 않으나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59.4%'로 가장 많았고, '공부방에 대해 약간 도움을 주는 편이다' '14.3%', '많은 도움을 준다'가 '12.5%', '관심이 없다'가 '12%', '협오시설로 취급하여 접촉을 기피한다'가 '0.5%'로 나타나 '86.1%'의 공부방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부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볼 때 '관심이 없다', '잘 모르고 있다', '협오시설로 취급하

여 접촉을 기피한다' 등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공부방C형(22.5%)', '공부방A형(12.9%)', '공부방B형(11.8%)', '민간공부방(7.2%)' 순으로 나타나 '민간공부방'이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공부방C형이 가장 지역주민으로부터 가장 낮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타 공부방과의 관계

<표Ⅲ-83> 타 공부방과의 협력체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있다	32.1	42.9	8.9	68.5	38.8(78)
없다	67.9	57.1	91.1	31.5	61.2(123)
전체	100.0(28)	100.0(63)	100.0(56)	100.0(54)	100.0(201)

다른 공부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 전체 공부방의 '38.8%'가 '구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형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공부방'이 '68.5%'로 가장 많이 타 공부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공부방B형(42.9%)', '공부방A형(32.1%)', '공부방C형(8.9%)' 순으로 지역사회 내의 다른 공부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타 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황"에 관한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타 공부방과 일년간 몇 번의 모임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74개의 공부방이 응답했는데 응답결과는 '9회 이상'이 '31.3%'로 가장 많았으며 '6회(17.6%)', '1회(14.9%)', '4회(10.8%)', '2회(9.5%)', '5회(8.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84> 타 공부방과의 연간 모임 회수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1회	12.5	11.5	22.2	16.1	14.9(11)
2회		15.4	22.2	3.2	9.5(7)
3회		7.7	11.1	3.2	5.4(4)
4회	25.0	11.5		9.7	10.8(8)
5회		7.7	33.3	3.2	8.1(6)
6회	25.0	15.4	11.1	19.4	17.6(13)
7회				3.2	1.4(1)
8회	12.5				1.4(1)
9회이상	25.0	30.8		41.9	31.1(23)
전체	100.0(8)	100.0(26)	100.0(9)	100.0(31)	100.0(74)

공부방 유형별로 응답한 공부방의 수는 ‘민간공부방(21개)’, ‘공부방B형(26개)’, ‘공부방C형(9개)’, ‘공부방A형(8개)’ 순이었으며, 응답결과는 ‘9회 이상’이 ‘민간공부방(41.9%)’, ‘공부방B형(30.8%)’, ‘공부방A형(25%)’ 순이었고, ‘5회 이상’을 합산해 보면 ‘민간공부방(67.7%)’, ‘공부방A형(62.5%)’, ‘공부방B형(53.9%)’, ‘공부방C형(44.4%)’로 나타나 민간공부방이 타공부방과의 연계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공부방C형이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행정기관과의 관계

<표 III-85> 행정기관과의 접촉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만난 적이 없다		7.7	6.7	45.3	15.7(33)
만난다	100.0	92.3	93.3	54.7	84.3(17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210)

일선 행정기관과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자주 만나는가에 대해

‘84.3%’의 공부방이 ‘만난다’고 응답했는데 공부방 유형별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공부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부방들이 행정기관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86> 공부방에 대한 행정기관의 태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0.0	25.4	34.9	1.9	25.9(56)
지원을 해주는 편이다	37.5	55.2	49.2	44.4	48.1(104)
정리를 권고한다		3.0			0.9(2)
전혀 관심이 없다	12.5	16.0	15.9	53.7	25.0(54)
전체	100(32)	100(67)	100(63)	100(54)	100(216)

공부방에 대한 행정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공부방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지원을 해주는 편이다’가 ‘48.1%’로 가장 많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가 ‘25.9%’, ‘전혀 관심이 없다’가 ‘25%’순으로 나타나 ‘75%’의 공부방들이 행정기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공부방유형별로는 ‘전혀 관심이 없다’와 ‘정리를 권고한다’에 ‘민간공부방(53.7%)’, ‘공부방B형(19%)’, ‘공부방C형(15.9%)’, ‘공부방A형(12.5%)’로 응답하여 민간공부방과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가장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학부모와의 관계

공부방들이 청소년의 보호자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아 본 결과 전체 공부방의 ‘40.2%’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저 그런 관계(29.7%)’, ‘별 관계없음(14.8%)’, ‘매우 긴밀한 관계(9.6%)’, ‘아무 관계없음(5.7%)’ 순으로 응답해 50%정도의 공부방이 학부모들과 긴

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20%정도의 공부방이 학부모들과 별 접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II-87> 학부모와의 긴밀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매우 긴밀한 관계	3.1	7.8	6.8	18.5	9.6(20)
긴밀한 관계	40.6	35.9	30.5	55.6	40.2(84)
그저 그런 관계	25.0	28.1	39.0	24.1	29.7(62)
별 관계 없음	25.0	21.9	15.3		14.8(31)
아무 관계 없음	6.3	6.3	8.5	1.9	5.7(12)
전체	100.0(32)	100.0(64)	100.0(59)	100.0(54)	100.0(209)

학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부방이 많은 공부방 유형 순으로 정리해 보면 ‘민간공부방(74.1%)’, ‘공부방B형(43.7%)’, ‘공부방A형(43.7%)’, ‘공부방C형(37.3%)’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민간공부방이 다른 유형의 공부방에 비해 학부모들과의 연계가 잘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III-88> 학부모회의 유무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있다	15.6	13.2	8.2	38.9	18.6(40)
없다	84.4	86.8	91.8	61.1	81.4(17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215)

학부모회를 갖고 있는 공부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본 결과 공부방 전체의 ‘18.6%’만이 ‘학부모회’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부방 유형별로는 ‘민간공부방’이 ‘38.9%’로 가장 많았고, ‘공부방A형(15.6%)’, ‘공부방B형(13.2%)’, ‘공부방C형(8.2%)’ 순으로 나타났다.

5) 학교교사와의 관계

<표Ⅲ-89> 지역 내 학교교사와의 협력 관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있다	55.2	52.4	44.1	59.3	52.2(107)
없다	44.8	47.6	55.9	40.7	47.8(98)
전체	100.0(29)	100.0(63)	100.0(59)	100.0(54)	100.0(205)

공부방이 지역 내의 학교교사와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가 알아 본 결과 '52.2%'의 공부방들이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정도의 공부방이 교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공부방 유형별로 보면 '민간공부방(59.3%)', '공부방A형(55.2%)', '공부방B형(52.4%)', '공부방C형(44.1%)'순으로 민간공부방이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의 교사와 가장 많이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부방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Ⅲ-90> 학교교사들의 공부방에 대한 태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많은 도움을 준다	13.6	11.1	7.0	8.1	9.5(14)
약간의 도움을 준다	22.7	17.8	25.6	13.5	19.7(29)
도움을 주지 않으나 호감을 갖고 있다	59.1	51.1	41.9	59.5	51.7(76)
관심이 없다		11.1	14.0	10.8	10.2(15)
잘 모르고 있다	4.5	8.9	11.6	8.1	8.8(13)
전체	100.0(22)	100.0(45)	100.0(43)	100.0(37)	100.0(147)

공부방에 대한 학교교사들의 태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전체 공부방을 대상으로 살펴 볼 때 지역주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움을 주지 않으나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많았고, '약간의 도움을

준다' '19.7%', '관심이 없다'가 '10.2%', '많은 도움을 준다'가 '9.5%'로 나타나 '80.9%'의 공부방들이 학교교사들이 공부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볼 때 '관심이 없다', '잘 모르고 있다' 등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공부방C형(25.6%)', '공부방B형(20.0%)', '민간공부방(18.9%)', '공부방A형(4.5%)' 순으로 나타나 '공부방A형'이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으며, '공부방C형'이 가장 지역주민으로부터 가장 낮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희망하는 연계기관

<표 III-91> 희망하는 연계기관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일선 행정조직	34.5	26.2	46.4	31.5	34.3(70)
상담시설	31.0	41.5	33.9	44.4	38.7(79)
사회복지관	34.5	32.3	32.1	27.8	31.4(64)
청소년기관 및 단체	62.1	55.4	57.1	37.0	52.0(106)
교육청·초중고교	51.7	32.3	32.1	11.1	29.4(60)
민간 봉사단체·사적인 인맥·교류집단	13.8	24.6	23.2	25.9	23.0(47)
기업체	13.8	15.4	7.1	14.8	12.7(26)
의료기관	3.4	9.2	8.9	31.5	14.2(29)
대학교 동아리	27.6	50.8	33.9	46.3	41.7(85)
전체	14.2(29)	31.9(65)	27.5(56)	26.5(54)	100.0(204)

공부방이 지역사회 내에서 타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선호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청소년기관 및 단체(52.0%)'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대학교 동아리(41.7%)', '상담시설(38.7%)', '일선 행정조직(34.3%)', '사회복지기관(31.4%)'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업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선호는 낮았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부방A형’의 경우 ‘청소년 기관 및 단체(62.1%)’가 가장 높게 선호하는 기관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청·중고교(51.7%)’로 높았다. ‘일선행정조직(34.5%)’, ‘사회복지기관(34.5%)’, ‘상담시설(31.0%)’에 대한 선호 역시 높았다. ‘공부방 B형’의 경우 역시 ‘청소년 기관 및 단체(55.4%)’, ‘대학교 동아리(50.8%)’가 가장 선호하는 기관이었으며, ‘상담시설(41.5%)’, ‘교육청, 중고교(32.3%)’, ‘사회복지기관(32.3%)’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업체, 의료기관의 선호도는 낮았다. ‘공부방C형’의 경우 ‘청소년 기관 및 단체(57.1%)’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일선 행정조직(46.4%)’과의 연계 역시 매우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시설(33.9%)’, ‘사회복지기관(32.1%)’, ‘교육청·중고교(3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공부방’의 경우 다른 공부방과 달리 ‘대학교 동아리(46.3%)’와의 연계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상담시설(44.4%)’과의 연계 역시 매우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 기관 및 단체(37.0%)’ 역시 선호하고 있었다.

9. 청소년공부방의 제도화

청소년공부방의 제도화에 관한 공부방 운영자나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도화에 관한 찬반여부, 공부방의 제도화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 등에 관해 조사하여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부방이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알아 본 결과를 공부방 전체를 놓고 볼 때 ‘크게 도움이 된다’가 ‘46.1%’로 가장 많았고, ‘조금 도움이 된다(37.3%)’, ‘보통이다(11.1%)’, ‘별 도움이 안 된다(5.1%)’로 나타나 ‘83.4%’의 공부방들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92>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의 기여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크게 도움이 된다	64.5	42.6	33.3	54.5	46.1(100)
조금 도움이 된다	19.4	41.2	41.3	38.2	37.3(81)
보통이다	9.7	10.3	15.9	7.3	11.1(24)
별 도움이 안 된다	6.5	4.4	9.5		5.1(11)
아무 도움이 안 된다		1.5			0.5(1)
전체	100.0(31)	100.0(68)	100.0(63)	100.0(55)	100.0(217)

공부방 유형별로 볼 때 ‘민간공부방(92.7%)’, ‘공부방B형(83.8%)’, ‘공부방C형(74.6%)’, ‘공부방A형(73.9%)’ 순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어 민간공부방들이 가장 많이 ‘공부방이 지역사회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93> 공부방 운영 시 가장 시급한 것 1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운영자금 마련	32.3	32.8	31.7	45.5	35.7(76)
전문 교사의 확보	16.1	26.9	28.3	12.7	22.1(47)
공부방의 제도화	9.7	10.4	21.7	9.1	13.1(28)
교사 처우 개선	6.5	1.5	1.7	7.3	3.8(8)
시설 증·개축·이전	12.9	10.4	3.3	12.7	9.4(20)
후원자 발굴 및 관리		1.5	1.7		0.9(2)
정부의 행정적 지원		3.0	5.0	1.8	2.8(6)
정부의 재정적 지원	16.1	4.5	1.7	5.5	5.6(12)
프로그램의 개발	6.5	7.5	5.0	3.6	5.6(12)
기타		1.5		1.8	0.9(2)
전체	100.0(31)	100.0(67)	100.0(60)	100.0(55)	100.0(213)

공부방 운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공부방 운영에서 가장 시급하

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응답하게 한 결과, 첫 번째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부방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운영자금 마련’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전문교사의 확보(22.1%)’, ‘공부방의 제도화(13.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봐도 ‘운영자금 마련’과 ‘전문교사의 확보’가 모든 유형의 공부방 운영자들이 모든 유형의 공부방 운영자들이 첫 번째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1~2위로 나타났다.

<표III-94> 공부방 운영 시 가장 시급한 것 2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운영자금의 마련	3.3	1.5	1.8	7.3	3.4(7)
전문교사의 확보	20.0	27.3	14.3	34.5	24.6(51)
공부방의 제도화	13.3	9.1	14.3	7.3	10.6(22)
교사 처우 개선	10.0	10.6	8.9	16.4	11.6(24)
시설 증·개축·이전	16.7	7.6	14.3	12.7	12.1(25)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0	12.5	1.8	4.8(10)
정부의 행정적 지원	13.3	3.0	5.4	1.8	4.8(10)
정부의 재정적 지원	10.0	25.8	14.3	10.9	16.4(34)
프로그램의 개발	10.0	12.1	10.7	7.3	10.1(21)
기타	3.3		3.6		1.4(3)
전체	100.0(30)	100.0(66)	100.0(56)	100.0(55)	100.0(207)

공부방 운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공부방 운영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 중의 두 번째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부방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전문교사의 확보’가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16.4%)’, ‘시설 증·개축·이전(12.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교사의 확보’는 모든

유형의 공부방이 2번째로 시급한 것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나 다른 응답에 있어서는 공부방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I-95> 공부방 운영시 가장 시급한 것 3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운영자금의 마련	3.7	6.2	3.9	11.1	6.6(13)
전문교사의 확보	14.8	4.6	2.0	11.1	7.1(14)
공부방의 제도화	7.4	6.2	5.9	11.1	7.6(15)
교사 처우 개선	7.4	7.7	17.6	3.7	9.1(18)
시설 증·개축·이전	3.7	9.2		3.7	4.6(9)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7	6.2	5.9	9.3	6.6(13)
정부의 행정적 지원	3.7	4.6	5.9		3.6(7)
정부의 재정적 지원	25.9	18.5	25.5	29.6	24.4(48)
프로그램의 개발	29.6	33.8	29.4	20.4	28.4(56)
기타		3.1	3.9		2.0(4)
전체	100.0(27)	100.0(65)	100.0(51)	100.0(54)	100.0(197)

공부방 운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공부방 운영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 중의 세 번째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부방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개발’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24.4%)’, ‘교사처우 개선(9.1%)’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는 ‘프로그램 개발’이 ‘공부방 A형, B형, C형’이 모두 첫 번째로 뽑은 것과는 달리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세 번째로 시급한 것으로 뽑았다.

따라서 공부방 운영자들이 공부방 운영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열거하면 첫째, ‘공부방 운영자금 마련’이고, 둘째가 ‘전문적인 교사의 확보’, 셋째가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96> 공부방 제도화 관련 찬반여부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무조건 찬성	43.3	39.1	52.5	18.5	38.2(79)
조건부 찬성	36.7	39.1	32.2	63.0	43.0(89)
무조건 반대	3.3	3.1		1.9	1.9(4)
잘모르겠음	16.7	18.8	15.3	16.7	16.9(35)
전체	100.0(30)	100.0(64)	100.0(59)	100.0(54)	100.0(207)

공부방이 제도화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지 알아 본 결과 '43%'의 공부방이 '조건부 찬성'을 하였고, '38.2%'의 공부방이 '무조건 찬성'을 하였으며 '16.9%'의 공부방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80% 이상의 공부방이 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부방 유형별로 볼 때는 '공부방 A형, B형, C형'의 경우는 '무조건 찬성'이 '조건부 찬성'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조건부 찬성'이 '63%'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표Ⅲ-97> 공부방의 제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공부방 신고서 법령 조건의 완화	4.2	9.6	13.2	26.0	14.5(26)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8.3	17.3	24.5	14.0	17.3(31)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75.0	59.6	47.2	50.0	55.3(99)
관리, 감독의 필요성			3.8		1.1(2)
자원봉사 연결 및 교육	4.2	5.8	3.8	2.0	3.9(7)
전문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보완	8.3	5.8	3.8	4.0	5.0(9)
지역행정기관 혹은 복지관 등과의 연결		1.9	1.9	2.0	1.7(3)
교사의 전문적 교육			1.9	2.0	1.1(2)
전체	100.0(24)	100.0(52)	100.0(53)	100.0(50)	100.0(179)

공부방의 제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응답하게 한 결과, 첫 번째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부방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17.3%)', '공부방 신고시 법령 조건의 완화(14.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보아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가 모든 유형의 공부방 운영자들이 첫 번째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1~2위로 나타났다. 단 '민간공부방'의 경우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14%)'보다는 '공부방 신고시 법령 조건의 완화(26%)'를 더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III-98> 공부방의 제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2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공부방 신고시 법령 조건의 완화	42			10.2	3.4(6)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15.7	7.8	10.2	9.7(17)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12.5	13.7	17.6	30.6	19.4(34)
관리, 감독의 필요성	8.3	2.0	11.8		5.1(9)
자원봉사 연결 및 교육	25.0	25.5	23.5	20.4	23.4(41)
전문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보완	37.5	29.4	25.5	16.3	25.7(45)
지역행정기관 혹은 복지관 등과 연결	12.5	3.9	9.8	2.0	6.3(11)
교사의 전문적 교육		9.8	3.9	10.2	6.9(12)
전체	100.0(24)	100.0(51)	100.0(51)	100.0(49)	100.0(175)

공부방의 제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 중의 두 번째라고 응답한 것을 공부방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전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보완'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자원봉사 연결 및 교육(23.4%)', '정부의 재정적 지원(19.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공부방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공부방 A형, B형, C형’에서 모두 ‘전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보완’을 두 번째로 시급한 것으로 꼽은 공부방이 가장 많은데 비해 ‘민간공부방’에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두 번째로 시급한 것으로 선택한 공부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II-99> 공부방의 제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위

단위 : %(개)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	전체
공부방 신고시 법령 조건의 완화		2.0		6.3	2.3(4)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4.3		4.0	10.4	4.7(8)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4.3	9.8	10.0	8.3	8.7(15)
관리, 감독의 필요성	13.0	5.9	4.0		4.7(8)
자원봉사 연결 및 교육	8.7	13.7	22.0	12.5	15.1(26)
전문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보완	26.1	23.5	20.0	29.2	24.4(42)
지역행정기관 혹은 복지관 등과 연결	17.4	21.6	14.0	16.7	17.4(30)
교사의 전문적 교육	21.7	21.6	26.0	16.7	21.5(37)
기타	4.3	2.0			1.2(2)
전체	100.0(23)	100.0(51)	100.0(50)	100.0(48)	100.0(172)

공부방의 제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 중의 세 번째라고 응답한 것을 공부방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전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보완’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사의 전문적 교육(21.5%)’, ‘지역행정기관 혹은 복지관 등과 연결(17.4%)’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는 ‘전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보완’을 ‘공부방 A형, B형, 민간공부방’이 모두 세 번째로 시급한 것으로 꼽은 공부방이 가장 많은데 비해 ‘공부방 C형’의 경우는 ‘교사의 전문적 교육’을 세 번째 시급

한 것으로 선택한 공부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부방의 제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세 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열거하면 첫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고, 둘째가 '전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보완', 셋째가 '교사의 전문적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공부방활동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공부방의 일반현황, 이용청소년 인적사항, 시설, 인적자원, 운영재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지역사회 협력체계, 공부방의 제도화 등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공부방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분류한 4개의 공부방 유형에 따라 분석하여 청소년공부방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운영모델에 반영하고자 했다.

1. 요약

1) 청소년공부방 일반현황

청소년공부방은 경기도(164개), 서울(96개), 인천(42개), 부산(37개), 대구(34개)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평균 20개 정도의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공부방의 지역별 분포는 설문대상 공부방의 지역별 분포 비율과 비슷해 전국에서 고르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공부방의 과반수 이상은 '90-95년' 사이에 설립되었고, 70% 가까운 공부방들이 '5년 이상' 공부방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부방은 지역별로 볼 때 '대도시(47.9%)', '읍·면 소재지(26.9%)', '중소도시(25.1%)'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고, 지역특성별로는 '일반거주지역(37.9%)', '도시빈민지역(33.8%)', '농촌지역(18.3%)', '기타(7.3%)', '공단지역(2.7%)'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공부방A형'은

대도시에 있는 일반거주지역에서, '공부방C형'은 읍·면소재지의 '일반거주지역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공부방B형'은 대도시의 '도시빈민지역과 일반거주지역', '민간공부방'은 대도시의 '도시빈민지역과 공단지역'에서 더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 현황

'공부방A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공부방들의 70% 정도가 수용 적정인원을 '1-50명 정도'라고 응답했다. 특별히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96%로 응답율이 나와 적정 수용인원을 가장 적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루 평균 실제 이용자 수를 살펴본 결과 공부방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인원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공부방A형'에 속하는 공부방의 70.1%가 '51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유형에 속하는 공부방의 80%가 '50명 이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공부방B형', '공부방C형', '민간공부방'순으로 이용 청소년의 수가 적어지면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교급별로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공부방 A형, C형, B형 순으로 20% 이상이 공부방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그율이 '1.8%'여서 초등학교들이 민간공부방에서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의 경우와 반대로 중학생이 없는 민간공부방은 '38.2%'나 되었다. 공부방 B형, A형, C형의 경우는 각각 '8.7%', '6.3%', '4.8%'만이 중학생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중학생의 경우와 비슷하여 '민간공부방'보다 '공부방A형·B형·C형'에 이용자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공부방 A형·B형·C형’의 경우는 약 50% 가량의 공부방에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었다. 그 가운데 ‘공부방B형’에 비교적 많은 수급자들이 있었다.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해당청소년이 70%정도에 달해 민간공부방이 저소득층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이용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로는 ‘학습부진(59.9%)’이 가장 심각하였고, ‘경제적 빈곤(49.2%)’, ‘정서불안(3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정해체(19.3%)’, ‘교우관계(15.7%)’, ‘학교부적응(10.2%)’ 순서로 나타났고 ‘가출’, ‘비행’등의 문제는 ‘5% 이하’로 적게 나타났다.

3) 청소년공부방 시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공부방의 경우, 열람석 수나 수용인원 수가 기준이 되어 공부방의 유형이 정해지고 이것은 공부방의 지원액을 결정하는데 반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지원 공부방의 경우는 ‘공부방A형’의 경우 ‘100-149석’의 공부방이 62.5%를 차지했으며, ‘공부방B·C형’의 경우는 ‘41-79석’의 공부방이 80%에 가까운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대부분이 열람석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시설의 크기를 전용면적으로 알아보았다. 44기관이 응답하였는데 20평 이하의 민간공부방이 70%였다.

공부방 시설의 소유형태를 보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공부방들은 ‘법인·단체’와 ‘무상대여’가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민간공부방’은 ‘전세(34.5%)’, ‘법인·단체(25.5%)’, ‘월세(12.7%)’ 순으로 시설 면에서 다른 공부방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통신장비 설치현황은 ‘팩스’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공부방A형’이 ‘62.5%’로 가장 많았다. ‘E-Mail’은 ‘민간공부방’이 ‘63.6%’로 눈에 띄게 많았으며 ‘Home-Page주소’는 ‘공부방B형’이 ‘13.0%’

로 가장 많이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C형 공부방'의 경우 '팩스'는 '19.0%', 'E-Mail주소'는 '4.8%', 'Home-Page'는 '3.2%'밖에 되지 않아 다른 유형의 공부방에 비해 통신시설 설비의 열악함을 보여 주었다.

공부방의 컴퓨터 보유현황은 '52.6%(115개 기관)'로 나타났다. '1대'만을 갖추고 있는 공부방이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이 20-23% 정도였음에 비해 '2-3대'와 '4-5대'에서는 차이를 보여 '민간공부방', '공부방A형', '공부방B형', '공부방C형' 순으로 컴퓨터를 갖고 있었다.

인터넷 설치현황도 '되어 있지 않거나 무응답'인 경우가 '65.7%'로 나타나 공부방에서 대체로 인터넷을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부방 유형별로 살펴 보면 인터넷 설치의 컴퓨터 보유현황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민간공부방의 인터넷 설치현황은 '1대(47.2%)', '2-3대(7.2%)'로 비교적 잘 갖추고 있어 민간공부방이 첨단통신장비에서는 정부지원공부방보다 월등히 앞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컴퓨터 보유와 인터넷 현황은 '인터넷 학습실'과 '컴퓨터 학습실'을 50%가 넘는 공부방들이 '장차 갖추기를 원하는 설비'로 응답한 것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공부방들이 현재 갖추고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알아 본 결과 '열람실·독서실'이 '74.0%'로 가장 많았고, '냉난방시설(65.3%)', '도서·도서관(54.8%)', '사무실(53.9%)', '학습지도실(48.9%)', '개별상담실(43.8%)', '비상재해시설(30.6%)', '조리·주방실(27.9)', '집단활동실(19.6%)', '운동장·마당(16.9%)', '컴퓨터학습실(16.4%)', '강당(10.5%)', '인터넷학습실(8.2%)'순 이었다. 공부방 유형별로 보면 '열람실·독서실'의 경우 정부지원공부방인 '공부방A·C·B형'은 '90% 정도'가 갖추고 있는 반면,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23.6%'밖에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도실'은 '민간공부방(74.5%)'이 정부지원공부방에 비해 월등히 많이 갖추고 있어 정부지원공부방이 학습공간 제공 위주의 서비스를 하는 것에 반해, 민간공부방은 학습지도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컴퓨터

학습실은 '민간공부방'이, 인터넷학습실은 '공부방B형'이 가장 많이 갖추고 있었고 '공부방C형'의 경우 컴퓨터와 인터넷 모두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부방을 대상으로 '장차 갖추기를 희망하는 공부방 설비'에 대해 알아 본 결과 '인터넷학습실'과 '컴퓨터학습실'이 '50%'를 넘어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도서·도서관'도 모든 유형의 공부방이 고르게 희망하고 있었다. '열람실·독서실', '개별상담실', '집단활동실', '사무실', '강당', '운동장·마당', '냉난방시설', '비상재해시설' 등은 '민간공부방'과 '공부방B형'이 더 많은 욕구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하다는 공부방이 많은 반면 공부방이 협소하고, 냉난방시설·책걸상·도서와 같은 시설 설비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40.4%)'고 생각하는 공부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70%'에 가까운 공부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다른 공부방에 비해 공부방의 설비가 아주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청소년공부방 인적자원

상근교사나 자원교사,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확보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부방이 19.2%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적자원 확보가 미흡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유급 상근교사가 1명 있는 공부방은 87%였고, '공부방A형'과 '민간공부방'만이 20%정도 2명 이상의 상근교사가 있었다.

공부방의 57.9%(110기관)가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해 주는 단체와 개인봉사자가 있었다. 월 평균 자원봉사자는 '5명 이하'가 '57.4%'로 가장 많았고, '6-10명'이 '13.0%' 였다.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유형은 '대학생 자

원봉사자(91개)', '직장인(47개)', '주부자원봉사자(68개)', '퇴직공무원(23개)' 등으로 나타나 공부방의 자원봉사자는 주로 대학생과 주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근로교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부방은 21.4%였다. '민간공부방'은 80% 정도가 공공 근로교사의 지원이 공부방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공부방 74.9%가 공공근로교사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44.2%'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고, '92.5%'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공공근로교사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공부방 운영책임자의 연령은 전체로 볼 때 '40대'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7.6%', '50대'가 '19.5%' 순서였다.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30.6%나 많았다. 종사기간은 '1년 이하'가 '24.1%'로 가장 많았고, '3년 이하'의 경력을 갖춘 운영책임자가 '53.5%'로 과반수가 넘었다.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운영책임자도 '39.4%'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은 '대졸'이 '41.2%'로 가장 많았고, '고졸(32.2%)', '대학원졸(19.1%)'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책임자가 갖고 있는 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2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사자격증(20.8%)',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13.3%)', '보육교사 자격증(6.7%)'이었다.

운영책임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50% 정도가 40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28.3%가 일반근로자와 비슷하게 '41-50시간' 근무하고 '50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운영책임자는 22.2%로 나타났다. 운영책임자 89.5%는 5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희망하였다. 공부방 운영책임자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는 '41-50만원'이 '30.0%'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이상(22.5%)', '21-30만원(11.3%)', '51-60만원(7.5%)'이 다른 액수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10만원이하부터 100만원이상까지 두루 분포되어 있었다. 운영책임자가 희망하는 급여는 '100만원이상'이 '22.2%'로 가장 많았고 '71만원이상'이 50%가 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급여조차 운영책임자의 근무시간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보수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부방 상근교사의 연령은 전체로 볼 때 '20대'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30대(30.7%)', '40대(14.8%)'가 주를 이루어 운영책임자의 연령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근교사의 종사기간은 '1년미만'이 '36.7%'로 가장 많았고, 70% 이상이 3년 이하의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5년이상' 종사한 상근교사는 '1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책임자의 종사기간과 비교할 때 상근교사의 종사기간이 확실히 짧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은 여자(60.5%)가 남자(39.5%)보다 21%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공부방의 경우 여자가 88.9%로 월등히 많았다. 학력은 공부방 전체를 놓고 볼 때, '대졸'이 '47.6%'로 가장 많았고, '고졸(33.0%)', '대재(10.3%)', '중졸(4.9%)', '대학원졸(4.3%)' 순으로 나타나 운영책임자의 학력보다 조금 낮았다. 민간공부방의 운영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상근교사의 학력도 가장 높고, 공부방C형의 경우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격증은 '교사자격증'이 '24.7%'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자격증(22.7%)', '사회복지사 자격증(17.5%)',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3.4%)'으로 나타났다.

상근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운영책임자의 근무시간과 마찬가지로 '41-50시간'이 '32.5%'로 가장 많았다. 공부방 유형별로 보면 '공부방A형'은 '41-60시간'에 '46.2%', '10시간이하'에 '30.8%'가 몰려 있었다. '공부방B형'의 경우는 '31-60시간'에 '65.3%'가, '공부방C형'의 경우는 '21-50시간'에 '84.4%'가 몰려 있었다.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21-50시간'에 '65.5%', '10시간이하'에 '20.7%'가 밀집되어 있었다. 상근교사 85.4%의 5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희망하고 있었다. 현재의 급여 수준은 '41-50만원'이 '59.4%'로 가장 많았다. 그 이외의 수준에서는 모두 8%~0.6%사이의 낮은 비율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공부방 상근교사의 급여는 50만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다. 희망 급여는 '61-70만원'이 '23.6%'로 가장 높았고 '51-60만원(19.1%)', '71-80만원(15.7%)', '41-50만원(13.5%)', '100만원이상(12.4%)' 순으로 현재 받는 급여보다 높게 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운영책임자와 상근교사 모두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는 '보수체계의 개선'이 '50.3%'로 가장 높았고, '전문지식의 습득(29.5%)', '안정적인 지위(14.1%)' 순으로 응답했다.

5) 청소년공부방 운영재원

75%나 되는 공부방들이 운영경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공부방이 일년간 사용하는 총경비로는 '1000-1500만원'이 61.1%로 가장 높았다. '1000만원 이하'가 '20.6%', '2000-3000만원'이 '6.3%', '5000만원 이상'이 '7.1%' 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의 일년 총 회망경비는 '1000-1500만원'이 '41.2%', '2000-3000만원(20.6%)', '1000만원 이하(9.8%)'로 나타나 현재의 총경비에 비해 많이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년간 사업비로는 50%정도가 '500만원 이하'를 사용하고 있었다. '민간공부방'과 '공부방B형'의 경우 비교적 많은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는 일년에 '500-1000만원'을 사용하는 공부방이 '64.2%'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이하'가 '21.9%'를 차지해 86.1%에 달하는 공부방이 일년에 '1000만원 이하'의 인건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망인건비를 보면 일년에 '500-1000만원'을 회망하는 공부방이 42.9%로 가장 많았고, '1000-1500만원'이 '20.5%', '1500-2000만원'이 '11.6%', '500만원이하'는 '10.7%'를 나타내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나은 보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부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상태를 보면 '1000-1500만원'을 지원받는 공부방이 '63%'로 가장 많았으며 '500-1000만원'을 지원받는 공부방이 '15.8%'여서 80%에 가까운 공부방들이 500-150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공부방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교사 인건비'가 '66.6%', '프로그램 운영비'가 '64.4%'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공부방 관리·유

지·보수'에 대한 지원희망이 '58.7%', '공부방 시설제공'이 '33.2%', '공부방 시설 중·개축'이 '3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교육 훈련비'에 대한 지원이 '2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부방 회비와 관련해서는 '74.5%'의 공부방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25.5%'의 공부방이 회비를 받고 있었다. 이중 일정액을 받고 있는 공부방은 '15.6%', '차등제'로 받고 있는 공부방은 '9.9%'로 나타났다. 공부방 유형별로 보면 '공부방C형'은 '98.4%'가 '무료'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공부방B형'(87%), '공부방A형'(51.7%), '민간공부방(42.3%)'순으로 회비를 받고 있었다. 공부방 회비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공부방 전체에서 '57.2%'가 '받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6.3%'가 '일정액을 받아야 한다', '16.5%'가 '차등제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과반수 이상의 공부방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는 '학용품·도서지원(16.9%)', '주부식 지원(16.0%)', '건물관리 협조(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의 후원자로는 '운영책임자의 개별후원자'인 경우가 '60.4%', '운영 책임자가 속한 종교의 신자'인 경우가 '50.5%'로 절반 이상이였다. '지역주민'에게 받는 경우는 '31.5%'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후원금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은 '후원금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작성·배포'하는 경우가 '56.6%'로 절반 이상이였다. 다음으로는 '바자회 같은 행사'로 후원금을 조성하는 것이 '36.8%', '후원회'를 통한 경우가 '32.9%'의 순으로 나타났다.

6) 청소년공부방 프로그램 운영현황

저소득층 지역의 청소년공부방이 어느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48.3%'의 공부방이 '학습능력 향상과 인성발달을 병행

하여'라고 응답했다. '26.6%'가 '문화, 여가활동, 안전지도, 급식,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발달'로, '22.7%'가 '학습 및 숙제지도를 통한 학습능력 향상'이라고 응답했다.

공부방들이 청소년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서비스로는 '학습지도'가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습공간제공(열람실)'이 '66.2%', '상담서비스'가 '58.2%', '도서 열람 및 대출'이 '56.3%', '야간공부방 운영'이 '52.1%'로 나타나 대부분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시하는 프로그램은 '진로지도(20.2%)', '생활예절(27.2%)', '문화활동(23.9%)', '급식지원(17.4%)'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특기교육(9.4%)', '인터넷정보서비스(8.0%)', '체육활동(7.0%)', '성교육(3.3%)', '약물남용(0.9%)', '종교교육(8.0%)', '가족서비스(4.2%)' 같은 프로그램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공부방A형, B형, C형'의 경우, '학습공간 제공'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도서열람 및 대출', '학습지도', '야간공부방 운영', '상담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어 학습공간 제공과 학습지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달리 '민간공부방'의 경우 '학습지도'가 '9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상담서비스'가 '40.0%'를 차지했다. 다른 공부방과 달리, '문화활동(54.5%)', '급식지원(45.5%)', '생활예절 교육(40.0%)'의 프로그램이 더 많이 실시되고 있어 학습지도와 정서지도 중심의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부방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해 실시하기를 희망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는 '학습지도(59.0%)'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인터넷정보서비스(44.1)', '상담서비스(43.6%)', '야간공부방운영(4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교육, 약물남용 예방, 체육활동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활동지도를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공부방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바라는 봉사 분야는 '학습지도'가 '68.6%'로 가장 높았고 '특기지도'가 '43.1%', '상담서비스'가 '35.0%', '문화여가활동'이

‘28.5%’의 순이었으며, ‘급식 등 노력봉사’는 ‘15.3%’, ‘예술활동’은 ‘4.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사회에서 다른 공부방이나 복지관, 청소년기관·단체 등 타 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공부방은 31%였다. ‘민간공부방’이 ‘56.9%’로 가장 많았으며, ‘공부방B형(31.7%)’, ‘공부방A형(24%)’, ‘공부방C형(7.8%)’ 순으로 지역사회 내의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공부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청소년공부방 지역사회 협력체계

‘86.1%’의 공부방들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부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응답했고 ‘75%’의 공부방들이 행정기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학교교사들이 공부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공부방이 80.9%였다.

과반수 정도의 공부방이 교사와 만난 경험이 있고, 50%정도의 공부방이 학부모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부방(74.1%)’, ‘공부방B형(43.7%)’, ‘공부방A형(43.7%)’, ‘공부방C형(37.3%)’ 순으로 학부모들과의 연계가 잘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8.6%’만이 ‘학부모회’를 갖고 있었는데 유형별로는 ‘민간공부방’이 ‘38.9%’로 가장 많았고, ‘공부방A형(15.6%)’, ‘공부방B형(13.2%)’, ‘공부방C형(8.2%)’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공부방과 협력체계는 공부방의 ‘38.8%’가 ‘구축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민간공부방’이 ‘68.5%’로 가장 많았고, ‘공부방B형(42.9%)’, ‘공부방A형(32.1%)’, ‘공부방C형(8.9%)’ 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이 지역사회 내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기관으로는 ‘청소년기관 및 단체(52.0%)’를 가장 선호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학교 동아리

(41.7%)', '상담시설(38.7%)', '일선행정조직(34.3%)', '사회복지기관(31.4%)'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업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선호는 낮았다. '공부방 A형'의 경우 '청소년 기관 및 단체(62.1%)'와 '교육청·중고교(51.7%)', '공부방 B형'의 경우 역시 '청소년기관 및 단체(55.4%)', '대학교 동아리(50.8%)', '공부방C형'의 경우 '청소년 기관 및 단체(57.1%)'와 '일선 행정조직(46.4%)',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대학교 동아리(46.3%)'와 '상담시설(44.4%)'과 연계 또한 매우 희망하고 있었다.

8) 청소년공부방의 제도화

공부방 '83.4%'가 지역사회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공부방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는데 '민간공부방(92.7%)', '공부방B형(83.8%)', '공부방C형(74.6%)', '공부방A형(73.9%)' 순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공부방 운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공부방 운영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응답하게 한 결과, 첫째, '공부방 운영자금 마련', 둘째가 '전문적인 교사의 확보', 셋째가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이 제도화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지 알아 본 결과 공부방 '43%'가 '조건부 찬성'을 하였고, '38.2%'는 '무조건 찬성'을, '16.9%'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부방의 제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응답하게 한 결과, 첫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둘째, '전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보완' 셋째, '교사의 전문적 교육'으로 나타났다.

2. 결 론

첫째, 청소년공부방은 일반지역, 도시빈민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 등 공부방이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역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공부방A형'은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50명 이상의 대규모 청소년을 위해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공부방 B형과 C형' 그리고 '민간공부방'은 50명 미만의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공간 제공과 학습지도를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빈민지역 청소년공부방의 프로그램은 학습지도와 인성지도 활동이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부방청소년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급식이나 장학금지원 또는 결연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지원공부방은 민간공부방에 비해 공부방 건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나,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인 '팩스', 'E-Mail주소', 'Home-Page' 등 통신장비, 컴퓨터와 인터넷 설비는 민간공부방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부방C형의 경우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부방의 경우는 공부방 건물과 냉난방시설, 책걸상, 도서 등과 같은 설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고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책임자와 상근교사 모두 근무시간, 근무기간, 학력, 소지한 자격증 등을 고려할 때 급여수준이 매우 낮았다. 더욱이 운영책임자와 상근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책임자와 상근교사의 급여를 같은 계통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급여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일과 부족한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보조교사로 충원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부방 일년간 총경비는 규모가 큰 공부방을 제외하고는 1,000-1,500만원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이중 인건비가 ⅔정도였고 사업비가 ⅓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러한 액수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 받는 경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공부방 운영경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여 공부방들이 더 많은 운영경비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족한 운영경비를 늘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현실적인 재정지원은 물론 공부방회비와 지역사회의 후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부방A형, B형, C형이 학습공간 제공과 학습지도를 우선시 하는 것에 비해 민간공부방은 학습지도와 인성지도 중심의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공부방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해 우선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활동으로는 학습지도, 상담서비스, 도서 열람 및 대출, 진로지도, 생활예절, 문화활동을 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 지역의 청소년공부방이 어느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학습능력 향상과 인성발달을 병행'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문화, 여가활동, 안전지도, 급식,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발달'을 '학습 및 숙제지도를 통한 학습능력 향상'보다 좀 더 중시하는 공부방이 많은 것을 볼 때 인성발달을 도모하는 공부방 프로그램의 개발에 좀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대부분의 공부방이 지역사회의 주민, 학교교사, 행정기관의 호감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타공부방, 복지관, 청소년기관·단체 등 타 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공부방은 ⅓ 정도였고, 학부모와 교사와 만나는 공부방은 50%정도였으며, 학부모회를 결성한 공부방은 18.6%에 지나지 않아 지역사회 안에서 협력체제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부방이 지역사회 안에서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청소년기관 및 단체, 대학교 동아리, 상담시설, 일선행

정조직, 사회복지기관 같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지원공부방이 민간공부방보다 타 기관과 연계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민간공부방이 주도함으로써 공부방간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공부방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청소년공부방 80%이상이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공부방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청소년공부방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제도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재정지원, 전문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보완, 교사의 전문교육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지원 청소년공부방은 현재의 운영방안을 보완하고, 민간공부방은 그동안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해 온 경험과 경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공부방을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V. 청소년공부방 운영모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V. 청소년공부방 운영모델

공부방을 제도화시키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방의 기능을 정확히 정립하고 현실 상황에 맞은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일이다. 공부방의 기능 정립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의 기능을 분석하고, 운영자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욕구를 잘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공부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병행했다. 하나는 문화관광부가 지방 양여금을 지원하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지원하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청소년야간공부방'이다. 다른 하나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의 하나로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이 '방과후교실'(공부방)을 운영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부방 혹은 방과후교실과 별도로 교회와 성당이 직접 운영하거나 이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공부방이 있다. 이번 조사는 정부지원을 받은 청소년공부방과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공부방을 함께 조사했고,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운영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공부방의 운영모델을 크게 청소년공부방과 어린이공부방으로 구분하여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번 조사는 2000년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정부지원을 받는 청소년 공부방 581개소와 민간공부방 150개소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청소년공부방 219개소가 응답을 하였다.

그 동안 공부방은 중고등학생에게 주로 열람실을 제공하면서 성교육여가지도 등 특별활동을 수시로 하는 청소년공부방, 주로 초등학생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면서 숙제를 지도하고 간혹 간식을 제공하며 특별활동을

수시로 하는 공부방으로 나뉘어서 발전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여년동안 청소년공부방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설규모, 인력의 배치, 그리고 관리운영 방식 등에서 상당히 제도화되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은 주로 사회복지관이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는 제도화되었지만, 민간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행정적/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공부방에 따라서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함께 받는 곳도 있지만,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공부방을 이용하는 주된 욕구가 다르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의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방의 운영모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진다. 즉, 방과후에 학습공간이 필요한 중고등학생에게 주로 열람실을 제공하는 청소년공부방과 학습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에게 학습지도를 제공하는 어린이공부방으로 분화시켜 발전시킨다. 그렇다고 양 기관의 이용자를 13세 이상과 13세 미만으로 엄격히 분절시킬 필요는 없고, 표적 집단을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으로 분화시켜서 그 집단의 욕구에 맞는 운영모델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청소년공부방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하고, 주로 민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공부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2.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모델은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자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욕구를 존중해서 개발한다.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모델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공부방에 대한 이용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사회 욕구를 존중하는 것이다.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83.4%) 공부방이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해서 도움이 된

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운영자들은 공통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공부방 운영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한 것은 운영자금 마련이고(35.7%), 다음은 전문교사의 확보(22.1%), 공부방의 제도화(13.1%), 시설 증/개축/이전(9.4%), 정부의 재정지원(5.6%), 프로그램의 개발(5.6%) 등이다. 즉, 공부방의 재정과 관련된 욕구가 50%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문교사와 공부방의 제도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부방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이 43.0%로 무조건 찬성(38.2%)보다 조금 많지만, 무조건 반대는 거의 없다(1.9%)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부방 운영자는 대부분 공부방의 제도화를 찬성하거나 전제조건에 맞을 경우 제도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럼, 공부방의 제도화를 위해 운영자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무엇인가?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55.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17.3%)와 공부방 신고서 법령 조건의 완화(14.5%) 등이었다. 공부방의 크기나 공부방의 운영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하면서도 법령과 행정적 절차와 같은 규제의 간소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면서 법령과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 공부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시킨다면 공부방을 공익기관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공익기관의 성격이 강조될수록 공적인 통제를 위해서 법령과 행정적 절차는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모델을 제안한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공부방 운영자의 욕구를 적정 수준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를 공부방의 운영모델을 시설과 설비, 인력, 프로그램 등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면 아래와 같다.

3.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모델은 공부방의 핵심기능을 기본적으로 학습공간을 제공하면서, 부가적으로 학습지도, 상담활동, 문화활동지도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복지기관'의 하나로 개발하자는 제안이다.

지금까지 청소년공부방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공부방마다 조금씩 그 비중은 다르지만, 도시저소득층 지역 청소년의 학습공간이면서, 동시에 보호와 상담공간, 건전한 문화공간 그리고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일부 공부방은 관리자가 공부방의 문을 열어주고 열람실 이용자가 조용히 사용하도록 감독하는 수준에 그치기도 했지만, 사회복지법인이나 일부 의욕적인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은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특별활동을 준비하고, 절기별로 체육대회, 문화유적지답사, 백일장 등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공부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상근자원봉사자 1인 인건비 지원이 대부분이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인건비 그것도 '상근자원봉사자'란 명목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청소년공부방을 중고등학생에게 자습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을 깨끗하고 조용히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많은 민간기관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청소년공부방은 민간독서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들이 다니는 공부방이 아니라, 이들이 학습을 하면서도 어려운 고민을 수시로 청소년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고, 주말이나 방학에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한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은 학습공간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학습지도와 특별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다. 즉, 학습지도는 숙제지도와 보충학습으로 나누고, 특별활동은

문화활동(문학 등), 여름수련회, 겨울캠프, 소풍, 견학이나 관람, 스포츠시설 이용, 5월 5일 행사, 송년잔치, 청소년문화제 참가, 열린교실 참가 등이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자모회를 운영했다. 또한, 자매기관의 청소년팀에서 하는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비행청소년집단 프로그램과 예방집단 프로그램인 심성개발, 특별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렇게 청소년공부방의 핵심 기능을 변화시키면, 이에 따라 공부방의 기본 공간과 설비를 바꾸고, 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변화시켜야 하며, 주된 프로그램과 사업비의 구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모델은 공부방을 '단순한 학습공간'에서 '학습과 상담 그리고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학습부진이나 가족빈곤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의 상당수가 다양한 가정문제와 사회부적응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 공부방이 일차적으로 학습공간이지만, 이들에게 상담과 문화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는 작은 규모의 청소년복지기관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복지기관이 산천이 수려한 자연권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공간 속에 정착되어야 하고, 이러한 복지공간이 바로 도시빈민지역에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복지공동체를 만들자는 사회적 목표와도 부합되는 일이다.

4. 청소년공부방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위탁기준을 표준화시키고 재정운용, 시설관리, 인력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운영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당초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공공건물을 공부방으로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거나, 민간기관이 운영하던 공부방을 지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해당 기관이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전자는 대체로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시설과 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건물의 평수나 열람실의 좌석수와 개방시간 혹은 열람실의 이용료 등을 기준으로 한 현재 위탁기준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위탁기관의 안정적 운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건물의 건평과 좌석수 뿐만 아니라, 청소년공부방이 갖추어야 할 기본공간과 설비/혹은 기자재, 직원의 수와 전문성, 주된 프로그램, 예산의 배정과 정산방법, 책임분담과 지도감독의 한계, 위탁의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 표준화된 운영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공부방이 갖추어야 할 공간과 설비는 정보화사회와 복지사회에 맞는 수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부방이 갖춘 시설과 설비는 열람실/독서실(74.0%), 냉난방시설(65.3%), 도서·도서관(54.8%), 사무실(53.9%), 학습지도실(48.9%), 개별상담실(43.8%), 조리·주방실(27.9), 집단활동실(19.6%), 운동장·마당(16.9%), 컴퓨터학습실(16.4%), 강당(10.5%), 인터넷학습실(8.2%) 등의 순이었다. 그중 정부지원을 받는 공부방은 열람실/독서실을 대부분 갖추고 있었지만, 컴퓨터학습실은 민간공부방에 뒤졌다. 즉, 컴퓨터학습실은 민간공부방이 2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공부방B형(17.4%), 공부방A형(15.6%), 공부방C형(11.1%)순이었다.

그런데, 공부방이 장차 갖추기를 희망하는 설비 중(중복응답)에서는 인터넷학습실이 55.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컴퓨터학습실(53.9%), 도서실/도서관(30.6%)이고, 이어서 개별상담실(28.8%)과 집단활동실(26.5%)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공부방 운영자는 공부방을 단순히 자습을 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우고 이를 활용하는 곳, 책을 빌려보는 곳, 그리고 개별/집단상담을 하는 곳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과 설비에 대한 욕구는 현재 그 공부방이 갖추고 있는 시설과 설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부방이 정보화사회에서 적응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부방중 이메일을 가진 곳은 32.9%이고 홈페이지를 갖춘 곳은 9.6%에 불과해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공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민간공부방이 이메일을 63.6%나 갖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부방이 아직도 전화와 팩스와 같은 전통적인 통신매체에 의존하는 것은 반성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지침은 건평과 열람실의 좌석수와 같은 초보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서 도서실, 상담실, 집단활동실과 같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고, 컴퓨터, 인터넷, 홈페이지, 냉난방시설 등과 같은 시설과 설비 등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5. 상근자의 인건비를 적정하게 책정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야한다.

현재 공부방은 상근직원 1명이 사실상 운영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공부방의 87%는 1명의 유급 상근교사를 갖고 있었으며 2명인 곳은 8%, 3명 이상인 곳은 5.0%이었다. 그런데, 공부방이 희망하는 유급 상근직원의 수는 1명이 61.7%이고, 2명이 24.5%, 3명 이상은 13.9%이었다.

공부방은 부족한 인원을 자원봉사자로 보충하는 경우가 많았다. 월 평균 자원봉사자의 수는 5명 이하가 전체의 57.4%이고 6-10명이 13.0%인 것으로 볼 때 70% 이상의 공부방이 한달 평균 10명 이하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부방이 적은 실무자로 일하고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지만, 채용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등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지원을 받은 청소년공부방은 대체로 상근자원봉사자 한 명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을 뿐이다. 경우에 따라서 보조자원봉사자 몫이 한 명 더 있기도 하지만, 글자 그대로 상근자원봉사자 인건비는 책임성이 있는 직원으로 일하기에 매우 적은 액수이다. 공부방 운영책임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급여는 41-50만원이 30.0%이고, 그 다음은 100만원이상(22.5%), 21-30만원(11.3%), 51-60만원(7.5%)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관련 직장에 취직한 경우에 평균월급이 100만원을 상회한다고 볼 때, 전체 공부방중 100만원 이상을 받는 직원이 22.5%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평생 직장으로 일하기는 어렵고, 일시적으로 일하는데 그치는 형편이다. 청소년공부방의 운영 책임자중에는 관련된 법정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24.2%,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20.8%, 청소년지도사가 13.3%, 보육교사 자격증이 6.7%나 되지만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책임자들이 현재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보수체계의 개선(44.0%)을 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전문지식의 습득(24.7%)과 안정적인 지위(17.3%)를 지적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상근교사도 보수체계의 개선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들고(50.3%), 전문지식의 습득(29.5%)과 안정적인 지위(14.1%) 등을 지정한 점에서 볼 때 공부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분명하다. 그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공부방의 운영책임자와 상근교사 모두 공부방이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지급할 때, 하나의 일터로 정착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운영자와 상근교사의 의견을 종합할 때, 공부방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인 이상 상근자에게 월평균 100만원이상의 급여와 상응하는 상여금을 제공하고, 경력이나 자격증 등에 맞는 보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

6. 청소년공부방을 평일 방과후에는 주로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말/ 방학중/ 절기별로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경비를 적정하게 확보한다.

현재 공부방은 단순히 학습공간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학습지도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공부방마다 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전체 통계를 보면 공부방은 학습공간제공에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공부방의 교육 및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학습지도가 7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학습공간제공(열람실)이 66.2%, 상담서비스가 58.2%, 도서 열람 및 대출이 56.3%, 야간공부방 운영이 52.1%로 나타나 대부분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시하는 프로그램은 진로지도(20.2%), 생활예절(27.2%), 문화활동(23.9%), 급식지원(17.4%)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소 적은 비중이기는 하지만, 공부방에서 특기교육(9.4%), 인터넷정보서비스(8.0%), 체육활동(7.0%), 종교교육(8.0%), 가족서비스(4.2%) 등을 수행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는 공부방은 학습공간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민간공부방은 학습지도가 9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상담서비스가 40.0%를 차지하며, 다른 공부방과 달리 문화활동(54.5%), 급식지원(45.5%), 생활예절 교육(40.0%)의 프로그램을 더 많이 실시하여, 주민과 소년의 욕구를 더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공부방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학습지도(59.0%)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터넷정보서비스(44.1%), 상담서비스(43.6%)인 것으로 볼 때, 공부방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설과 기자재 그리

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방이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보다는 인접 지역에 있는 다른 사회복지기관이나 교육기관과 함께 기획하거나, 이러한 기능을 가진 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혹은 시민사회단체가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를 키워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민간공부방은 56.9%가 타 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정부지원을 받은 공부방인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경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의 전체 프로그램은 평일에는 학습공간의 제공과 학습지도를 기본으로 하고, 주말과 방학중에는 취미활동, 체육활동, 역사탐방 등 청소년이 집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각 절기별로 특별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프로그램 사업비는 참가자에게 다소의 실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방은 적절한 시설과 설비 그리고 이를 기획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는 대체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전체 지출 중 인건비의 비중이 70%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프로그램 관련 경비는 전체의 30%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한 대안이다.

7.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과 연계시켜 발전시킨다.

현재 공부방은 지역사회의 공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아직 약한 편이다.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보면, 주민이 공부방에 많은/혹은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경우는 전체의 26.7%에 불과하고, 도움을 주지는 않으나 호감을 가지는 정도가 59.4%로 주류를 차지한다.

그런데, 공부방을 공공성이 가장 기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과

의 관계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른 공공기관과의 관계형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공부방이 가장 도움을 받는 기관은 행정기관이지만, 장차 도움을 받고 싶은 곳을 보면, 아동상담소 등 상담시설, 그 다음은 민간봉사단체와 사적인 인맥/교류집단, 의료기관, 기업체,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단체이었다. 이는 공부방이 제도화되거나 보다 활성화될 때,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인접한 아동복지기관과 교육기관 등과도 폭넓은 협조가 필요함을 암시하여 준다.

공부방이 다른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공부방과의 관계부터 발전시켜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공부방이 다른 공부방과 협력관계를 형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8.8%에 불과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다른 공부방의 협력관계는 공부방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어서, 민간공부방의 68.5%가 타 공부방과 협력체제를 구축한데 반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부방은 훨씬 낮았다.

반면에, 정부지원을 받은 공부방은 대체로 행정기관과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간공부방은 행정기관과 '만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45.3%라 된다는 점이 앞으로 과제를 제시한다. 즉, 정부지원을 받은 공부방은 다른 공부방과의 관계형성을 민간공부방은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부방의 대외협력사업은 먼저 단일 공부방이 하기에 어려운 일을 지역공부방협의회를 통해서 실천하고, 점차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력을 맺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부방 책임자와 상근교사를 위한 연수는 단일 공부방보다 공부방협의회에서 쉽게 기획할 수 있다. 또한, 학습공간의 제공과 학습지도와 같은 일상활동은 공부방단위에서 하지만, 체육대회, 학습여행, 문화유적지 답사 등과 같은 특별활동이나 절기별로 하는 큰 행사는 인접 사회복지기관/교육기관 등과 협력해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8. 위와 같은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청소년 기본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야간공부방과 민간의 공부방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공부방의 명칭과 핵심기능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그 세부 운용방안에 대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한다. 또한, 어린이공부방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으로 제도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공부방이 아동복지기관의 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

즉,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할 경우 공부방의 명칭은 법에 명시하지만, 시설과 설비, 인력, 프로그램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표준 위탁규정 등은 지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공부방의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은 현재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지침과 관행을 존중하면서 공부방 운영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그 대안을 모색한다.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서 연구진이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기본법령과 관련 지침 등으로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1> 청소년공부방 운영모델의 제도화 방안

기준	현행	개선안
<핵심사항>		
기본기능	학습공간의 제공	학습공간제공, 상담활동, 문화활동 등을 하는 청소년복지기관의 일종

시설	열람실	열람실과 다양한 활동공간
설비	열람실 책걸상	문화/특별활동 설비
인력	공부방 관리인/봉사자	청소년지도 전문가/직원
프로그램	학습공간제공	학습/문화활동 제공
사업비	최소 관리비용	기관 운영비용
위탁기관선정	수의계약	공개경쟁
제도적장치	운영지침	청소년기본법령에 반영

=====

<시설과 설비>

열람실	50석 이상	50석 이상-150석 미만
자원봉사자실	1개 이상	1개 이상
사무실	-	1개 이상
컴퓨터와 인터넷	-	필수 기자재
상담실	겸용	1개 이상
집단활동실	-	1개소 이상
냉방시설	-	필수
난방시설	-	필수
안전시설	-	소방, 안전시설 등
홈페이지	-	권장사항

<인력>

책임자	1명	1명
상근교사	-	1명 이상
-자격증	-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
상근자원봉사	1명	1명 이상
자원봉사자	-	10인 이상

<프로그램>

학습공간제공	필수	필수
학습지도	-	필수
도서실/대출	-	필수
상담활동	-	필수

문화활동지도	-	필수
절기별 특별활동	-	필수
공부방협의회	-	필수가입
대외협력활동	-	필수

<사업비>

인건비	상근자원봉사자 1명	상근교사 1명 이상
-수준	자원봉사자	동일분야 사회복지사수준
경상경비	크기등을 고려한 최저비용	전기, 전화, 냉난방, 컴퓨터전용선 등 적정실비
프로그램경비	거의 없음	전체사업비의 30%수준
책임성	행정기관 보고	자체운영위원회에서 일차 심사후, 행정기관 보고
예산서	행정기관 보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
보고서	-	사업결과보고서의 공표

<위탁기관>

위탁기관설정	제한경쟁	공개경쟁
-선정위원회	-	관련전문가로 구성
위탁기관	법인+임의단체	법인 등에 가산점부여
위탁기간	1년	3년
외부 감독	-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

<제도적 장치>

재정지원	양여금+자치단체보조	양여금+자치단체보조
법령	-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운영규정	-	운영규정, 조례제정
위탁계약서	비표준화	표준모델의 적용

* 현행 규정은 표준안이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임

** - 은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뜻임

참고문헌

- 김재인 외(1994).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환(1996). 교회 및 기독교단체가 운영하는 빈민지역 공부방 운영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주 외(1998). 지역청소년센터 운영모델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류미희(1993). 한국 빈민 공단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 공부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은희(1998). 도시빈민지역 공부방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문수 외(1998). 저소득층지역 청소년 여가문화와 소집단 활성화. 서울: 집문당.
- 박순일·박능후·강성호(1999).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의 빈곤실태 및 특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orkshop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현선(1999).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제 37호.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 부스리기선교회 엮음(2000). 결식아동 현황 자료집-결식아동의 사회복지 대책 워크숍 자료집. 서울: 부스리기선교회.
- 부스리기선교회·빈민여성교육선교원 편(1996). 공부방 현황 및 교육활동. 서울: 부스리기선교회.
- 부스리기선교회·빈민여성교육선교원 편(1998). 부스리기선교회 신나는집 활동백서. 서울: 부스리기선교회.
- 부스리기선교회·빈민여성교육선교원 편(1998). 빈곤가정 여성과 아동에 관한 세미나. 서울: 부스리기선교회.
- 부스리기선교회·빈민여성교육선교원 편(1999). 결식아동 및 빈곤가정을

- 위한 제도 마련 공청회. 서울: 부스리기선교회.
- 송영숙(1998). 가톨릭 공부방 활동의 변천과정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은아(1995).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실태와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사회개발대학원.
- 엄명용(1999). 빈곤지역 청소년문제 접근 연구 세미나(pp. 1-18). 서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윤정희(1999).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회 공부방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립(1998). 빈곤지역아동의 생활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욱(1997). 저소득층 지역교육운동의 정당성 확보과정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무근(1998) IMF시대의 청소년 실업문제, 그 진단과 대책, 21세기 청소년포럼.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이문숙(1998). 도시지역 저소득층주민의 정신건강수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원 외(1998). 실업과 빈곤화(IMF체제 이후 성남지역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향란(1996). 방과후 아동지도의 실태와 기관운영에 관한 연구 : 공부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2000). 빈곤과 차상위 계층.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1호(pp26~38).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보경(1998).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유형에 따른 운영실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신재(1997). 저소득층의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은(1998).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심리적 복
지감과 취업모의 양육 부담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배·김미숙(1999).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현황과 정책방향.
IMF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방향 세
미나. 99-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미나 자료집(PP. 70~71).
- 조은희(1998). 복지관내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흥식(1998). 대량실업에 따른 민간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개발, 경제위
기 상황하에서의 민간복지서비스 확충방안 모색, 사회복지통원
제137호(1998.여름).
- 조흥식(1999). 청소년 복지적 소외와 정책과제. 소외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제(pp. 57-80).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3). 청소년복지론.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허 선(1999).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 대책, 사회복지, 1999년 가을.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허근화(1994). 도시빈민의 욕구와 지역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현미라(1996). 도시저소득층 지역의 지역사회조직 실천에 대한 비교사례
연구 : legal advocacy와 self-help전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최기웅(1996).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1991). 탁아프로그램의 질적 환경. 탁아연구. 서울: 양서원.

부 록

1. 설문지
2. 전국청소년공부방 주소록
3. 청소년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현장전문가 자문

부록 1 : 설문지

설문지No.

청소년공부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1989년 설립된 이후 청소년에 관한 정책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개발원에서는 저소득층청소년들의 정서·인지·신체 발달과 사회성 개발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정부지원 및 민간지원 청소년공부방(독서실)의 활성화를 위해 수행중인 「청소년공부방 운영모델 연구」의 일환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숫자로 부호화 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되오니 가능한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독서실)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본 설문지는 가능한 11월 15일 안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Fax가 있으신 기관에서는 가능한 Fax로 전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 137-715)

복지정책연구실 : 이해연

(☎ 02-2188-8834, FAX : 2188-8869 · 8899)

본 조사지에서 청소년공부방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학습지도 및 정서지도를 해 주고 있는 민간이 운영하거나 정부가 지원 또는 위탁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열람실 등) 제공하고 야간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도 조사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설문 문항에서 청소년공부방이라 함은 청소년독서실도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것 하나만을 골라 해당번호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2가지, 3가지, 모두 등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는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편

1. 귀 공부방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을 적어 주십시오.

1-1. 명칭 ()

1-2. 주소 ()

1-3. 전화번호 ()

1-4. 팩스번호 ()

1-5. E-mail 주소 ()

1-6. Home-Page 주소 ()

2. 귀 공부방의 시작연도는 언제 입니까? ()년

3. 귀 공부방은 다음 중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 | | |
|----------------------|--------------------------|
| ___ ① 시립(구립)청소년독서실 | ___ ② 청소년공부방(민간위탁) |
| ___ ③ 지자체직영 청소년공부방 | ___ ④ 민간공부방 |
| ___ ⑤ 무료급식을 겸한 방과후교실 | ___ ⑥ 일반 방과후교실(복지관/어린이집) |
| ___ ⑦ 기타() | |

4. 귀 공부방의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 | | |
|-----------------|--------------|
| ___ ① 개인 | ___ ② 사회복지법인 |
| ___ ③ 종교시설·종교단체 | ___ ④ 기타() |

5. 귀 공부방 운영주체의 종교적 배경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 _____ ① 불교 _____ ② 원불교 _____ ③ 가톨릭
 _____ ④ 개신교 _____ ⑤ 종교없음 _____ ⑥ 기타종교()

6. 귀 공부방의 소재지는 지역적으로 어느 곳에 속합니까 ?

- _____ ①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_____ ② 중·소도시(도청소재지·일반시)
 _____ ③ 읍·면 소재지

7. 귀 공부방이 소재한 곳의 주된 지역적 특성은?

- _____ ① 도시빈민지역 _____ ② 일반주거지역 _____ ③ 공단주변지역
 _____ ④ 농촌지역 _____ ⑤ 기타()

이용정보

1. 귀 공부방은 시설과 인력의 규모를 생각할 때 현재 적정 정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

2. 현재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이용자 수는 하루 평균 몇 명입니까 ?

구	분	이용자 수	구	분	이용자 수
1)	초등학생	명	2)	중학생	명
3)	고등학생	명	4)	기타	명
5)	합	계			명

3. 귀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명)

4. 귀 공부방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순서대로 2개를 적어 주십시오. (,)

- ① 학습부진 ② 정서불안 ③ 경제적 빈곤 ④ 가정해체 ⑤ 학교 부적응
 ⑥ 교우관계 ⑦ 가출 ⑧ 비행 ⑨ 기타 ()

제 2 부 공 부 방 시 설

1. 귀 공부방의 현재 시설의 규모와 희망하는 적정 규모를 대해 적어 주십시오. 해당되는 사항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현 시설 규모	희망 시설 규모
1) 대지	평	평
2) 전용면적	평	평
3) 열람실 좌석수	석	석
4) 컴퓨터보유대수	대	대
5) 인터넷에 연결되는 컴퓨터 수	대	대

2. 공부방이 위치한 건물의 주된 용도는 무엇입니까?

☐ ① 공부방단독건물 ☐ ② 종교시설 ☐ ③ 상가
☐ ④ 일반주택 ☐ ⑤ 공공건물 ☐ ⑥ 복지시설
☐ ⑦ 기타()

3. 귀 공부방 건물의 소유형태는 ?

☐ ① 운영자 개인 소유 ☐ ② 법인 또는 단체 소유 ☐ ③ 전세
☐ ④ 월세 ☐ ⑤ 무허가 ☐ ⑥ 무상대여
☐ ⑦ 기타()

4. 다음 중 귀 공부방이 갖추고 있는 모든 설비들을 모두 표시해 주시고, 장차 갖추기를 희망하는 설비도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춘 설비	설비명	희망 설비	갖춘 설비	설비명	희망 설비
	① 열람실(독서실)			⑧ 인터넷학습실	
	② 학습지도실			⑨ 조리실·주방	
	③ 개별상담실			⑩ 강당	
	④ 집단활동실			⑪ 운동장·마당	
	⑤ 도서·도서관			⑫ 냉난방시설	
	⑥ 사무실			⑬ 비상재해시설	
	⑦ 컴퓨터학습실			⑭ 기타()	

5. 귀 공부방은 다음의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1. 공간 크기

- _____ ① 매우 충분하다 _____ ② 약간 충분하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조금 협소하다 _____ ⑤ 매우 협소하다

5-2. 안전성

- _____ ① 매우 안전하다 _____ ② 조금 안전하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조금 불안전하다 _____ ⑤ 매우 불안전하다

5-3. 쾌적함(실내 밝기와 온도, 실내장식 등)

- _____ ① 매우 쾌적하다 _____ ② 조금 쾌적하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조금 그렇지 않다 _____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4. 시설 설비(냉난방시설, 책걸상 등 집기, 도서 등)

- _____ ① 매우 충분하다 _____ ② 약간 충분하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조금 불충분하다 _____ ⑤ 매우 불충분하다

6. 귀 지역사회에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하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명과 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명 : _____)

사유 : _____

_____)

부방 운영

1. 귀 공부방의 인적자원 현황에 관한 다음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귀 공부방에서 필요한 희망 인적자원 수와 근무조건에 관해서도 답해 주십시오.

구분		운영 책임자	유급 상근교사 /실무자	유급 보조교사/ 자원교사	유급 사무직/ 관리직	공공근로 자원교사	기타 ()
현황	1) 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2) 월평균급여	원	원	원	원	원	원
	3) 주당근무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희망 근로 여건	4) 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5) 월평균급여	원	원	원	원	원	원
	6) 주당근무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4. 귀 기관은 상근교사를 포함하여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_____ ① 매우 그렇다 _____ ② 약간 그렇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그렇지 않다 _____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귀 공부방의 경우 교사 1인당 지도 적절한 청소년 수는 몇 명입니까? (명)

6. 귀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있습니까?

- _____ ① 있다(6-1번으로 가시오)
 _____ ② 없다(7번으로 가시오)

6-1. 귀 시설의 자원봉사자 현황은 ? 봉사자 유형별로 월 평균 몇 명의 봉사자가 활동하
는지 그 숫자를 적어주십시오.

자원 봉사자 유형	인원(명)
1) 대학생	명
2) 직장인	명
3) 주부	명
4) 퇴직공무원	명
5) 기타	명
6) 합 계	명

6-2.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때 귀 기관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활동
순으로 모두 적어주십시오. 합계가 100%가 되도록 나타내 주십시오.

자원 봉사 분야	비율(%)
① 학습지도	%
② 상담서비스	%
③ 특기지도(미술, 음악 등)	%
④ 문화·여가활동(공연물관람, 박물관견학, 놀이시설, 캠프 등)	%
⑤ 체육활동	%
⑥ 급식 등 노력봉사	%
⑦ 기타 ()	%
합 계	100.0 %

6-3. 귀 공부방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어떤 분야의 봉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 위 표
 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봉사 분야를 2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7. 귀 공부방에서는 공공근로교사(사회복지도우미·구청지원 일반공공근로자 등)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_____ ① 받고 있다(7-1번으로 가시오) _____ ② 받고 있지 않다(7-2번으로 가시오)

- 7-1. 공공근로교사의 지원이 공부방 운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_____ ① 크게 도움이 되었다 _____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_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_ ④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_____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7-2. 공공근로교사의 지원을 희망하십니까?

_____ ① 희망한다
_____ ② 희망하지 않는다(이유 : _____)
_____ ③ 잘 모르겠다

공부방 운영

1. 귀 공부방의 1999년 한해동안의 운영경비 조달과 지출을 적어 주십시오. 또한 공부방을 1년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희망 기본경비를 아래의 항목에 맞추어 적어 주십시오.

세 입 (1999)		세 출 (1999)		희망 기본경비(1 년간)	
항 목	금액(천원)	항 목	금액(천원)	항 목	금액(천원)
1) 정부보조금	원	7) 사업비	원	12) 사업비	원
2) 법인 및 단체 보조금	원	8) 사무비	인 건 비 원	13) 사무비	인 건 비 원
3) 후 원 금	원		운 영 비 원		운 영 비 원
4) 사업수입금	회비 원	9) 재산조성비	원	14) 재산조성비	원
	수익사업 원				
5) 기 타	원	10) 기 타	원	15) 기 타	원
6) 총 계	원	11) 총 계	원	16) 총 계	원

2. 귀 공부방은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_____ ① 받고 있다 _____ ② 받고 있지 않다

3. 귀 공부방의 운영경비는?

_____ ① 매우 풍족하다 _____ ② 조금 풍족하다 _____ ③ 적절하다
_____ ④ 조금 부족하다 _____ ⑤ 매우 부족하다

4. 귀 공부방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① 주부식 지원 ☐ ② 피복지원
☐ ③ 학용품·도서 지원 ☐ ④ 건물관리 협조
☐ ⑤ 장학금 지원
☐ ⑥ 기타 ()
☐ ⑦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

5. 귀 공부방은 일선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① 금전 및 물품 지원
☐ ② 시설지원
☐ ③ 운영인력지원(사회복지도우미사업)
☐ ④ 프로그램 지원
☐ ⑤ 이용자 알선 및 관리
☐ ⑥ 행정적 지원
☐ ⑦ 기타()

6. 정부가 귀 공부방에 대하여 지원을 한다면 어느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됩니까? 3 가지만 선택하여 중요한 순으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 ① 공부방 시설 제공 ☐ ② 공부방 시선 중·개축
☐ ③ 공부방 관리·유지·보수 ☐ ④ 교사 인건비
☐ ⑤ 프로그램운영비 ☐ ⑥ 교사 교육훈련비
☐ ⑦ 기타()

7. 귀 공부방에서는 청소년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있습니까?

- ☐ ① 무료 ☐ ② 일정액(월 _____원 또는 하루 _____원)
☐ ③ 차등제(구체적인 방식 :)

7-1. 공부방 운영을 위해 청소년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일정액을 받아야 한다(월 _____원 또는 하루 _____원)
☐ ② 차등제로 받아야 한다.(구체적인 방식 :)
☐ ③ 받지 말아야 한다

8. 후원금이 있는 경우, 후원은 주로 누구에 의해 이루어집니까? 모두 골라 비중이 큰 순서대로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 ① 운영자가 속한 종교의 신자들로부터
☐ ② 지역 주민들로부터
☐ ③ 운영자의 개별 후원자로부터
☐ ④ 기타 ()

9. 후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귀 시설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 ① 후원회를 결성하고 있다
☐ ② 후원금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작성, 배포하고 있다
☐ ③ 후원금 조성을 위하여 바자회 등 행사를 하고 있다
☐ ④ 후원금 조성을 위하여 방문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1. 귀 공부방의 이용시간 ?

구 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1) 여는 시간	시	시	시
2) 닫는 시간	시	시	시

2. 귀 공부방의 쉬는 날은 ?

- ☐ ① 매주 일요일 ☐ ② 매주 주중 1일 ☐ ③ 격주 주중 1일
☐ ④ 없다 ☐ ⑤ 기타 ()

3. 귀 공부방의 프로그램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귀 공부방에서 현재 청소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골라 중시하는 활동 순으로 5가지를 적어 주십시오. 보기에 있는 활동 외에 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활동 명을 직접 적어 주십시오.

()

① 학습지도	② 학습공간제공(열람실운영)	③ 진로지도	④ 상담서비스
⑤ 생활예절교육	⑥ 도서열람 및 대출	⑦ 야간공부방운영	⑧ 컴퓨터교육
⑨ 특기교육	⑩ 인터넷정보서비스	⑪ 문화활동	⑫ 체육활동
⑬ 성교육	⑭ 약물남용예방교육	⑮ 급식지원	⑯ 종교교육
⑰ 가족서비스	⑰ 사회성교육	⑱ 기타()	

- 4-1.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청소년들을 위해 귀 공부방에서 실시하기를 희망하거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을(현재 활동 포함) 위 보기에서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그 번호를 5 가지씩 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에 속한 활동의 경우에는 활동 명을 적어 주십시오.

()

5. 현재 귀 공부방에서 지역사회의 타 기관(타 공부방, 복지관, 청소년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이 있습니까?

_____ ① 있다(5-1번으로 가시오) _____ ② 없다(5-2번으로 가시오)

- 5-1. 현재 어느 기관과 무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까? 모두 적어 주십시오.(5-2번으로 가시오)

(연계 기관명 : _____ 연계 프로그램명 : _____)

(연계 기관명 : _____ 연계 프로그램명 : _____)

(연계 기관명 : _____ 연계 프로그램명 : _____)

- 5-2. 장차 지역 내에서 타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활동이 있으면 기관과 프로그램을 적어 주십시오.

(연계 기관명 : _____ 연계 프로그램명 : _____)

(연계 기관명 : _____ 연계 프로그램명 : _____)

(연계 기관명 : _____ 연계 프로그램명 : _____)

6. 저소득층지역의 공부방 프로그램은 어느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학습 및 숙제지도를 통한 학습능력 향상

_____ ② 문화·여가활동, 안전보호·급식, 생활지도 등을 통한 인성적 발달

_____ ③ ①과 ②를 같은 비중으로

_____ ④ 기타 (_____)

지역사회 의견

1. 귀 공부방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의 태도는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_____ ① 공부방에 대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_____ ② 공부방에 대하여 도움을 약간 주는 편이다

_____ ③ 도움을 주지는 않으나 호감을 가지고 있다

_____ ④ 무관심하다

_____ ⑤ 혐오시설로 취급하여 접촉을 기피한다

_____ ⑥ 잘 모르고 있다.

2. 귀 공부방이 속한 지역사회에는 타 공부방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_____ ① 있다(2-1번으로 가시오)

_____ ② 없다(3번으로 가시오)

- 2-1. 연간 몇 번의 모임을 갖습니까? (_____ 번)

2-2. 지금까지 공동으로 수행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

3. 귀 공부방이 지역사회 내에서 타 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고자 할 때 다음 어느 기관이 가장 좋겠습니까? 3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_____ ① 일선 행정조직 | _____ ② 상담시설 |
| _____ ③ 사회복지관 | _____ ④ 청소년 기관 및 단체(청소년회관·수련원 등) |
| _____ ⑤ 교육청·초중고교 | _____ ⑥ 민간 봉사단체·사적인 인맥 또는 교류집단 |
| _____ ⑦ 기업체 | _____ ⑧ 의료기관 |
| _____ ⑨ 대학교 동아리 | _____ ⑩ 기타() |

4. 귀 공부방이 소재한 곳의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은 귀 공부방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 _____ ① 공부방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_____ ② 공부방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는 편이다
 _____ ③ 공부방에 대한 정리를 권고한다
 _____ ④ 공부방에 대한 정리를 매우 강력히 종용한다
 _____ ⑤ 전혀 관심이 없다

5. 일선행정기관과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자주 만나십니까?

- _____ ① 만난 적이 없다
 _____ ② 만난다 (평균 월 _____ 회)

6. 귀 공부방은 청소년의 보호자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 _____ ① 매우 긴밀한 관계 _____ ② 긴밀한 관계 _____ ③ 그저그런관계
 _____ ④ 별 관계 없음 _____ ⑤ 아무 관계 없음

7. 귀 공부방에서는 자모회와 같은 학부모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 _____ ① 있다 _____ ② 없다

8. 귀 공부방은 지역내의 학교교사와 접촉해 본 적이 있습니까 ?

- _____ ① 있다(8-1번으로 가시오) _____ ② 없다(9번으로 가시오)

8-1. 학교교사들의 공부방에 대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

- _____ ① 공부방에 대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_____ ② 공부방에 대하여 도움을 약간 주는 편이다
 _____ ③ 도움을 주지는 않으나 호감을 가지고 있다
 _____ ④ 무관심하다
 _____ ⑤ 혐오시설로 취급하여 접촉을 기피한다
 _____ ⑥ 잘 모르고 있다.

9. 귀 공부방을 홍보하고 지역사회의 지원이나 협력을 얻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제10부 공부방의 지원

1. 귀 공부방은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크게 도움이 된다 _____ ② 조금 도움이 된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별 도움이 되지 못 한다. _____ ⑤ 아무 도움이 되지 못 한다

2. 공부방 운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골라 중요한 순으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____, ____, ____)

- ① 공부방 운영자금 마련
② 전문적인 교사의 확보
③ 공부방의 제도화(합법화)
④ 교사의 처우 개선
⑤ 공부방 증·개축·이전
⑥ 후원자 발굴 및 관리
⑦ 정부로부터의 행정적 지원
⑧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⑨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⑩ 기타 (_____)

3. 귀 공부방이 제도화되는 데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_____ ① 제도화에 무조건 찬성
_____ ② 제도화에 조건부 찬성
_____ ③ 제도화에 무조건 반대
_____ ④ 잘 모르겠음

- 3-1. 허가공부방으로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4. 귀 공부방이 제도화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골라 시급한 순으로 적어주십시오. (____, _____, _____)

- ① 공부방 신고시 관련된 법령 조건의 완화
- ②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 ③ 정부의 재정적 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 ④ 관리, 감독의 필요성
- ⑤ 자원봉사자 연결 및 교육
- ⑥ 전문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보완
- ⑦ 지역행정기관 혹은 복지관 등과 연결
- ⑧ 교사의 전문적 교육
- ⑨ 기타

5. 제도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며 어떻게 개정되기를 원하십니까?

(_____

 _____)

6. 귀하는 공부방의 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 공부방청소년들이나 실무자 선생님들의 글 중, 공부방 활동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의식과 정서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다룬 좋은 사례들이 있으시면 본 설문지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갖고 계신 자료 중 공부방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전형적인 사례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정리하여 본 연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부록 2 : 전국 청소년공부방 주소록

전국 청소년공부방 주소록

1)서울특별시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2)	수용인원
강남구	일원청소년독서실	일원동 621번지	2226-8740	450
강동구	암사동 공부방	암사 1동 493-14번지	480-1389	62
	암사4동 독서실	암사 4동 474-1번지	428-3231	134
	천호동 공부방	천호동 312번지	485-5844	114
강북구	미아2동 청소년 공부방	미아 2동 791-410번지	981-9009	120
	돌산공부방	미아 6동 1266번지 돌산마을	980-7798	30
	미아6동 청소년공부방	미아6동 645-134번지	986-4536	99
	미아1동 청소년 공부방	미아동 791-2125번지	986-1608	74
	녹색여성모임 공부방	수유3동 134-69 2층	903-6604	
강서구	공항동 공부방	공항동 651-7번지	666-3503	120
	발산동 공부방	내발산동 700-14번지	664-9757	120
	방화동 공부방	방화동 589-22번지	666-3659	168
	염창동 공부방	염창동 249-15번지	3664-4453	170
	화곡 7동 공부방	화곡7동 353-60번지	690-9852	132
관악구	봉천1동 청소년 공부방 '작은 학교'	봉천 1동 1151-4번지	874-2844	84
	꽃망울공부방	봉천 3동 산86-13	878-8527	
	봉천청소년독서실	봉천 7동 산 56-3번지	875-0947	360
	두리하나공부방	봉천 9동 635-74번지	847-1939	
	빛나라공부방	봉천10동 42-52	877-6908	
	작은학교공부방	봉천1동 1511-4번지	874-2844	
	열린공부방	봉천2동 7-283번지	885-9729	
	부녀회관 열린공부방	봉천3동 산89-7	886-9729	
	희망공부방	봉천5동 480-91번지	879-3518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2)	수용인원
관악구	한누리공부방	봉천9동 산102-30번지	871-1596	
	봉천3동 공부방	봉천동 산89-7	886-5838	60
	신림청소년독서실	신림 11동 산 197-31	856-1207	388
	섬김의집(신림)공부방	신림10동 302-20	871-5425	20
	신양교회 쉼터공부방	신림10동 304-25번지	889-0531	
	101동 101호새숲공부방	신림10동 339 주공A	884-3572	
	우리자리 공부방	신림3동 630-29번지	837-3903	98
	꿈나무공부방	신림7동 670-119 7/10	851-8489	
	낙골공부방	신림7동 산99-2 18/8	869-9063	20
	신림7동 공부방	신림동 104번지	856-2432	70
광진구	노유1동 독서실	노유 1동 236-179번지	463-8274	42
	노유2동 독서실	노유 2동 205-6번지	461-7979	41
	중곡3동 독서실	중곡 3동 587-8, 10번지	434-9047	80
	중곡4동 독서실	중곡 4동 98-22번지	2201-0288	60
구로구	사랑마을공부방	가리봉2동 1-9	864-4649	
	개봉 1동 청소년독서실	개봉 1동 105-24번지	2651-8200	138
	개봉 3동 청소년독서실	개봉 3동 354-6번지	686-4755	152
	구로 3동 청소년독서실	구로 3동 777-1번지	852-7771	160
	누리공부방	구로 4동 738-3번지	866-3187	15
	구로 5동 청소년독서실	구로 5동 102번지	854-7081	206
	구로청소년독서실	구로 5동 501-4번지	862-6647	302
	궁동 청소년독서실	궁동 157번지	2619-7444	186
	평화의공부방	궁동 178-14번지	2613-9895	
금천구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가리봉동 144-1번지	858-1354	108
	햇살어린이집	가산동 151-16 신명교회	867-4216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2)	수용인원
금천구	신명공부방	가산동 151-16번지	867-4216	
	새움공부방	가산동237-121 봉암빌라 바-B02	868-7842	15
	독산 1동 청소년독서실	독산동 1006-144번지	895-8226	140
	시흥 3동 공부방	시흥동 791-42번지	891-1711	84
	시흥 5동 독서실	시흥동 919-15번지	892-2415	126
노원구	상계 2동 공부방	상계 2동 194-28번지	934-2118	84
	상계5동 공부방	상계 4동 169-80번지	934-9664	48
	상계4동 공부방	상계 4동 68-50번지	936-6891	80
	셋별공부방	상계1동 1205-388 13/3	932-5048	
	마음터공부방	상계4동 111-170번지	932-5972	80
	송림빌딩2층 늘푸른공부방	중계4동 137-3	952-0095	
도봉구	늘푸른방과후교실	중계동137-3 송림빌딩 2층 434-2		
	도봉청소년독서실	방학 1동 713-13번지	3491-0410	250
동대문구	제기공부방	제기2동 137-131 3층	923-0625	
	답십리 공부방	답십리 3동 465-80	2243-3648	140
	용두동 공부방	용두 2동 103-11	926-1018	108
	동대문 공부방	장안 4동 300번지	2247-3120	312
	전농동 공부방	전농 1동 553-2번지	2214-2940	70
동작구	사당 3동 청소년독서실	사당 3동 1131-2번지	533-8928	120
	살림터방과후교실	사당5동 181-39번지	3474-0282	15
	동작문화원 독서실	상도 2동 176-3번지	미확인	274
	상도 4동 공부방	상도 4동 247-4번지	823-3036	102
	신대방 1동 청소년독서실	신대방 1동 625-1번지	842-1796	102
마포구	망원 2동 청소년독서실	망원동 451-1번지	332-2541	232
	상암청소년독서실	상암동 1583번지	376-2739	144
	파파공부방	아현1동 85-119	312-4922	
	나눔공부방	아현동 678-7번지	363-2697	
	염리청소년독서실	염리동 36-3번지	704-9240	342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2)	수용인원
서대문구	북가좌공부방	북가좌 2동 335-5번지	308-5758	120
	북아현동 공부방	북아현 1동 111-56	364-6439	70
	연희청소년독서실	연희동 188-47,48번지	338-4536	109
	홍은 2동 공부방	홍은 2동 11-370번지	391-4031	135
성동구	금호청소년독서실	금호 1가 산37-1번지	2299-4214	103
	성동청소년문화의집	금호 3가 1266번지	2236-2278	226
	바탕그림방공부방	금호1가 228-4번지	2291-6317	40
	성수교회 어깨동무공부방	성수1가 1동 21-1번지	464-7469	
	우리들공부방	성수2가 1동 655번지	461-7469	
	옥수청소년독서실	옥수 1동 523-3번지	2295-4088	128
성북구	동선 2동 공부방	동소문동 6가 239번지	923-3819	58
	새뜻희망나눔터공부방	동소문동2가 259번지	924-8789	
	삼선 1동 공부방	삼선동 1가 308-12번지	745-2089	62
	석관 2동 공부방	석관 2동 341-23번지	964-1242	102
	마가렛의집공부방	성북 2동 226-5 15/2	741-3029	45
	성북 2동 공부방	성북동 66-21번지	741-1028	62
	월곡동 공부방	월곡3동 77-213번지	911-1266	67
	월곡청소년센터	월곡3동 산2-1번지	918-3543	140
	정릉청소년독서실	정릉 4동 244-6번지	913-5427	160
	성모의집공부방	정릉3동 835-3 1/3	916-2393	
	월곡공부방	하월곡1동 88-283	914-4302	
	88-273번지 월곡공부방	하월곡1동 월곡교회	914-4303	
	밤꿀아이네공부방	하월곡3동 산2 7/3	912-0330	50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2)	수용인원
송파구	거여청소년독서실	거여동 181번지	431-1425	84
	송파청소년독서실	마천동 127-1번지	402-6809	204
	마천청소년독서실	마천동 325-5번지	443-0100	154
	연화청소년독서실	문정동 67-17번지	400-1370	114
	5층 강남향린교회 꿈나무공부방	송파동 185-6 인우빌딩	404-2159	
	송파제일독서실	송파동 95-18번지	2203-5111	72
	풍납청소년독서실	풍납동 165-2번지	488-1541	106
양천구	목 4동 청소년 독서실	목 4동 741-4번지	654-1270	180
	목 1동 공부방	목1동 405-23번지	651-6645	120
	신월 2동 공부방	신월 2동 608-12번지	2608-2519	218
	신월 3동 공부방	신월 3동 49-11번지	693-0495	53
	신월 5동 공부방	신월 5동 9-2번지	691-9224	99
	신월동 공부방	신월 7동 987번지	695-4611	375
영등포구	대림 2동 청소년독서실	대림 2동 705번지	845-6354	80
	대림 3동 청소년독서실	대림 3동 686-4번지	845-5557	76
	대림 1동 청소년독서실	대림동 899-2번지	847-4560	256
	도림 1동 청소년독서실	도림 1동 81-2번지	844-4197	120
	신길 7동 청소년독서실	신길 7동 869번지	849-8817	72
	신길 6동 청소년독서실	신길동 3741-37번지	832-6210	118
	양평 1동 공부방	양평 4가동 243-1번지	2631-6160	168
	영등포 1동 청소년독서실	영등포 1동 618-42	845-8583	172
	영등포 3동 청소년독서실	영등포 3동 7가 49-1	632-9203	104
용산구	남영동 공부방	갈월동 23-1번지	318-1085	125
	보광동 공부방	보광동 80-32번지	796-8250	79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2)	수용인원
용산구	한강 2동 공부방	용산동 2가 2-4번지	795-5797	132
	이촌 2동 공부방	이촌동 203-8번지	719-0210	84
	청파 2동 공부방	청파 3가 21-9번지	719-0130	120
은평구	신사공부방	신사동 8-32번지	385-2672	96
	용암청소년독서실	용암 1동 287-13번지	307-5382	120
	용암청소년독서실	용암 4동 287-13번지	307-5384	120
	열린공부방	용암1동 96-4 2층	382-1496	
	진관내동 공부방	진관내동 530-11번지	386-8266	502
종로구	한누리공부방	생손동 210-653	735-3633	40
	동망산 독서실	송인 1동 179-36번지	744-8226	82
	청암공부방	창신 2동 130-102번지	742-9827	
	낙산 청소년 독서실	창신 3동 32-344번지	741-4908	60
	창삼 공부방	창신3동 산6-25	미확인	85
중구	중립독서실	손기정 공원 내	392-6989	338
	신당6동 독서실	신당 6동 837-25번지	2235-7750	184
중랑구	용마청소년공부방	면목 8동 33-2번지	496-8689	80
	신내청소년독서실	신내동 492-16번지	434-3887	240

2) 부산광역시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51)	수용인원
강서구	강동동 청소년 공부방	강동동 135-1번지	972-4787	60
	대저2동 맥도 청소년 공부방	대저 2동 4802번지	917-2016	50
	천성동 청소년 공부방	천성동 785번지	972-1975	40
금정구	두구동 청소년 공부방	두구동 1153-2번지	508-1350	36
	서3동 청소년 공부방	서 3동 130-37번지	522-3134	50
	금사동 청소년 공부방	회동동 208-16번지	529-7114	50
기장군	장안읍 청소년 공부방	장안읍좌천리 252-1	727-5809	50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51)	수용인원
남구	문현2동 청소년 공부방	문현 2동 789-34번지	610-1617	55
	성분도 비둘기 공부방	문현1동 97-5번지	635-2415	50
	우암1동 청소년 공부방	우암 1동 산 22-1	647-3655	60
	밝은누리공부방	우암2동 127-10번지	643-1237	
동구	범일 5동 청소년 공부방	범일 5동 252-1401	646-4337	50
	초량 1동 청소년 공부방	초량 5동 1005-1번지	466-6831	80
	북산동 청소년 공부방	북천동 462-2번지	556-6602	80
동래구	온천3동 청소년 공부방	온천 3동 1247-7	505-2094	50
	온천3동 달북 공부방	온천 3동 1610-7	505-2094	70
	범진동 청소년 공부방	범진동 434번지	805-0451	120
부산진구	개금 2동 청소년공부방	개금 2동 633-103	894-0884	57
	개금동청소년공부방	개금 3동 246-4	894-0074	120
	부암동 새마을회관 청소년 공부방	부암 1동 298-44	802-2273	52
	구포1동 청소년 공부방	구포 1동 430-1번지	336-9386	180
북구	구포3동 청소년공부방	구포 3동 1239-13번지	343-5466	50
	덕천1동 청소년 공부방	덕천 1동 410-4번지	331-8811	105
	모라1동 청소년 공부방	모라 2동 1064번지	302-2015	121
사상구	모라3동 청소년 공부방	모라 3동 75 모라주공 3단지	305-4286	96
	학장동 청소년 공부방	학장동 168-7번지	311-4017	50
사하구	감천2동 청소년 공부방	감천 2동 16-886	203-0543	72
	우리누리공부방	감천2동 6-776번지	291-9020	
	다대1동 청소년 공부방	다대 1동 1548-12	264-9033	52
	다대2동 청소년 공부방	다대 2동 120-35	265-5426	50
	나눔공부방	신평동 84-75번지	292-0436	25
	장림 2동 청소년공부방	장림 2동 601번지	265-6986	50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51)	수용인원
서구	남부민동 청소년공부방	남부민동 428번지	254-6919	71
	서대신 1동 청소년공부방	서대신동 1가 265-1	253-4372	50
연제구	물만골공부방	연산2동 산183	865-0956	
	거제 4동 청소년공부방	거제 4동 649-65	506-0771	50
	연산5동 청소년공부방	연산 5동 1479-38	867-0698	50
영도구	신선 1동 청소년공부방	신선 1가 194-22	415-1302	72
	신선 3동 청소년공부방	신선 3가 84-3번지	415-1302	72
	해돋이공부방	청학1동 468-366	416-1361	40
중구	중구 청소년 공부방	대청동4가 75-7번지	464-3137	50
진구	우리들의집공부방	번천2동 1544	647-3066	
	한울타리신나는집 공부방	전포1동 316-1	805-6036	35
해운대구	반송2동 청소년공부방	반송 2동 77번지	532-2431	92
	성분도빛둘레공부방	반송1동 51-200	545-9934	30
	반여2동 청소년공부방	반여2동 1291-531	782-6640	120

3) 대구광역시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53)	수용인원
남구	대명8동 공부방	대명 5동 2003번지	474-9883	72
	대명5동 공부방	대명 5동 87-128번지	653-8973	64
	대명7동 공부방	대명 7동 2254번지	627-8124	70
	봉덕1동 공부방	봉덕 1동 500-1번지	474-5550	50
달서구	용산동 공부방	감삼동 282-4번지	557-1788	80
	감삼공부방	감삼동 282-4번지	557-1788	50
	두류1동 공부방	두류 1동 829-20	625-8064	72
	가무내 공부방	본동 1058번지	624-4579	38
	무궁화 공부	본리동 184-1번지	624-1879	49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53)	수용인원
달서구	상인 청소년 공부방	상인동 1583-5번지	641-1678	100
	송곡청소년 무료공부방	송현동 295-64번지	622-4594	42
	신당동 공부방	신당동 193-5번지	583-8073	70
	월성동 공부방	월성동 1537번지	642-0722	100
달성군	화원읍 공부방	화원읍 성산리 501	639-1998	48
동구	효목1동 공부방	목 1동 175-11번지	954-3836	50
	신암3동 공부방	암 3동 169-11번지	942-1781	96
	신암5동 공부방	암 5동 128-22번지	957-6990	60
북구	대현2동 공부방	대현 2동 394-3번지	953-9088	30
	북현2동 공부방	북현동 산 107-3번지	657-4655	83
	철성2동 공부방	철성 2가 407-12번지	미확인	73
서구	내당2·3동 공부방	내당 2동 1008-1번지	256-8654	74
	비산1동 공부방	비산 1동 716-8번지	559-1625	72
	비산2·3동 공부방	비산 3동 125-22번지3층	562-0396	60
	비산4동 공부방	비산 4동 298-32번지	552-7986	78
	비산5동 공부방	비산 5동 1185-59번지	368-0101	72
	비산6동 공부방	비산 6동 448-4번지	552-8696	64
	원대동 공부방	원대1가 111-14	358-7816	72
	평리1동 공부방	평리 1동 707-31	552-9212	64
	평리2동 공부방	평리 2동 1107-33	552-6221	72
	평리4동 공부방	평리 4동 1319-6번지	552-5883	50
	평리5동 공부방	평리 5동 1516-8번지	565-0061	50
수성구	수성4가 공부방	수성4가 1133-11,19	741-5855	60
중구	남산3동 공부방	산 3동 2185-70번지	256-7543	54
	남산 4동 공부방	산 4동 2482-1번지	254-2562	40

4) 인천광역시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32)	수용인원
11중구	신선동 공부방	선화동 14-11번지	미확인	76
1동구	민들레집 공부방	화수1동278-30번지 11/4	762-8664	16
1중구	율목동 공부방	율목동 86번지	미확인	40
강화군	남산 공부방	강화읍 남산리 91	미확인	56
	청소년 야간 공부방	길상면 온수2리	937-7975	24
	성경 공부방	하점면 이강리 412	933-6803	48
계양구	서운동 공부방	125-18번지	미확인	50
	해인교회 무료 탁아·공부방	계산 2동 897-118	543-6330	
	인천내일울여는집부설 청소년사랑방	계산2동 903-18번지	555-1377	30
	계산3동 공부방	계산동 320-7번지	543-6904	78
	계산1동 공부방	계산동 972-8번지	542-7165	90
	작전1동 공부방	작전동 147-2번지	미확인	50
	작전2동 공부방	작전동 864-57번지	미확인	120
	효성2동 공부방	효성동 273-34번지	547-8386	60
	용현5동 공부방	용현 5동 622-1번지	미확인	86
	주안4동 공부방	주안 4동 1483-15번지	미확인	66
남구	수정교회부설 수정공부방	주안6동 890-4번지	423-8027	
	구월4동 공부방	구월 4동 1268번지	미확인	46
남동구	청솔의 집	구월4동 1268번지 대주빌딩2층	466-3178	30
	기차길옆 공부방	만석동 9 4/6	776-1969	43
동구	인천나눔의집공부방	송림 4-8번지	764-0186	25
	나눔의 집 공부방	송림 4동 8번지	미확인	25
	송현샘교회 부설 송현샘공부방	송림3동 80-28번지	762-3603	
	아름다운교회공부방	화수2동 35-37번지	764-4484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32)	수용인원
부평구	정광상가2층 서로사랑공부방	갈산동 171-17	522-3312	60
	갈산1동 공부방	갈산동 59-5번지	미확인	95
	부개1동 공부방	부개동 359번지	미확인	64
	산곡2동 공부방	산곡동 100-36번지	미확인	72
	산곡1동 청소년 공부방	산곡동 5-12번지	519-3213	120
	나섬공부방	산동 54-2 과영상가 4층	511-3193	
	한빛신나는집공부방	삼산동 224-4번지	519-7006	
	십정동주민사업센터 해님방공부방	십정1동 201-4 15/1	432-3691	
	십정1동 공부방	십정동 201-4번지	미확인	30
	햇살공부방	청천1동 19-18	504-6308	
	오순도순공부방	산곡1동 63-60호	507-2340	25
	가정1동 공부방	가정동 494번지	미확인	72
서구	가좌2동 진주 3단지 공부방	가좌 2동 30-86번지	576-2903	42
	가좌3동 공부방	가좌 3동 212-12번지	미확인	58
	새벽공부방	가좌2동 27-11 3층	582-2869	20
	가좌2동 공부방	가좌동 30-102번지	미확인	48
	가좌4동 공부방	가좌동 346-1번지	미확인	62
	동아아파트 공부방	마전동 587번지	562-3474	56
	석남2동 공부방	석남 2동 573번지	미확인	52
	석남3동 공부방	석남 3동 471~1번지	571-1582	52
	어깨동무공부방	석남1동 477-13번지	582-1701	
연수구	동남 아파트 동춘 2동 공부방	동춘 2동 943번지	미확인	64
	솔안 공부방	연수 3동 533-2번지	미확인	100
	주공3차 아파트 연수3동 주공3차공부방	연수 3동 578번지	미확인	57
	화년교회 공부방	연수2동 621-3번지	815-1995	
	시영1차 아파트 연수2동 공부방	연수동 588-2번지	미확인	96
	연수 2차 아파트 연수 2차 공부방	연수동 588-2번지	미확인	72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32)	수용인원
용진군	1130-8번지 백령면청소년공부방	백령면 진촌리	미확인	46
	꿈을키우는집공부방	북도면 신도1리 960	886-4059	
중구	내경동 공부방	경동 208-171번지	미확인	46
	도원동 공부방	도원동 23-165번지	미확인	77
	북성동 공부방	북성 2가 9-33번지	미확인	40
	신포동 공부방	사동 22-89번지	미확인	90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공부방	송학동 2가 1번지	761-4855	
	신흥동 공부방	신흥동 2가 27번지	미확인	78
	중앙동 공부방	중앙동 2가 1번지	미확인	84

5) 광주광역시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62)	수용인원
광산구	해돋이다락방공부방	신가동 884-1번지	506-308	
	꼬마미르공부방	우산동 1036-17번지	942-8281	
	하남청소년공부방	우산동 1571-1번지	951-0701	78
	철단무등공부방	월계동 816-11		
	월곡청소년공부방	월곡2동 490-7번지	954-4360	120
남구	어울림공부방	방림2동 70-10번지		
	예청소년수련원	봉선동 145번지	676-5087	60
	꿈터공부방	월산3동 323-31번지	365-7163	15
	동원청소년공부방	월산동 389번지	362-0772	70
동구	계림청소년공부방	계림동 202-2번지	227-8864	50
	희망청소년공부방	계림1동 546-37번지 1/1	524-0366	50
	학2청소년공부방	학 2동 634-40번지	226-0560	50
북구	각화청소년공부방	각화동 202번지	265-1052	60
	무등청소년수련원	두암동 969-6번지	268-0093	70
	문흥폴아이에공부방	문흥동 744-3번지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62)	수용인원
북구	양산청소년공부방	양산동 657-2번지	571-4100	61
	오치청소년공부방	오치동 1003번지	267-3700	80
	광주학당	풍향동 602-10번지	512-5788	55
서구	무진청소년공부방	광천동 655-9번지	372-2600	80
	까치밥 공부방	금호1동 549	383-5076	15
	쌍촌청소년공부방	쌍촌동 1229번지	375-0036	76
	양동청소년공부방	양1동 311-1번지	364-3550	60
	양3동청소년공부방	양3동 456-120번지	369-9434	62
	우리동네공부방	양3동 384-1번지	364-3831	

6)대전광역시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42)	수용인원
대덕구	섬니공부방	대화동 31-43번지	622-3389	
	대덕구 제1공부방	대화동 35-66번지	미확인	64
	대덕구 제2공부방	오정동 458-25번지	미확인	70
동구	동구 제1공부방	가양1동 436-9번지	621-3991	129
	우리공부방	대2동 5-243번지	624-7143	5
	새날공부방	부사동 210-11 4층	221-3201	
	새나루공부방	삼성1동 110-1번지 2층	637-6393	70
	성남공부방	성남1동 179-53번지	626-0736	
	동구 제3공부방	용운동 153-4번지	미확인	50
	동구 제2공부방	인동 16-44번지	282-5592	144
	소망공부방	관암2동 263번지 은진송씨종친회 4층	284-4428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42)	수용인원
서구	서구 제3공부방	도마2동 106-22 새마을금고 3층	미확인	118
	서구 제1공부방	월평동 218브릭 주공아파트 1단지	미확인	68
	서구 제2공부방	월평동 218브릭 주공아파트 3단지	484-6181	72
유성구	유성구 제1공부방	송강동 10번지	934-6338	52
	유성구 제2공부방	학하동 567번지	미확인	52
중구	중구 제3공부방	부사동 582번지	미확인	50
	중구 제2공부방	산성동 330-10번지	미확인	50
	중구 제4공부방	용두동 53-31번지	255-2278	50
	중구 제1공부방	중촌동 128-1번지	221-2577	50

7) 울산광역시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52)	수용인원
남구	남구 청소년공부방	신정4동 795-2번지	268-3374	40

8) 강원도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33)	수용인원
강릉시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내	입암동 49-9번지	653-6375	35
	주문진 청년회의소	주문진읍 교향리	662-4532	70
고성군	거진복지도서관 내	거진읍 거진5리 8반	682-3215	88
동해시	삼화 무릉복지회관 운 영위원회	삼화동 183번지	534-7997	100
삼척시	원덕읍공부방	원덕읍 호산리 242번지	572-4819	24
	하장면공부방	하장면 광동리 172-3	570-3604	40
속초시	속초 YMCA 내	교동 452-3번지	653-3523	30
	영랑동개발위원회	영랑동 141-2번지	631-8307	56
양구군	동면새마을금고	동면 덕곡리 86-19번지	481-0044	50
영월군	영월청소년공부방	영월읍 덕포5리 4반 새 마을금고 내	374-5173	50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33)	수용인원
원주시	원주사회복지협의회	일산동 219-18번지	742-1104	60
	바르게살기(협)	홍업면 홍업리 899-3	762-1948	50
	홍업면위원회			
인제군	상록회 내	남면 어른1리 5반	462-2009	40
정선군	고한 청소년공부방	고한읍 고한 88-22번지	591-7179	42
철원군	범죄예방위원회 철원협의회 내	갈말읍 지포리 220번지	452-5420	60
춘천시	공부방	효자 1동 373-90번지	254-7244	42
태백시	광산살림선교회 내	황지 1동 368-12번지	534-7997	72
평창군	대화3리 노인회 내	대화면 대화3리	333-0998	50
홍천군	양덕원리부녀회 내 청소년 공부방	남면 양덕원2리 142-22	432-0223	36
화천군	늘푸른청년회	사내면 사창리 459-8	441-2934	50
횡성군	강림면공부방	강림면 848-1번지	342-7005	42
홍천군	풍암1리 개발위원회 내 서석청소년공부방	서석면 풍암1리 482-1	433-4025	72

9)경기도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31)	수용인원
가평군	북면청소년공부방	북면 목동리 866-2	미확인	66
	북지회관 외서면 청소년공부방	외서면 청평리 333-1	미확인	108
	북지회관 하면 청소년공부방	하면 현리 291-10	미확인	80
	신도복지회관신도동 청소년공부방	덕양구 삼송동 30-50	미확인	78
고양시	능곡복지회관 능곡동청소년공부방	덕양구 토당동 295-2	미확인	72
	화전복지회관 화전동청소년공부방	덕양구 화전동 226-6	미확인	36
	풍동청소년공부방	일산구 풍동 349-3	미확인	50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31)	수용인원
과천시	문원동복지회관 문원2단지청소년공부방	문원동155-82번지	미확인	74
	원문2단지 청소년공부방	원문동2 원문2단지 관리사무소	미확인	72
	중앙1단지 청소년공부방	중앙동37 중앙1단지 관리사무소	미확인	58
광명시	광명7동청소년공부방	광명7동 309-6번지	미확인	164
	금광어린이집 꾸러기공부방	광명7동 722번지 3층	681-6287	
	온신공부방	노은사동 산85-2		
	소하1동 가리대청소년공부방	소하1동 198-3번지	미확인	96
	소하1동청소년공부방	소하1동 81-4번지	미확인	136
	소하2동 오리문고청소년공부방	소하2동 1268-3번지	898-2791	64
	하안1동청소년공부방	하안1동 702번지	미확인	72
	하안3동청소년공부방	하안3동 200번지	미확인	98
광주군	한우리공부방	실촌면 곤지암리 456-14	764-8302	
	쌍동리청소년공부방	초월면 쌍동리 131-6	미확인	40
구리시	갈매청소년공부방	갈매동 256-14 마을회관	미확인	120
	팔기원청소년공부방	교문동 327-168번지	미확인	48
군포시	산본2동청소년공부방	산본동 1052번지 노인정	미확인	33
	가야사회복지관 가야청소년공부방	산본동 1155번지	395-4894	62
김포시	길훈청소년공부방	고촌면 신곡리 539-1	미확인	
	고촌청소년공부방	고촌면 신곡리 539-1	미확인	
	사우 1.3동 청소년공부방	사우동 114	미확인	
	군민회관 청소년공부방	사우동 24-4	미확인	
	양곡 청소년공부방	양촌면 양곡리 869-4	미확인	
	월곶복지회관 청소년공부방	월곶면 군하리 188-10	미확인	
	가현4리 청소년공부방	통진면 가현리 324	미확인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31)	수용인원
김포시	고정1리 청소년공부방	통진면 고정리 309-1	미확인	
	고정2리 청소년공부방	통진면 고정리 551	미확인	
	통진수련실 청소년공부방	통진면 서암리 758-22	미확인	
	하성복지회관 청소년공부방	하성면 마곡리 637-1	988-1881	210
남양주시	성가정공부방	오남면 오남2리 307	575-4455	10
	마을회관	와부읍 월문리 1149-2	미확인	16
	월문청소년회관			
	남광청소년공부방	지금동 473-1마을회관	미확인	20
	평내청소년공부방	평내동 산32-1 마을회관	591-6474	28
	호평청소년공부방	호평동 409-4 마을회관	미확인	30
	화도복지회관 화도청소년공부방	화도읍마석우리327-14	미확인	60
동두천시	광암청소년공부방	광암동 184-5번지	미확인	36
	모랫마을청소년공부방	생연2동 788-87번지	미확인	32
	동두천청소년공부방	생연3동 597-1번지	862-7188	80
	새움터공부방	중앙동 541-39 11/4 3층	867-4655	
부천시	괴안동 청소년공부방	소사구 괴안동 72번지	미확인	24
	범박 공부방	소사구 범박동 113-9	344-0056	
	범박공부방	소사구 범박동 113-9	미확인	
	햇님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소사구 소사본3동 400-3 308호	349-3331	
	복된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소사구 송내동 335-20	612-3484	15
	온누리어린이집공부방	소사구 십곡본1동 807	671-0081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쉼터	소사구소사본1동 101-42	349-3101	
	소사3동청소년공부방	소사구소사본3동 277-32	미확인	60
	복음자리교회공부방	오정구 고강1동 49-193	679-5758	25
	고강성심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오정구 고강본동 324-4	679-9706	
	삼정복지회관 방과 후 교실	오정구 삼정동 365-2	323-3162	
	오정동청소년공부방	오정구 오정동 192-8	미확인	78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31)	수용인원
부천시	시립오정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오정구 오정동 364-3	671-0081	
	로템교회 방과 후 교실	오정구 오정동 551-6	681-0102	
	부천카톨릭노동사목 새날열린교실	원미구 도당동 271-11	675-0171	
	새날공부방	원미구 도당동 271-11		
	신상리마을 공부방	원미구 상1동 8-11	524-1829	20
	꼬마포래	원미구 상동 318-1번지	652-0420	
	밀알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원미구 소사동 23-22	347-7676	20
	새롭공부방	원미구 약대동 133-22	617-2354	30
	새롭교회 새롭공부방	원미구 약대동 145-1	671-2354	
	신흥동청소년공부방	원미구 약대동 94-2번지	미확인	60
	지평교회 작은공부방	원미구 역곡	미확인	
	역곡2동 청소년공부방	원미구 역곡2동 36-9	미확인	72
	작은공부방	원미구 역곡2동 45-14	341-0948	
	역곡신나는공부방	원미구 역곡2동 74-143	348-7653	
	부천시민연합 부설 어린이공부방	원미구 원미1동 111-6	613-3230	
	덕유사회복지관 방과 후 교실	원미구 중3동 1041번지	325-2161	
	설악마을청소년공부방	원미구 중3동 3-1빌딩	미확인	52
	금강마을청소년공부방	원미구 중3동 4-1빌딩	미확인	70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방과 후 교실	원미구 중4동 한라마을	324-0723	
	열매교회 방과후 교실	원미구 중동 755-24번지	654-9865	
	중동 청소년공부방	원미구 중동 801번지	미확인	120
	미리내청소년공부방	원미구 중동신도시 1181	미확인	53
	춘의종합사회복지관 낮은올타리	원미구 춘의동 237번지	653-6131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31)	수용인원
성남시	하안마을 청소년공부방	분당구 구미동112번지 하안마을6단지	717-1050	54
	청솔마을 청소년공부방	분당구 금곡동 133번지	미확인	54
	단대동청소년공부방	수정구 단대동 4274번지	미확인	60
	산성동 청소년공부방	수정구 산성동 2156번지	미확인	60
	수진1동 청소년공부방	수정구 수진1동 2887	미확인	36
	엄마놀이방	수정구 수진1동865 3층	754-8428	10
	수진2동 청소년공부방	수정구 수진2동 3988	756-6523	72
	신흥1동 청소년공부방	수정구 신흥1동 5055	미확인	60
	신흥2동 청소년공부방	수정구 신흥2동 192번지	미확인	72
	신흥3동 청소년공부방	수정구 신흥3동 3309	746-9395	72
	태평1동 청소년공부방	수정구 태평1동 6117	미확인	72
	주민교회공부방	수정구 태평2동 2788-11	755-2404	
	태평3동 청소년공부방	수정구 태평3동 4759	미확인	72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수정구 태평3동3698 3층	758-7782	
	새날아동상담소 방과후 교실	중원구 금광1동 679번지	745-9808	15
	상대원1동 청소년공부방	중원구 상대원1동 1571	미확인	72
	선경(아)청소년공부방	중원구 상대원1동 279-1	미확인	96
	상대원2동 청소년공부방	중원구 상대원2동5220-2	미확인	72
	상대원3동 청소년공부방	중원구 상대원3동 826	미확인	60
	신나는공부방	중원구 은행2동 1093 유현빌라 지층	741-1448	30
	성남지역공동체 교육문화센터 꿈나무	중원구 은행2동 1822	743-4416	
	은행2동 청소년공부방	중원구 은행2동 959-1	731-7062	84
	중동청소년공부방	중원구 중동 1539번지	749-3741	48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31)	수용인원
수원시	구운동 청소년회관공부방	권선구 구운동 507-15	292-9966	36
	밀알공부방	권선구 권선동 984-8	223-0918	
	학촌유치원내 권선동 청소년공부방	권선구 권선동1163-6	미확인	60
	111-104매산새마을금고 청소년공부방	권선구 매산로 3가	미확인	40
	서둔새마을금고 청소년공부방	권선구 서둔동 106-4	미확인	39
	세류2동 청소년회관 내 청소년공부방	권선구 세류2동 667번지	미확인	24
	세류1동 청소년공부방	권선구 세류동 225-22	미확인	68
	연무새마을금고 청소년공부방	장안구 연무동 132-2	미확인	120
	영화동 청소년공부방	장안구 영화동 250-7	미확인	50
	울전동 청소년공부방	장안구 울전동 350-4	미확인	38
	대유평청소년공부방	장안구 정자2동 32-7	미확인	100
	샘터 야학	팔달구 매탄1동 172-104	219-2788	
	매탄3동 청소년공부방	팔달구 매탄3동 990번지	미확인	60
	매탄4동 청소년공부방	팔달구 매탄4동 232-2	미확인	56
	우만청소년공부방	팔달구 우만동 262번지	미확인	66
	원천새마을금고 내 청소년공부방	팔달구 원천동 71-1번지	미확인	32
시흥시	군자동청소년공부방	거모동 1660-2번지	미확인	58
	신협문화동산 청소년공부방	거모동 23번지	미확인	88
	시흥신나는 어린이공부방	대야동 487번지 2층	312-1072	20
	매화복지회관 청소년공부방	매화동 212번지	미확인	80
	샘물청소년공부방	신천동 32-3번지 복음자 리 마을회관	312-5576	40
	신흥청소년공부방	신천동 545-73번지	미확인	48
	어깨동무청소년공부방	신천동 91-4번지	미확인	80
	달월청소년공부방	월곶동 488-3번지	미확인	40
	천주교사회일꾼복지관 공부방	정왕동 54블록 20-10	497-7151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31)	수용인원
안산시	고잔1동청소년공부방	고잔1동 659-6번지	481-2610	66
	성산청소년공부방	본오동 885-18번지	미확인	72
	대부동청소년공부방	북동 473-6번지	883-7187	46
	선부어린이집 형제청소년공부방	선부2동 997번지	미확인	126
	형제청소년공부방	선부2동 997번지 3층	485-9918	50
	희망공부방	와동 811-5번지		
	예은공부방	원곡동 758번지	494-7936	
	영신공부방	월피동 451-10	411-6272	
	일동복지회관 청소년공부방	일동 125번지	미확인	90
안성시	고삼청소년공부방	고삼면 가유리 232-7	미확인	30
	공도청소년공부방	공도면 송두리 60-39	미확인	100
	마전청소년공부방	삼죽면 마전2리 39-9	미확인	30
	안성읍청소년공부방	안성읍 봉남리 4번지	미확인	50
	일죽교회공부방	일죽면 송천리 250-1	674-7626	
안양시	달안동 청소년공부방	동안구 달안동 1109-4	미확인	54
	부흥동 청소년공부방	동안구 부흥동 1102번지	미확인	80
	비산1동 청소년공부방	동안구 비산1동 541-60	469-7984	60
	비산2동 청소년공부방	동안구 비산2동 418-13	미확인	84
	평안동 청소년공부방	동안구 평안동 896-4	미확인	78
	한무리 공부방	동안구 호계3동 660-1	453-9603	
	석수1동 청소년공부방	만안구 석수1동 132-5	미확인	30
	청소년배움터	만안구 안양1동 622-3 광흥빌딩 4층	444-7811	
	안양1동 청소년공부방	만안구 안양1동 92-25	미확인	50
	안민공부방	만안구 안양2동 830-11 2층	448-0185	
	안양2동 청소년공부방	만안구 안양2동 842-4	미확인	54
	안양5동 청소년공부방	만안구 안양5동 707-103	미확인	96
	우리공부방	만안구 안양7동 124-1	441-6734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31)	수용인원
양주군	광적청소년공부방	광적면 가남리 749번지	미확인	101
	남면청소년공부방	남면 신산리 150번지	867-6635	108
양평군	하자포리회관 개군청소년공부방	개군면 하자포리 298	미확인	50
	복지회관 단월청소년공부방	단월면 보룡리 386-16	771-7616	36
	면민회관 서종청소년공부방	서종면 문호리 768-4	774-4957	56
	국수청소년공부방	양서면 국수리 279-9	미확인	37
	옥천청소년공부방	옥천면 옥천리 530	미확인	20
	복지회관 용문청소년공부방	용문면 다문리 384-1	미확인	72
	지제청소년공부방	지제면 지평리 529	미확인	120
	청운청소년공부방	청운면 용두리 464-2	미확인	78
여주군	가남청소년공부방	가남면 태평리 138-8	884-3301	120
	현대청소년공부방	여주읍 홍문리 181번지 현대A 상가3층	미확인	72
연천군	삼거리청소년공부방	군남면 삼거리 417-16	미확인	30
	마을회관 상리청소년공부방	연천읍 상리 139-3번지	미확인	30
	연천읍 차탄1리 청소년공부방	연천읍 차탄1리 연천읍 민회관 내	839-2653	188
	마을회관 통현리청소년공부방	연천읍 통현리 249-4	미확인	30
	마을회관 궁평리청소년공부방	청산면 궁평리 489번지	835-3644	32
오산시	월동청소년공부방	월동 575 복지회관	미확인	40
	다솜 신나는 집 공부방	오산동 540-22번지	374-8582	
용인시	양지청소년공부방	양지면 364-1 복지회관	미확인	96
	복지회관 백암청소년공부방	외사면 백암리 495-3	미확인	72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31)	수용인원
용인시	복지회관 내 기청소년공부방	외사면 봉무리 651번지	미확인	46
	노동복지회관 용인시청소년공부방	용인읍 김량장동 407	336-1750	55
	복지회관 원삼청소년공부방	원삼면 고당리 358-11	미확인	47
	복지회관 원천청소년공부방	이동면 천리 238번지	미확인	96
의왕시	부곡청소년공부방	상동 산 41-3번지	미확인	50
	청지기 공부방	오전동 663-4번지	459-3309	
	청계동복지회관 청계청소년공부방	청계동 824-2번지	미확인	40
의정부시	가능3동 청소년공부방	가능3동 702-10번지	873-2633	52
	의정부2동 청소년공부방	의정부2동 431-31번지	미확인	42
이천시	사동청소년공부방	대월면 군량리 507	미확인	40
	오천청소년공부방	마장면 오천리 283-15	633-9737	60
	서경청소년공부방	모가면 서경리 327	미확인	28
	모가청소년공부방	모가면 진가리	미확인	52
	백사청소년공부방	백사면 현방리	634-1981	87
	부발청소년공부방	부발읍 무촌리 168-9	미확인	142
	도봉제일공부방	신둔면 도봉리 488-4	638-5613	
	수광청소년공부방	신둔면 수광리 284-3	미확인	30
	고당청소년공부방	율면 고당리	미확인	22
	율현청소년공부방	율현동 117번지	638-0467	30
	장호원청소년공부방	장호원읍 오남리 14-1	641-1340	193
	안평청소년공부방	호법면 안평리	미확인	26
파주시	율곡청소년공부방	법원읍 대능리 92-7번지	미확인	124
	늘노리청소년공부방	파평면 늘노리 27-10	미확인	50
	덕천리청소년공부방	파평면 덕천리 111-14	958-4514	48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31)	수용인원
평택시	평택공부방	비전1동 779-9번지	651-9607	
	나눔의 지역복지 선교센터	신장2동 294-22번지	664-9892	20
	신장2동청소년공부방	신장동 267-247번지	미확인	60
	안중청소년공부방	안중면 안중리 299-10	618-3081	120
	중앙동청소년공부방	이충동 381번지	666-1990	186
포천군	가산청소년공부방	가산면 마산리 603-9	미확인	50
	고모청소년공부방	소흘읍 고모리 556	미확인	52
	공섬청소년공부방	신북면 기지리 890	미확인	50
	복지회관 각흘청소년공부방	영북면 운천리 559-3	미확인	50
	양문청소년공부방	영중면 양문리 828-6	미확인	48
	마울회관 이동청소년공부방	이동면 장암리 245-35	미확인	32
	마울회관 내 선단청소년공부방	포천읍 선단2리 219-9	미확인	24
	덕풍3동청소년공부방	덕풍3동 80번지 덕풍3동 사무소	미확인	29
	더우개청소년공부방	신장2동 106 마울회관	미확인	77
화성군	남양리청소년공부방	남양면 남양리 1163-9	미확인	40
	마울회관 영천리청소년공부방	동탄면 영천리 322	미확인	30
	마울회관 영천리청소년공부방	마도면 두곡리 421	미확인	28
	상리 청소년공부방	봉담읍 상리 27-1	227-1306	60
	복지회관 신왕리청소년공부방	송산면 사강리 71116	미확인	84
	복지회관 신왕리청소년공부방	양감면 신왕리 865-2	352-6549	72

10)경상남도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55)	수용인원
거제시	일운면공부방	일운면 769-1번지		
거창군	거창군공부방	거창읍 대동리 703		
마산시	YWCA공부방	합포구 중앙동 4-190	246-8746	50
	구암2동공부방	회원구 구암동 31		
	합성2동청소년공부방	회원구 합성동 205-5	299-1908	80
밀양시	가곡동공부방	가곡동 375번지		
	내일동공부방	내일동 431-216		
사천시	늑도공부방	늑도동 40번지		
	대방공부방	대방동 327-1번지		
	신수공부방	신수동 산21		
양산시	상북면공부방	상북면		
	중앙동공부방	중앙동		
	하북면공부방	하북면		
진주시	푸른솔중고등학교 공부방	상봉동 1108-6번지		
	옥봉남동공부방	옥봉동 650-24번지		
진해시	웅천동공부방	성내동 375-2번지		
	중앙동공부방	신흥동 2번지		
	여좌동공부방	여좌동 109-1번지		
창녕군	대한상가 2층 예술공부방	창녕읍 직교리 660번지	533-8595	
창원시	대원동청소년공부방	대원동 37-5번지		
	봉곡동청소년공부방	봉곡동 46B		
	사림동청소년공부방	사림동 87-9번지		
통영시	도남동공부방	도남동 191-9		
	중앙동공부방	중앙동 38-4번지	646-2581	50
하동군	만나공부방	하동읍 읍내리 890		

11)경상북도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55)	수용인원
경산시	동서리청소년공부방	하양읍 동서리 558-4	853-6853	84
경주시	양월5리청소년공부방	안강읍 양월5리 1255-33번지	미확인	58
구미시	이문리청소년공부방	선산읍 이문리 83-2	482-4278	50
군위군	의흥청소년공부방	의흥면 읍내리 476-7	382-9954	66
김천시	대덕청소년공부방	대덕면 관기리 372-8	미확인	60
문경시	시영아파트 청소년공부방	홍덕동 577번지	555-4428	101
봉화군	춘양청소년공부방	춘양면 의양리 370-14	미확인	88
상주시	효곡공부방	공성면 효곡2리	535-8248	15
	함창청소년공부방	함창읍 구항리 160-1	541-3400	100
안동시	안기동청소년공부방 '충효교실'	안기동 168-6번지(대원아파트상가 3층)	852-5064	60
영덕군	복지회관 내 축산1리청소년공부방	축산면 축산1리 182	734-0805	50
영양군	사동공부방	청기면 사리 60-2번지	682-7012	10
영주시	샘물청소년공부방	가흥1동 1385번지 가흥 종합사회복지관내	636-0837	54
영주시	풍기청소년공부방	풍기읍 동부6리 404-3	미확인	60
영천시	삼산APT내 삼산청소년공부방	문외동 200번지	미확인	140
예천군	용문면 청소년공부방	용문면 상금곡리 488	미확인	88
	지보면청소년공부방	지보면 마전리 169-1	미확인	52
	풍양면청소년공부방	풍양면 낙상리 173-1	미확인	77
울릉군	서면남서리 청소년공부방	서면 남서1리 38-3	미확인	50
울진군	울진청소년공부방	울진읍 읍내리 353-3	782-5276	69
	원남청소년공부방	원남면 매화리 1158-7	미확인	70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55)	수용인원
의성군	송림청소년공부방	금성면 대리3리 64-20	834-0136	150
	다인청소년공부방	다인면 서릉리611-11	미확인	72
철곡군	삼주아파트단지 내 삼주문고공부방	약북면 관호리952	973-2677	50
청송군	명당리청소년공부방	안덕면 명당리 377-1	미확인	70
포항시	구룡포청소년공부방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2 리 954-7번지	미확인	120
	연일청소년공부방	남구 연일읍 괴정리 289-1번지	미확인	100
	청림청소년공부방	남구 청림동 8-14번지	미확인	90

12)전라남도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61)	수용인원
강진군	병영청소년공부방	병영면 성동리 35번지	미확인	
고흥군	고흥청소년공부방	고흥읍 남계리 684-7	835-3101	50
	녹동 신나는 집	도양읍 봉암리 3321	844-0129	
	늘사랑 공부방	두원면 운대리 669	835-9964	10
곡성군	현정공부방	검면 현정리 432-1	미확인	
	석정청소년공부방	석곡면 석곡리 196-6	미확인	
	주산공부방	옥곡면 주산리 180	363-0221	
광양시	신나는공부방	광양읍 인서리 107-1번 지 광양YWCA	762-0012	30
	옥곡공부방	옥곡면 묵백리 789-1	772-4852	
	선유섬공부방	옥곡면 선유리 303번지	772-9283	
	광양청소년공부방	읍내리 239-24번지	761-1335	80
	태인수표공부방	태인동 125-117번지	792-0741	
나주시	태인동청소년공부방	태인동 1350-13번지	792-5034	60
	금계동청소년공부방	금계동 33-9번지	미확인	
	나주청소년공부방	과원동 109-5	332-5115	40
목포시	대성동청소년공부방	대성동 176-3번지	274-5051	60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61)	수용인원
목포시	온금동청소년공부방	온금동 22-23번지	242-5692	66
	죽교동청소년공부방	죽교동 177-7번지	미확인	50
보성군	벌교원동 공부방	벌교읍 처령리 산4번지	857-1944	20
	주봉공부방	보성읍 주봉리 산25-2	852-4689	
순천시	소라동청소년공부방	덕월동 698-1번지	미확인	60
	YWCA청소년공부방	저전동 194-3번지	미확인	54
	평죽교회 평죽공부방	황전면 평촌리 473	754-9105	
신안군	안좌청소년공부방	안좌면 읍동리	279-6671	50
여수시	경호동청소년공부방	경호동 474-1번지	미확인	50
	만흥동청소년공부방	만흥동 720-6번지	미확인	50
	중흥동청소년공부방	중흥동 680-8번지	미확인	50
	진남아파트 청소년공부방	학동 54번지	미확인	150
완도군	약산청소년공부방	약산면 장용리 540-6	미확인	
진도군	삼동청소년공부방	진도읍 쌍정리 126	미확인	
해남군	영남공부방	북평면 영전리 397	533-7627	
	해남청소년공부방	해남읍 해리 451-1	미확인	

13) 전라북도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63)	수용인원
고창군	고창군청소년공부방	고창읍 교촌리 224-7	564-2501	50
군산시	신흥동청소년공부방	금동 26-91번지	446-6989	60
	미원동청소년공부방	미원동 335번지	443-5501	72
	삼학동청소년공부방	삼학동 782-2번지	462-4492	94
	소룡동청소년공부방	소룡동 1047-30번지	463-3474	90
	오룡동청소년공부방	오룡동 834-38번지	466-4615	60
김제시	김제시청소년공부방	신평동 594-4번지	542-7900	55
남원시	노암동청소년공부방	노암동 530-1번지	633-7175	50
	동충동청소년공부방	동충동 394-4번지	625-2086	70
부안군	변산청소년공부방	변산면 지서리 390-17	584-6265	52
	부안청소년야간공부방	부안읍 서외리 117-1	584-2475	54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63)	수용인원
익산시	송학동청소년공부방	송학동 143-144번지	842-9377	50
	어양청소년공부방	어양동 510-1번지	831-6567	58
임실군	원광청소년공부방	오수면 오수리389-9	642-5104	60
전주시	진북동청소년공부방	덕진구 진북2동1105-3	252-8802	66
	나누리청소년공부방	덕진구 팔복동2가30-5	121-1005	50
	나눔교회공부방	완산구 교동1가 972-1	282-9009	
	흑석골청소년공부방	완산구 서서학동986-1	282-7230	60
	350번지 기린 청소년공부방	완산구 중노송동1가	231-4382	80
	평화동청소년공부방	완산구 평화동1가 445-1 번지	284-2733	60
정읍시	신태인청소년공부방	신태인읍 신태인리303	571-6525	60
	연지동청소년공부방	연지동 258-6번지	537-1421	52

14)제주도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64)	수용인원
남제주군	의귀리청소년공부방	남원읍 의귀리 1482-5	764-5800	50
	삼달1리청소년공부방	성산읍 삼달리 724-1	782-7990	50
	사계리청소년공부방	안덕면 사계리 2657	794-4533	60
	세화1리청소년공부방	표선면 세화리 1123-3	787-3301	60
북제주군	김녕리청소년공부방	구좌읍 서김녕리962-2	783-4379	40
	남읍리청소년공부방	애월읍 남읍리 1604	799-4659	87
	조천리청소년공부방	조천읍 조천리 1220-1	783-6044	104
	함덕리청소년공부방	조천읍 함덕리 1200-4	7783-8234	182
	웅포리청소년독서실	한림읍 웅포리 463	796-3756	65
서귀포시	강정동청소년공부방	강정동 4471번지	미확인	65
	색달동청소년공부방	색달동 1955-4번지	738-1542	90
	중앙동청소년공부방	서귀동 269-4번지	733-1533	84
	서홍동청소년공부방	서홍동 441-9번지	763-0666	84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64)	수용인원
서귀포시	신희동청소년공부방	신희동 701-1번지	767-2323	50
	하효동청소년공부방	하효동 236번지	767-3550	88
	호근동청소년공부방	호근동 1764-8번지	739-1811	95
제주시	새살청소년공부방	연동 2003-2번지	747-4561	60
	성화청소년공부방	용담2동 924-5번지	747-0003	90
	일도동청소년공부방	일도1동 1064-2번지	755-4740	90
	동화청소년공부방	화북동 9-1번지	미확인	101

15) 충청남도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41)	수용인원
공주시	BBS청소년공부방	산성동 174-23번지	854-3390	54
	금강사회복지관 소년공부방	옥룡동 123번지	856-6110	58
	유구백교청소년공부방	유구읍 백교리 82-6	841-8190	72
군산군	마전청소년공부방	추부면 마전리 549-3	752-7097	80
당진군	상록청소년공부방	송악면 기지시319-1	355-6005	50
	신평청소년공부방	합덕읍 금천리 336	362-2811	60
	합덕청소년공부방	합덕읍 운산리 263-9	362-2831	42
보령시	종합복지관내 천북청소년공부방	천북면 하만145-1번지	641-7330	50
	쌍북청소년공부방	부여읍 쌍북리 113	835-2867	65
부여군	주마라기청소년공부방	석성면 중산리 1320-55	836-6353	60
서산시	서산청소년공부방	운산면 용장리 442-9	663-4024	50
서천군	서천청소년공부방	서천읍 군사리 183-35	952-3955	54
아산시	라이프청소년공부방	모종동 578번지	541-7707	55
	은양청소년공부방	은천동 206-24번지	545-2408	80
	문화원청소년공부방	은천동 206번지	545-2222	80
	옥련청소년공부방	은천동 226-41번지	546-4407	86
	온주청소년공부방	읍내동 206번지	548-9316	60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41)	수용인원
연기군	금남청소년공부방	금남면 용포리 143	866-8802	56
	연동청소년공부방	동면 내판리 13-3번지	864-1135	52
	소정청소년공부방	소정면 소정리 48번지	565-0900	52
	전동청소년공부방	전동면 노장리 584-1	863-4612	52
	전의청소년공부방	전의면 동교리 157-18	865-9557	64
	연기청소년공부방	조치원읍 죽림리 79	865-9767	50
천안시	봉명청소년공부방	봉명동 62-28번지	571-9277	50
	선영청소년공부방	성정동 728-1번지	574-1292	84
	월터청소년공부방	청수동 218-100	554-5000	50

16) 충청북도

시,군,구	공부방명	주소	전화번호(043)	수용인원
괴산군	불정청소년공부방	불정면 목도리 296-7	833-7137	52
	중평청소년공부방	중평읍 중평리 917-26	835-1611	67
단양군	단양청소년공부방	매포읍 평동 1321번지	422-1553	50
보은군	마로청소년공부방	마로면 관기리 261-2	542-9445	60
영동군	화산청소년공부방	화산면 서산리 838-2	743-7196	78
	황간청소년공부방	황간면 남성리 564-1	742-1969	78
옥천군	읍내청소년공부방	옥천읍 죽향리 153	731-0655	62
	이원청소년공부방	이원면 강창리 5-2	732-2345	96
음성군	삼성청소년공부방	삼성면 덕정리 513-1	877-4350	50
	음성청소년공부방	음성읍 읍내리 613-7	872-1041	50
제천시	의림청소년공부방	중양동 71-1번지	646-1997	72
	제천청소년공부방	화산동 415번지	643-7475	50
진천군	덕산청소년공부방	덕산면 용봉리 575-5	533-3203	50
	이월청소년공부방	이월면 장양리 457-1	534-0038	50
청원군	오창청소년공부방	오창면 창리 48번지	222-5045	48
청주시	용암청소년공부방	상당구 용암동 2108	293-9191	78
	산남청소년공부방	홍덕구 수곡동 335	271-1428	90
충주시	목행용탄공부방	목행동 600-15번지	853-2725	120
	문화청소년공부방	문화동 2274번지	843-6235	72
	수안보공부방	상모면 온천리 88-20	847-5157	
	엄정청소년공부방	엄정면 용산리 465-4	851-1690	60
	증원청소년공부방	주덕읍 신양리 176-32	851-4357	65

부록 3 : 청소년공부방 - - 화를 위한 현장전문가 자문

1. 청소년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제언⁸⁾

1) 일반현황

현재 청소년공부방의 세밀한 유형별 분류가 필요하다. 청소년공부방이 과거 문체부에서 신설한 이후 점차적으로 그 관리 및 전반적인 권한이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각 지자체별로 그 운영 유형이 다양해졌다.

예컨대 관악구의 경우-청소년공부방 신설 초기 각 동마다 16 개소에 서 '96 4개소로 축소되되, 구청장의 완전 폐쇄(또는 용도변경 등)의 입장을 구의원(당시 구의회 보보위원장)의 개인적인 청원으로 민간단체에게 맡겨서라도 활성화시켜 존립시키고자하여 이를 받아들여, 재정은 동사무소에서 관리 관장하면서 종교단체 3개소와 개인에게 프로그램 위탁형태로 3년간 운영하다 '98년 시범위탁 기간 1년을 통해 '2000년 1월 정식 위탁심의를 거쳐 현재 재개발지역 1개소가 폐쇄되어 3개소만이 남아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재개발의 경우 청소년공부방관련 향후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없어진다면 자치구내 청소년독서실(2개소)과 청소년회관(1개소)을 이용하면 된다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지역사회 복지 차원으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소규모로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모든 지역 복지시설들을 배치해 나가는 지향에도 역행하며, 특히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지역 청소년공부방이 100% 폐쇄하여도 이를 사전에 막을 특별한 조치한 없다는 점이다. 또 다른 경우 인천 남동구의 경우 지역 복지 차원에서 민관 파트너쉽을 설정하고, 민간공부방들에

8) 이 부분은 이미화(서울공부방연합회 회장)에 의해 집필되었다.

게 구 재정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월 3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조건 없이 지원하고 있다. 또 민간공부방에 구비를 지원하고, 그 공간을 구립청소년공부방의 간판을 걸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비영리민간공부방들의 형태는 IMF 이후 실업기금지원을 통한 무료급식소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겸하는 시설들이 많이 발생하여 그 숫자가 IMF 이전에 비해 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들은 급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민간공부방은 급식을 시행하지만 일상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무료급식소에서 발전된 경우 연륜이 짧고, 향후 민간공부방과 같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전문시설로 지속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또 이전에 민간공부방으로 출발한 곳에서도 지금은 '000방과후교실'이나 '000학교'식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현행 공부방 프로그램과 비슷한 초등학생 대상의 방과후 아동지도가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이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부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정부지원금-시설지원비 삼천만원과 연간 지원금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는 등등 현재의 유형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현황들을 살펴보는 것은 과연 현재의 청소년공부방을 어떤 용도와 위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가를 고민해 볼 때,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24세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공부방의 프로그램에 초등학생에서부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의 목적을 열람용 독서실을 제공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이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타성과 행정 편의적 의식은 초·중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민간공부방 프로그램이나 기타 문화활동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이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관련 행사는 주로 이벤트식의 일회성 행사(청소년 음악회/댄스경연대회) 등과 외형적인 놀이공간과 그 시설-농구대/간이무대 등의 시

설에 대한 투자에 편중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정서적·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투자와의 불균형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운영비에 비하여 재료비와 기타 기자재비, 시설투자 비용 등의 운영비 증액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재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지역별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단체들은 상당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문광부와 지자체에 대한 설득은 쉽지 않은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

2) 이용청소년 대상의 문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시설 이용대상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상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90년 초반에 만들어진 시설 지침자료들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공부방 시설

시설과 관련하여 앞서 전제들이 재검토되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시설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많은 변화를 주어야만 한다. 객담으로 청소년공부방에서 열람용 독서실을 운영할 때도, 학부모들의 바람은 여름에는 에어컨디션이 있어야 하고, 사설 독서실과 같은 사물함과 지정석 배치 등과 같은 수준의 관리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과 재정수준에서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할 시설 투자가 불가능하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전문적인 지도 또는 최소한의 청소년 교육에 적합한 학력과 자격 및 소양을 갖춘 관리자를 안정적인 직장개념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 대구 공청회에서 확인된 것은 청소년관련학과를 나온

청소년지도사들 조차도 인건비 구조가 불안정하고, 위상이 불확실하여 청소년공부방과 같은 소규모 시설 근무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도 문광부의 재정 지원은 자원봉사자 개념의 관리자 활동비와 약간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규모이므로, 많은 경우 민간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건강한 어르신 한 분이 관리실에서 출입자 장부기입을 지켜보며, 시설관리 책임정도를 맡고 있으며, 어떠한 교육적 지도활동이 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비행의 온상지가 되어 지역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어 청소년공부방들의 교육적 이미지를 오히려 해치고 있으며, 지자체가 공간 폐쇄나 용도변경 등을 하게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열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단체들은 시설투자에서부터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공적 지원비보다 두배 이상되는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적 지원비의 규모는 동일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 기획이나 후원금 조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청소년 문화·복지사업에 뜻을 가지고 순수한 의지로 시작하였던 단체들이 오히려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포기해야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의 공공시설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부처들이 필요시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공시설의 개방에 따르는 문제점들-문광부에서 설치한 몇 개의 동사무소 별관 '문화의 집'의 경우도 공무원들을 배치하여 관리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신선한 운영 아이디어나 분위기, 기본 문화적 소양과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공무원들의 퇴근시간 이후 시설 이용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그 이용과 활성화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울러 물리적인 공간 자체도 열람실용 큰 홀(hall)로 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시설변경을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재정은 지자체와 협의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위탁단체가 전적으로 이를

책임지기엔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1~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을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단기적인 재정 투여가 힘든 상황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화복지시설들에 대한 위탁계약 기준 역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부방내 기자재 설치와 관련하여서도 비슷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위탁단체의 능력에 맡겨져 있어,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기재들-- 퓨터 및 시청각기재, 댄스 펌프, 놀이 및 운동기구 등의 구입 비용 역시 규모가 큰 것이어서 위탁단체의 일방적인 부담으로는 이를 이용 청소년들의 숫자에 맞게 다 구비하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다. 또한 이를 비치하기 위한 소규모 특별활동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투자가 불가피하여, 앞서 지적한 시설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대구의 청소년공부방 한 위탁단체의 경우, 야간 독서실 운영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봉고차를 구입하여 밤 1시까지 운영하는 열의를 보이는데 비해, 지원경비 가운데 차량연료비지원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일체의 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각 단체가 지자체가 위탁체에게 시설을 맡기고는 그 운영 재정과 관련하여서까지 모든 것은 일방적인 자원봉사만을 강조하며 책임을 더 넘기는 상황에서는 그 운영 책임을 재고해야 한다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많은 공공시설의 경우 건물 기초 공사가 부실하여 수도, 난방시설의 문제나 기본 방음, 방충시설 부재, 지하 시설 누수 등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 시설공간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사비 부담 역시 상당부분 위탁체에게 떠넘겨져 있는 상황이며, 이 같은 문제는 IMF 이후 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들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4) 공부방 운영인력

현재 청소년공부방 재정에 있어서 명확한 인건비의 책정이 부재한 형편으로, 대구의 경우-자원교사 활동비로 되어 있거나, 관악구 프로그램 위탁초기-취로사업 일당으로 계산되기도 하고, 관악구의 현재는 운영경비 전체가 일인의 인건비만으로 되어 있으며, 일체의 프로그램비가 없는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시설장 명의로 사회복지사 초봉을 기준으로 그 이전 경력과 기타 수당은 무시된 채 정식위탁 체결시기부터 지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설장 이외의 책임교사들의 인건비는 위탁단체에서 책임져야하므로,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이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공부방 신설 초기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위탁시 시비와 구비를 통하여 운영에 필요한 2~3인의 인건비와 약간의 운영경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나, 지자체 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입장으로 각 지자체의 제 형편에 따라 행정 편의적인 집행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들은 1~2인의 실무책임자(시설장 포함)와 상근교사를 두어야 프로그램의 책임있는 운영이 가능하다. 거기에 이들을 보조하고, 자체적인 또는 외부기관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프로그램을 운영이 가능한 자원활동교사가 있어서 그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있다. 청소년 시설의 자원활동교사들의 경우 연령대와 학력과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그 활동이 가능하므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막연한 지향만으로는 교사 활동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1~2인의 자원봉사자 활동비 정도와 나머지 100% 순수 자원봉사 인력만으로 무료 프로그램의 제공으로는 청소년공부방의 문화 복지적인 공공 서비스와 제 역할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재정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침서에 의한 문광부에서 집행하는 시비(?)+구비의 재정규모나 형태가 일관성 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확인할 책임있

는 경로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청소년공부방을 지원하는 경우, 다양한 공공근로사업 종류가 있으나, 일반 공공근로자들의 경우 청소년시설에 적합한 인력을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청소년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할 또는 가르쳐야 하는 부담이 커서 자신없어 함으로 청소년 시설로의 배치를 기피하는 현실이다.

5) 공부방 운영재원

공부방의 운영 재정은 기본 항목이 비중이 가장 큰 것부터 하며 다음과 같다.

- (1) 인건비 : 실무책임자 + 상근교사
- (2) 프로그램 운영경비 : 특활재료비+기자재구입비+교재·교구구입비+도서구입비+교사교육 및 회의비
- (3) 각종 공과금 및 시설 유지비-시설공사비 및 시설투자비
- (4) 행사지원비-계절별 캠프 및 견학기행 지원비
- (5) 약간의 예비비

보통 공공시설-시립/구립시설인 경우, 시설이용료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이용료와 관련하여 공공독서실은 무료 또는 300~500원 정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관악구의 경우 이용료 수납은 회계업무인력 문제와 업무 부담으로 이용료는 무료로 하기로 하고, 구비로 지원되지 않는 프로그램비는 ‘특별활동 참가비’의 명목(1~2만원)으로 받도록 합의한 바 있다(법정 보호가정은 무료임). 그러나 이것으로 운영비의 충당이 어려우므로, 개 공부방의 위탁제 지원금이나 직접 수익사업을 기획-하루찻집 또는 하루주점 등-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열람실 및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하고 있으며, 현재 재정지원은 120여 만원-자원봉사교사 2인 90만원+운영비 30

만원 정도인데, 이를 전국 균등 분배라는 원칙 하에 지역적으로는 삭감되는 상황이어서 재정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그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경우 현재의 위탁단체들이 운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덧붙이자면, 민간공부방들의 경우에 절대적으로 유료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민간단체가 자선단체가 아니니 이상, 지나친 무료 시혜활동은 이들의 자존감과 주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육 수혜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간 최소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매개이기 때문이다).

6)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공부방 개요

시설명	대표	운영주체	주 소	연락처	설립연도
우리자리공부방	김기돈	낙골복음교회	관악구 신림3동 630-29	837-3903	1992년 (위탁 '96년)

(2) 공부방 주변지역 실태

① 인구수(가구수): 20,539명

② 공부방 대상 아동수 : 초등 1,750명/중등 793명/고등 1,086명

③ 주변환경(약술)

'우리자리공부방'은 구립청소년공부방으로 '99년 현재 민간단체에 시범위탁중인 기관이다. 주변지역은 일반 주택이며,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이 지역에서 보호대상 가구 및 실직가정 그리고 저소득 맞벌이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근지역 반경 안에 저렴한 청소년 이용 시설이 없어 신림 7동, 신림 13동, 신림 3동, 신림 12동에 거주하는 초·중등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3) 공부방 현황

① 인원현황

대 상 학 생				상근 교사	자원 교사	기 타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	계			
회원 55명	회원 15명	(일반열람)	• 회원: 70명 • 열람이용자	3명	10명	공공근로 2인

② 시설현황

부지(건평)	건물보유형태	부속시설	기타
78평(2층)	(구립시설 위탁)	• 사무실 1곳 • 특활교실 2곳 • 상담실 1곳	지하실 옥 상

③ 교육기자재 및 학습보조자료

품명(내용)	수량	규격	설치 또는 구입년도	활용 방법
컴퓨터	5	*	(개인 기증)	사무용
화이트보드	2	중	'99	특별활동 수업용
CD세트	1	*	'99	"
도서 및 잡지	500여권	*	재고도서 (기증)	자유독서
키타(악기)	10대	*	(기증)	수업용/문화교실

④ 자모회 현황 : 매월 마지막 화요일 참가인원 평균 15~20명

⑤ 후원현황 : 구청 1인 인건비(672,000원)

⑥ 아동 1인당 월회비 :

초등부 20,000원 / 중등부 20,000원 / 청소년문화교실 15,000원

보호대상가구 및 실직가정 무료-총 회원중 15%

(4) 공부방 연간사업계획서(별첨)

(5) 현재 공부방 운영에 가장 필요한 교육기자재

교육기자재	용 도	수 량(개)	기 종
프린터	교육용	1	레이저
복사기		1	소형
교육용-컴퓨터		5	586펜티엄급

(6) 공부방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부방 활동과 교사의 역할은 저소득층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소외감과 열등감을 건강한 정서와 가치관 교육으로 극복시키며, 올바른 인격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①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건강한 신뢰와 가치관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며 ② 개개인의 잠재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를 통하여 열등의식을 극복하도록 돕고자 한다 ③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와 태도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몸에 익히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들과 함께 교사들은 ① 우리 아이들이 열등감으로 소극적이던 생활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② 그렇게 되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도와주고 있는가? ③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재정립하도록 도와 주고 있는가? ④ 아이들은 건강한 자기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⑤ 우리 공부방의 교육을 통하여 상호 신뢰감을 회복해 가면서 건강한 공동체적 인식의 형성과 그 실천을 확인할 수 있는가? ⑥ 이를 위하여 교사들은 교육적 모델이 되고 있는가를 항상 되물으며 활동하고 있다.

7) 공부방 운영현황

(1) 공부방활동의 목적

첫째, 날로 더욱 심각하게 사회화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학원 폭력으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 내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과 건전한 학습 분위기 조성하고 담당하고자 한다.

둘째, 현행 청소년 공부방 프로그램들을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지역 내 청소년 교육 문화 공간으로서 또한 대주민 활용 공간으로서 충분한 이용 가치가 있도록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책임교사의 지도 하에 지역 인근 대학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초·중등 학생들에게 학습 지도 및 특별 활동 등을 성실하게 실시하고, 나아가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 기능을 보완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운영 프로그램 내용

① 저소득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위한 초등부 방과후특별활동교실 운영(기초학습지도/과제물지도/독서지도/요일별 특별활동교실)

② 중학생 야간학습지도교실 운영(영어/수학/역사/글쓰기 등)

③ 어린이 방학특강(종이접기/글쓰기/기타교실 등)

④ 계절캠프(여름생태환경캠프/겨울전래놀이연수캠프)

⑤ 청소년문화교실 실시(중등부 취미교실 운영-댄스/키타/컴퓨터 동아리)

⑥ 청소년 성교육교실(분기별:아우성상담소 연계프로그램)

⑦ 청소년 집단상담(상·하반기 심성훈련 '마음을 열어요')

⑧ 자원교사교육(자체교육 및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교사연수)

(3) 프로그램 진행현황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진행시기												실시횟수
	2000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초 등 부 방과후특활교실	★	★	★	★	★	★	★	★	★	★	★	★	연중일상 PRO.
중 등 부 야간학습교실	★	★	★	★	★	★	★	★	★	★	★	★	
어린이방학특강	★	★					★	★				★	여름/겨울 방학 PRO.
계절연합캠프	★						★						
청소년문화교실			★	★	★	★	★		★	★	★	★	학기중 특활
청소년성교육			★		★		★			★			분기별
청소년집단상담 (‘마음을열어요!’)				★	★	★			★	★	★		학기중 상하반기2회
자체교사교육			★						★				
연합회교사연수		★			★			★			★		방학중 연수 학기중소양교육

(4) 연간일정내용

- 1월 : 겨울방학연합캠프
- 2월 : 공부방 새학기준비 / 실무자수련회(서공연) / 교사연수
- 3월 : 신입생모집 / 신입교사모집 / 자체 교사교육 / 청소년성교육
- 4월 : 청소년문화교실/상반기 청소년집단상담-초·중등부 심성훈련
(‘마음을 열어요!’ 4~6월 : 10회)
- 5월 : 어린이날 연합행사 / 서공연 교사교육 참가 / 청소년성교육
- 6월 : 소식지발간 / 지역단오향마당 참가
- 7월 : 실무교사 수련회/교사문화캠프(서공연주최) / 방학특강문화교
실(종이접기/키타교실 등) / 청소년 성교육
- 8월 : 여름방학캠프 / 소식지발간

- 9월 : 신입교사모집 / 하반기 청소년집단상담-초·중등부 심성훈련
(‘마음을 열어요!’ 9~11월 : 8회)
- 10월 : 청소년 성교육 / 추석한마당 / 청소년문화제 ‘민들레합창’
- 11월 : 서공연 교사교육 참가
- 12월 : 방학특강 /학예발표회행사 /겨울캠프준비(1월)

5) 공부방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화

우리 사회가 다함께 염려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이 사회 문제 시되는 때는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어디로 향해 나갈 것인가'하는 방향을 상실할 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탈현상의 문제는 사회 심리적 압력이 개인에게 과다하게 부과될 때 유발되거나 촉발되기도 하는데, 이 과다한 압력이 긴장을 유발하고, 개인적 소망과 현실사회의 기대 사이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의해 좌절된 사회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목표와 현실적 수단의 불일치와 불균형은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한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청소년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문제현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 사회 일탈 현상의 문제 대두는 이미 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의 반영이라는 점이다. 결국 한 사회의 가치 추구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하는 문제는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을 규정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아직 미완의 존재로서 가치 탐색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확장해 나가면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문화가 성인 중심의 기성문화의 부분적 문화로서 상업성과 소비구조에 밀어 넣기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중의 억압과 제재를 가하는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우리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공간들 어디든 이들이 사회와 유기적인 존재로서 교육적 학습 내용과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갈 방향과 가치 지향(모델링)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 사람다운 냄새가 있는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생활문화의 삶터이자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문화가 수용되고 실험되는 문화놀이터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그으로써 열악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주변 현실로부터 강화된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 양식들을 이제는 자유로운 자기 표현이 가능한 분위기에서 숨쉴 수 있게 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자기 생각을 실현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능과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서, 세대간의 또래간의 새로운 신뢰와 애정에 기초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하여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이들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할 수 있고 인간과 인간이 부대끼는 공간과 프로그램들로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주체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목표 지점들을 설정하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할 청소년공부방들의 형태와 프로그램의 기획을 함께 해 나갈 방향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겠다. 지역 내 청소년공부방은 ㉠ 날로 더욱 심각하게 사회화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학원 폭력으로부터 우리 청소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존감 높은 존재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지역 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다. ㉡ 현행 청소년 공부방들의 독서실험의 단순 열람기능들을 전환하여 청소년 교육, 문화 및 복지 프로그램들로 도입하고,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들을 더욱 전문화 내지 활성화시키며 나가야 하겠다. 또한 ㉢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복지·문화 공간으로서, 또 대주민 활용 공간으로서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으로 시설 보완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

을 지지·지원할 수 있는 복지자원 연계망을 구성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반의 건강한 문화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들 역시 지역 구성원으로써 자신들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건 강한 힘을 환원할 수 있는 복지공동체로서 변화·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기반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부방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초등학생에서부터 중등 내지 고등학생들까지 포괄하고 있으므로,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들은 다양하다. 초등학생들과 함께 하는 방과후특별활동교실의 특성은 내용적으로 현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와 비슷하며, 중등부는 청소년공부방들이 야간학습교실과 문화동아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그 대상에 따라 사실 제도화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들은 너무 많다. 현행 ‘방과후 아동지도’는 개정 영유아보육법(10세 아동까지)에 준하여 시행되며, 내년부터는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대상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9~24세 이하), 평생교육 내지 사회교육법에 이르는 법 조항들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장 부처도 제도 교육의 피교육자이므로 학습과 관련하여 교육부, 저소득층 자녀 대상 또는 아동, 청소년 복지전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청소년 관장부처인 문화관광부, 방과후 아동지도 자격증을 관장하는 노동부, 거기에 신설될 여성부에 이르기까지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해서 이들 동일 범주의 대상을 총괄하는 통합적인 정책이나 관할 정부부처가 없으므로, 제각기 자기 부처의 소관 업무로서의 사업들을 따로 추진하고, 실적 위주의 행정을 진행함으로써, 실제 대상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는 명확하지 않으면서 제각기 인적, 물적 자원들을 소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과 청소년을 총괄하는 부처를 마련하고, 제각기 따로 돌아가는 정책들의 합리적인 통합실천계통을 마련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 또는 제도적 기반들이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관련 민간단

체들과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의 형성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수행에 있어서도 많은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또 민간단체들의 경험적 노하우를 심분 활용한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아동·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본다.

2. 민간위탁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사례9)

- 대구지역 평리4동 청소년공부방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대구KYC)는 20-30대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인간존중의 공동체사회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우리단체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게 된 것은 청소년 시기를 최근에 경험한 세대로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였다.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이 살고있는 동네에 위치해 있음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청소년들의 생활과 주변환경(가정, 학교, 친구 등)이 파악됨으로 청소년들과 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의 자치활동이나 주민들의 참여도 가능함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부방은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에도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1999년부터 평리4동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9) 이 부분은 김해숙(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 간사)에 의해 집필되었다.

대구지역에서는 시·구비 지원의 민간위탁운영 공부방이 현재 33개가 운영되고 있다. 3-4곳을 제외하고는 열악한 환경에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 열람실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구시 서구 평리4동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우리단체에서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곳으로서 처음 1년간은 이용청소년들과의 관계형성과 주민들의 인식이 나빠던 공부방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주력을 하였다. 2년째 부터는 청소년들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노력을 하였다.

아래의 운영사례는 99년 1년간 운영을 해오면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던 부분과 이용청소년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좀더 청소년공부방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2000년 1월부터 진행해 오던 내용이다.

2) 청소년공부방 운영사례

(1) 청소년공부방 운영목적

첫째, 청소년들의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둘째, 정보와 문화를 겸비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셋째, 제도권교육에서 부족한 다양한 인성교육과 상담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자아정체감 형성을 돕기 위함이다.

넷째, 자치활동, 참여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자발성, 책임성, 민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참여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2) 2000년도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한 4대 핵심과제

① 보다 나은 시설환경 마련

- 정보화 시대에 맞는 인터넷 환경구축
- 독서실 구조에서 탈피하여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공간으로 구조 개편

- 쾌적하고 깨끗한 청소년의 휴식공간 마련

② 체계적인 운영구조 확립

- 청소년, 운영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 확립

- 전문적인 경영마인드 도입

③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
- 청소년들의 자발성, 주인의식,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 일상 프로그램 안착화

④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

- 단순히 관리자의 역할이 아니라 청소년을 지도하고, 자원 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3)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

평리 4동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은 가정환경은 월 가계 소득 200만원 이하 맞벌이부부 가정의 자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주일동안 평균 3일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90%이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대학생까지 고루 이용하는 편이며, 공부방을 이용하는 주요목적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가 제일 많으며, 그 외에 친구를 만나거나 동아리활동, 취미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다.

운영기간	2년
건물형태	경로당과 함께 있는 복합건물
지역적특성	주택과 아파트 단지 중복된 지역
평균이용자수	50명
좌석수	80석
운영시간	주중 : 오후 4시부터~11시까지 토요일 : 오후 1시부터~11시까지 (일) 오전 10시부터~11시까지

청소년들의 기본적 욕구는 단순히 공부방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열람실의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해주기보다는 인터넷 이용이나, 자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독서,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라고 있다.

(4) 평리4동 청소년공부방의 기본적 특성

① 청소년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

청소년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부방이란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그림이 있다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말이다.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참여프로는 것 또한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하는 목적이 될 수가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시설여건의 마련은 전제가 되어야한다. 지금까지 공부방은 독서실 형태의 학습공간으로 유지해 왔기에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조차 갖추어지지 못한 곳이 많다. 그러나 매일 청소년들이 책상을 차지하는 비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40%는 오히려 휴식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훨씬 유용할지 모른다.

공부방을 나가면, 노래방, 오락실, 피시방, 커피숍 등이 지천으로 있는데 굳이 공부방에서도 이러한 환경들을 마련해야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이의를 제기할 지도 모른다.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들이 상업적 소비문화의 주체가 아니라, 건전한 문화창출 의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쾌적한 휴식공간의 마련부터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청소년들의 제일 큰 요구 사항이었다.

평리4동 청소년공부방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환경개선을 하였다.

- ▶ 쾌적한 실내환경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 ▶ 독서실 구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조 변경
 - 지하실을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공간으로 개조
 - 2층 열람실을 교사실, 휴게실, 소모임공간, 소강의실로 개조
 - 3층 열람실 책상의 일부를 스터디용 책상으로 개조
- ▶ 정보화 욕구충족을 위한 인터넷환경구축
 - 팬티엄급 컴퓨터 3대 비치, 인터넷 전용선 설치
- ▶ 기타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자재 마련
 - 휴게실 내에 시청각시설(TV, 오디오, 비디오) 비치,
 - 지하공간에 헬스기구, 탁구대 설치 등

평리4동 공부방 보유시설

2층	자원봉사자 사무실, 소모임터, 강의실, 휴게실, 컴퓨터시설, 도서, 시청각시설(TV,비디오,오디오),남자화장실
3층	개인용 책·결상, 스터디용 책상, 여자화장실
지하	헬스기구, 탁구장, 댄스동아리연습실

②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체계적 운영구조의 확립

공부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구조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의 문제이다. 공부방의 운영주체는 누구이며, 얼마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운영에 필요한 홍보, 인적·물적 자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공부방의 활성화

의 관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부방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투입이 적은 편이어서, 단순한 관리의 개념에 머물러 있으며, 자립도 또한 기타 청소년시설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우리 단체 역시, 운영체계상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러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영구조, 전문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였다.

평리4동 청소년공부방 운영

본부, 상근자
주1회 공부방운영보고 및 계획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지원	학생간담회	학부모
월1회 자원봉사자 회의, 운영공유, 학생특성 공유	본부의 청소년지도 전문가에 의해 효과적인 프로그램 기획	월1회 학생, 운영자, 자원봉사자 간담회, 운영공유, 의사개진	수시면담, 프로그램참가

▶ 청소년, 운영자, 자원봉사자, 학부모가 함께 운영하는 운영체계

평리 4동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주체는 현재 본부, 상근자, 자원봉사자, 청소년,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다. 전반적인 공부방 운영에 대한 결정은 본부와 상근자,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의해 공부방 선생님과 본부의 프로그램지원팀의 회의를 통해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준비를 하고, 학부모의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게 된다. 현재 지역주민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부방 운영에 있어 청소년들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공부방에 와서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부터 시작해서, 공부방을 관리하는 것이 자신들의 몫임을 인식하고, 자신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공부

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로, 공부방은 훨씬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올 초에 공부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청소년들과 함께 페인트를 칠하고, 수리를 하고 난 후 훨씬 더 공부방 시설을 깨끗이 이용하고, 훼손을 할 때는 서로가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 자원봉사자조직체계 확립

청소년공부방은 운영하는데 있어 자원봉사자 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현재 우리 공부방에서는 13명 정도의 순수 무급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네에 살고 계시는 주민, 한국청년연합회의 회원, 공부방 출신의 대학생들이 주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부방 출신의 대학생들으로써 이들은 공부방을 이용해 본 만큼 누구보다 공부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과 공부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된다. 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초·중·고생 학습지도와 동아리 활동 지도, 취미교실지도, 시설관리 및 사무보조 등 다양하게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한달 동안의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평가하며, 다음 한달 간의 계획을 잡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운영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자원봉사자 또한 책임의식, 주인의식이 높다. 무엇보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은 자신이 지도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성들을 파악하여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공유함으로써 이용청소년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원봉사자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기본적인 자원봉사자 교육과,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청소년들과의 대화기법이나 공부방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우리 공부방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들 또한 공부방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을 넘어 자기자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래서 주로 자원봉사를 맞고 있는 분야도 자신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하고 있다.

▶ 후원자 개발

시·구(군)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운영보조금에 의존한 운영은 소극적인 운영방식이며, 공부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후원자 개발은 운영단체에서도 필수적이다. 그것은 단순히 공부방에 투자할 책임이 시·구(군)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에게도 있으며, 이것이 바로 공부방을 활성화하겠다는 단체의 의지인 것이다. 올해 공부방 운영을 위한 후원자 개발은 한국청년연합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금전적인 후원에서부터 시설에 필요한 기자재 후원, 자신의 직업으로 도울 수 있는 후원자들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이 인건비는 제외하고 자재비만 받거나, 주유소를 경영하는 회원에게서는 매월 일정량의 난방유를 후원받는 등의 방식으로 후원을 받았다.

후원자 개발을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동네주민들의 후원자 개발이 중요하다. 우리 공부방에서 앞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예를 들어, 동네 PC방은 공부방 이용 학생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 컴퓨터와 장소를 대여해준다든지, 서점에서는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도서를 기증하는 식의 후원자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원자에게는 적극적인 공부방 운영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참여하도록 한다면 공부방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홍 보

공부방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공부방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한 후, 만족감을 느낀 후 다른 친구들에게 공부방을 가자고 권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현수막이나 전단지와 같은 홍보물은 일회성에 그치고, 실질적인 홍보의 효과는 극히 적었다.

우리 공부방에서는 이용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신, 전화, 방문 등 1:1 홍보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용청소년들의 부모님에게 공부방의 이용방법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하고 자녀들을 공부방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청소년공부방의 청소년 참여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공부방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이로 인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로 공부방을 이용하는 시간이 방과 후 시간이라는 점을 볼 때,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 평일에 이용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학원수업으로 시간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다. 또한 학교와 가정밖에 무수히 많은 오락적, 감각적, 유흥적인 성인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공부방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딱딱한 곳일 수밖에 없다.

평리 4동 청소년공부방은 평상시에는 방과후 학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학교·학원수업과는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학원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습지도나, 학생 스스로가 그룹을 만들어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 학습으로 대체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상담을 주로 하고 있다. 주말과 방학중에는 동아리 활동과 야외활동, 다양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즐길거리를 마련하며, 학교교육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인성교육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2000년 한해동안 핵심적으로 진행해 온 프로그램들이다.

▶ 청소년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1인 1동아리 활동운동”

농구동아리, 컴퓨터동아리, 댄스동아리 등 자신의 관심있는 분야의 동아리활동

▶ 인성교육프로그램 강화

성교육, 자원봉사교육, 청소년리더쉽 교육 등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진행

▶ 주말, 방중프로그램 강화

학교수업, 학원수업으로 주중에는 진행하기 힘든 산행, 체육대회, 문화탐방, 캠프 등 주말, 방중 프로그램을 활성화

▶ 상담활동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힘든 주중에는 수시로 이성, 진로, 가정 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 취미프로그램

종이접기 교실에서 만든 작품들을 팔아 수익금으로 동네 홀로 사시는 노인돕기

▶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책모으기운동”

이용 청소년끼리 1인 1도서 나눠읽기·책장빈틈 매우기운동, 평리4동 공부방에 책보내기 운동

▶ 인터넷 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

건전한 인터넷활용교육, 홈페이지 공부방 게시판활성화

▶ 초대의 날 행사

친구, 학부모 초대를 통한 공부방 안내

구청장, 또는 지역인사를 초대해 간담회 진행

▶ 한국청년연합회 단체 프로그램참여

한국청년연합회의 좋은친구 만들기 프로그램, 등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주간 상시프로그램 편성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고등수학	중학영어 중학수학 초등한문			중학영어 고등수학 초등한문	고등영어 중학수학 고등수학	고등영어 고등수학 수험생수학
개인상담	개인상담 종이접기교 실	개인상담	개인상담	개인상담 종이접기교 실	개인상담 동아리활동	개인상담 동아리활동

<2000년도 주말·방학중 프로그램 내용>

주요 프로그램	내용	일시	장소	참가인원
청소년 리더심강좌	MBTI, 성교육..	1월25 ~ 27일	남구 수련실	고3 7명, 중 2명
되사랑 산행	정기 산행	2월 27일	거창"미녀봉"	고 5명
체육대회	축구, 농구	3월 19일	기능대학교	중5명,고7명,대5명
하이킹	자전거로 문화답사	4월9일	경주	초2명,고4명,대4명
문화탐방	안동 문화 답사	4월23일	병산서원 하회마을	고2명, 초2명
어린이날 행사	다과, 선물증정	5월8일	공부방	초5명
스승의날 행사	간담회	5월12일	청학동(식당)	봉사자6명
KYC 체육대회	축구, 달리기, 족구	5월21일	봉덕초등학교	고18명,중4명, 대7명
문화탐방	가야문화권 답사	6월4일	박물관 견학..	고5명
되사랑 산행	정기산행	6월25일	팔공산 동봉	중4명,고3명,대5명
성교육	성폭행,성지식 교육	8월8일	공부방	중4명
여름캠프	조별활동, 수영 캠프	8월12일~1 3일	보현 자연수련원	초3,중7,고8, 봉사자9명
송편 빚기	경로당 어르신들과	9월7일	공부방	중5명,고3명,대3명
문화탐방	경북문화권 답사	11월5일	경주 EXPO	고6명
옛 파티	고3 수험생을 위한 파티	11월5일	공부방	고15명, 대9명
체육대회	서구공부방연합 체육대회 농구,축구,피구	11월12일	기능대학교	고8명, 대3명
자원봉사 학교	자원봉사활동의 이론	11월18일	봉덕3동 수련실	고7명

④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한 상근자의 전문성 강화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시설운영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직접 만나야 하는 위치에 있기에 더욱 전문성을 요한다. 단순히 자원봉사의 개념에서 공부방에 종사하기에 상근자의 잦은 교체나 공부방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근자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고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때 효과적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거기에 시설경영에 대한 능력과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전문성의 향상은 상근자의 의욕이 고취됨과 동시에 공부방 운영의 활성화와 직결된다.

▶ 상근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청소년지도교육, 상담교육, 자원봉사자 운영과 관리 교육 등

▶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정기 자원봉사자 교육

기본적인 자원봉사의 이해,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공부방운영의 이해 등

▶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한 워크숍 개최

타 공부방 상근자 및 자원봉사자 간의 워크숍을 통한 정보교환

3) 나오며

청소년공부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반면 여타 청소년 시설에 비해 투자나 전문인력의 투입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폐쇄되어 가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부방 운영에 관계하고 있는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금보다 더 많은 변화와 개선

이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공부방의 첫 번째 주인이 청소년인 만큼 청소년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운영상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 무작정 현실을 쫓아가기에는 청소년의 이해와 요구는 많이 다르다. 청소년들이 공부방에 바라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자신들을 이해해주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이다. 아무리 주변에 노래방과 오락실, PC방이 널려있지만, 굳이 그곳이 아니더라도 공부방에 가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친구들과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다는..

그리고 공부방에 가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공부방이기를 바란다. 조금만 감기가 걸리면 약국에 약을 사러가듯이, 청소년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곳으로 공부방을 변화시켜야 한다. 명칭도 청소년공부방보다는 산뜻한 이름으로 바꿔보고....

청소년공부방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 공부방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방안은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단순히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시간, 건물형태, 보유물품 등이 전부이다. 제도적 방안마련은 공부방 운영에 좀더 전문성을 부여하고, 투자의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위탁운영단체의 선정에 있어서도 청소년 활동과 관계성이 있는 단체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제도적 방침이 마련되어야한다.

청소년공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 공부방을 운영하는 단체도 적극적으로 공부방 운영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자를 개발할 필요성도 있지만, 자치단체 역시 5,6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데도 문

제가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일 30명 이상의 청소년이 꾸준히 찾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 청소년이용시설을 많이 짓는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청소년공부방과 같은 이미 있는 시설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나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년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운영 단체간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단체 간의 상호 정보교환과 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운영단체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잘 운영되는가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통해 공부방의 발전을 꾀하여야 한다.

공부방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공부방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다.

현재 자치단체와 위탁운영단체 간의 계약기간은 1년이다. 1년은 공부방운영에 대한 파악이나 청소년과의 관계형성을 하기에 짧은 시간이다. 장기적 운영방안 마련과 투자가 불가능하다. 계약기간의 안정은 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단순히 공부방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이용률로 산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운영방식이나 예산집행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소년, 운영자, 자치단체, 학부모, 지역주민의 청소년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단순히 청소년공부방이 학습공간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임을 인식하고 구성원 모두가 공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